

www.kdissw.or.kr



21회
위기를 기회로,
절망을 희망으로

자활 성공·공로 수기집 2023년



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담백한 이야기와 현장 실무자들의 진솔한 경험을 전하는 「자활사업 성공 및 공로 수기집」의 스물한 번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자활사업에 참여하셨던 많은 분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와 위안을 전해왔습니다. 올해도 수기집에 실려있는 소중한 이야기들을 통해 많은 분이 희망과 용기를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수기집에는 자활사업 참여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자활에 성공하여 사회적 귀감이 되어주신 분들의 이야기가 담긴 성공 수기 18편과 현장에서 자립·자활 지원을 위해 힘써주신 분들의 공로 수기 9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대상 수상자 나장희 씨는 한때 외부 세상과 단절되어 지내다가, 청년자립도전사업단으로 시작하여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는 한 카페의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본인의 역경과 그 극복과정을 담담하게 기록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진한 여운과 울림을 남겼습니다.

성공수기 최우수상 수상자 정영미 씨는 1톤 트럭을 몰고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양양군 1호 자활기업을 함께 창업하여 현재는 20명이 넘는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해나간 모범적인 사례를 소개해 주셨으며, 공로수기 최우수상 김새움 씨는 사회복지사로서 일하면서 겪은 자활사례관리 과정을 꼼꼼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해 현장 종사자의 생생한 경험을 전해주셨습니다.

근로를 통해 자립하려는 분들을 위해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에 따라 사례관리 중심의 맞춤형 자활복지 체계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확대되는 3천명을 포함한 7만명의 모든 자활 참여자분들의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내 일을 통한 내일의 행복’을 꿈꾸는 자활참여자와 자활 현장에서 애쓰시는 모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갑진년 새해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보건복지부 장관

조 규홍



목 차

———— 위 기 를 기 회 로 , 절 망 을 희 망 으 로

자활사업 성공 후기



대 상

더 높은 날갯짓을 꿈꾸며, 오늘도 씩씩하게 나아간다! (나장희/대구) • 08

최우수상

1톤 트럭은 오늘도 달린다 (정영미/강원) • 14

우수상

자활에서 자활하고 자활하기 (박지나/인천) • 18

막다른 길에서의 희망, 자활 (김수환/경기) • 24

어둠의 터널을 지나 희망을 꿈꾸다 (장지연/전남) • 28

입 선

Dream come true!! (박정은/강원) • 33

기적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지금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문영/인천) • 38

아들아, 만나서 밥 한번 먹자 (한봉수/경북) • 42

받는 자활에서 주는 자활로 (허진홍/서울) • 48

희망의 빛이 되어 준 자활 (임명옥/경기) • 54

인생역전 로또 자활기업 '만찬유' (천성규/충남) • 58

새로운 내 인생의 향해 (김종경/경북) • 64

- 작은 용기를 기회로 만들어 준 자활! (정영철/광주) • 69
- 자활을 통해 나는 당당해지고 꿈이 생겼다! (박수미/전남) • 73
- 내 인생 제2의 나라 한국생활 적응기 (한예림/부산) • 77
- 엄마라는 이름으로 내일을 꿈꾸다 (이명윤/전북) • 80
- 희망제작소.. 그 안에서 나는 희망을 이루어 간다 (최우정/서울) • 85
- 내 인생은 직진 (김석진/인천) • 90

자활사업 공로 수기



최우수상

우리는 함께 성장함으로 (김새움/부산) • 96

우수상

- 자활 「르네상스」시대를 열다 (정혜영/경기) • 103
- 1/100의 희망 (김유림/경기) • 109
- 꿈이 현실이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성훈/대구) • 113

입 선

- 선의를 참여자와 종사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허금주/충북) • 117
- 꿈 너머 꿈을 찾아서 (안병준/울산) • 122
- New Start!(당신과 나의 새로운 시작) (김은정/부산) • 126
- 나의 인생이 자활에서 '차올다'(차오르다) (김미선/광주) • 132
- '특별기여 난민' 자활성공 프로젝트 (이혜정/경기) • 137

**위기를 기회로,
절망을 희망으로**

자활 성공·공로 수기 2023



자활사업 성공 후기

- 대 상 / 더 높은 날갯짓을 꿈꾸며, 오늘도 씩씩하게 나아간다! (나장희/대구)
- 최 우 수 상 / 1톤 트럭은 오늘도 달린다 (정영미/강원도)
- 우 수 상 / 자활에서 자활하고 자활하기 (박지나/인천)
막다른 길에서의 희망, 자활 (김수환/경기)
어둠의 터널을 지나 희망을 꿈꾸다 (장지연/전남)
- 입 선 / Dream come true!! (박정은/강원)
기적의 시간이 흐르고.."저는 지금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문영/인천)
아들아, 만나서 밥 한번 먹자 (한봉수/경북)
받는 자활에서 주는 자활로 (허진홍/서울)
희망의 빛이 되어 준 자활 (임명옥/경기)
인생역전 로또 자활기업 '만찬유' (천성규/충남)
새로운 내 인생의 항해 (김종경/경북)
작은 용기를 기회로 만들어 준 자활! (정영철/광주)
자활을 통해 나는 당당해지고 꿈이 생겼다! (박수미/전남)
내 인생 제2의 나라 한국생활 적응기 (한예림/부산)
엄마라는 이름으로 내일을 꿈꾸다 (이명윤/전북)
희망제작소.. 그 안에서 나는 희망을 이루어 간다 (최우정/서울)
내 인생은 직진 (김석진/인천)

대 상

더 높은 날갯짓을 꿈꾸며, 오늘도 씩씩하게 나아간다!

▶ 나장희 · 대구광역시

나의 유년 시절을 떠올려보면 어머니는 항상 울고 계셨다...

그에 비해 아버지는 누구보다 고지식했고 가부장적이었다. 더군다나 평소 그의 취하지 않은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알코올에 의존적이었고, 가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분이셨다. 그런 그를 위해 나의 할머니는 힘들게 번 돈으로 작은 점포를 내어 주셨고, 그 점포 안 작은 단칸방에서 우리 가족의 생활은 시작되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어느 때와 다름없이 아버지는 술에 취해 들어오셨고, 우리에게 동반자살의 위협을 가하였다. 그 위협에서 나를 구하기 위해 어머니는 도망이라는 방법을 택하셨고, 그렇게 난 네 살 무렵 경찰차를 타고 고향을 떠나왔다.

아마도 그때부터 한부모가정, 수급자라는 이름표가 함께 따라다닌 것 같다. 하지만, 가정폭력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나는 기뻐고, 악착같이 노력하여 대구대 법학과에 입학하였다. 나의 수험기간 동안 아버지는 술 문제로 감옥까지 다녀오셨다. 그 시간이 이제 와서 미안했던지 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주시기도 했다. 물론 반갑지

않은 지원이었지만 그 당시 나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도움받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나는 법학과에 입학하여 아르바이트와 학업 생활을 병행하며 그 누구보다 열심히 지냈고, 장학금을 받아 아버지가 주셨던 등록금도 갚을 수 있었다. 쓸쓸하지만 등록금을 갚으라는 아버지의 연락이 있었고, 역시나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실망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제 끝이겠지 하는 생각으로 후련한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시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어느 날 아버지의 교통사고 소식이 날아왔고, 그때부터 아버지의 간병은 물론이고 어린 동생까지 내가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 스트레스가 컸던 건지 기말고사를 치러 가던 버스에서 나는 첫 공황장애 증상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이후 그 증상은 더 심해져 정신과까지 다니게 되었다.

그 당시 병원에서 대인 기피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내 나이 21살 경 나는 사회로부터 도피하여 집안에 꼭꼭 숨어버렸다. 그렇게 1년여의 세월 동안 외부 세상과는 단절되어 시간을 흘려보냈고, 입대와 복학 중 어느 것 하나도 용기 내지 못하는 나에게 어머니는 자활사업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정보를 가져다주셨다. 알아보니 국가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지원 사업이었고, 그곳에서 일을 해나가며 입대 준비를 하라는 어머니의 뜻이었다.

나 역시도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자연스레 그 길을 선택하게 되었고, 사회적 약자인 우리에게 구직활동의 기회를 주고, 또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수입원을 가져다주는 이곳이라면 어찌면 나에게도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를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살짝 기대되기도 했다. 그렇게 나는 청년 자립 도전사업단에 소속되어 근로를 시작하였고, 카페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차근차근 사회 경험을 쌓아갔다.

한때 공황장애를 앓았었고, 외부 세상과 한동안 단절되어 지냈던 나로서는 사람을 상대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쉽지 않을 거라 염려도 되었다. 하지만 막상 카페 일을 접해보니 재미를 느낄 수 있었고 그런 나를 스스로 발견하며 자존감과 만족감 그리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다. 근로하는 과정에서 청년 자립 도전사업단 팀장님은 나에게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라며 적극 권유해 주셨다. 직접 자격증 취득에 대한 정보까지 가져다주며 내가 좀 더 깊이 바리스타의 길로 빠져들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었다. 이런 대구달서행복지역자활센터의 격려와 지원이 아니었다면 평생 도전해 보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렇게 바리스타로서 자부심과 성취감, 그리고 자신감을 쌓아가는 사이 입대 시기가 다가왔고, 나는 자연스러운 순차를 밟고자 미루지 않고 입대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나의 정서적 불안감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었다. 지속된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의 상처는 군대라는 장소와 연결되면서 더욱 증폭되었고, 결국 그 불안감을 견뎌내지 못하고 자해까지 시도했다. 거기다 불면증까지 더해져 나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하였고, 그렇게 현역 심사에서 불합격 처리가 되었다.

나는 다시 사회로 내보내졌고, 다시금 청년 자립 도전사업단 카페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그 당시 담당 팀장님께서서는 혹여 내가 자해라는 옳지 않은 행동을 다시 할까 봐 크게 염려하셨고, 서둘러 근무를 시작할 수 있게끔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셨다. 그 덕분에 꽤 이른 시간 안에 청년 자립 도전 사업단 카페에 배정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난 금세 안정을 찾아왔다.

그 과정에서 나는 참 많은 걸 배웠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사회적 필요 요소들도 배워갈 수 있었다. 카페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들, 직원들과의 관계 및 소통, 바리스타로서의 필요한 역량 등 다양한 부분에서도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개인 역량교육에도 참여하며 나를 좀 더 다지고 발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다.

물론 어려움들도 있었다.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던 나로서는 사람을 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결코 쉽게 느껴지지 않았기에 종종 관계에서 부딪힘, 업무적인 실수, 일의 유연성 등 여러 가지 문제들도 발생했다. 그러나 하나씩 차근차근 잘 풀어가도록 스스로 큰 노력을 하였고 또 곁에서 그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담당 팀장님 및 자활센터 관계자분들도 큰 노력과 지지를 보내주셨다. 그렇게 청년 자립 도전사업단에서의 1년여 근무 기간을 잘 마무리하고, 군 문제 해결과 학교 복학을 위해 나는 다시금 사회로 발을 내딛게 되었다.

한 가지 에피소드를 더하자면 내가 복학을 준비하던 시기, 근무했던 청년 자립 도전사업단 카페에 인력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사업단 팀장님이 운영 지원에 도움을 달라며 직접 연락을 주셨고, 마침 쉬는 타이밍이어서 잠깐 카페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두세 달간의 짧은 시간 동안 꽤 힘겹다면 힘겨운 시간들, 또 짧지만, 꽤 임팩트 있는 근무 기간을 경험할 수 있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아마도 이때가 가장 잊지 못할 순간들인 것 같다.

물론 다급한 상황이었기에 업무적인 힘겨움이 가장 클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도 누군가가 나를 먼저 찾아주었다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기쁨도 꽤 컸다. 그런 긍정적 마음을 진심으로 깨닫는 참 소중한 시간이었다. 많은 사람 중 그 대상이 나일 수 있음에 감사했고, 나를 찾아준 사업단 팀장님에게도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다.

이렇게 청년 자립 도전사업단은 나에게 참 많은 것을 가져다주었다. 다양한 마음을 경험할 수 있었고, 다양한 상황들을 겪어가며 배울 기회가 되어주었다. 외부 취업에서라면 경험할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미리 배울 수 있었고, 그 덕에 지금까지도 큰 어려움 없이 나는 사회에서 잘 적응해 나가고 있다. 더욱이나 바리스타의 경력도 그대로 이어져 나는 현재도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매니저라는 관리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업무들을 맡아가고 있다. 더 나아가 향후 나의 카페를 창업하고, 더 번창시킬 수 있는 꿈과 계획 그리고 목표도 가지게 되었다.

언젠가 지금 내가 근무하는 카페 대표님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왜 더 좋은 조건의 경쟁자들이 있었음에도 나를 뽑으셨는지 말이다. 그 답은 놀라웠다. 청년 자립 도전사업단에서의 경력이 꽤 마음에 드셨다는 것이다. 거기서 대표 직원으로 일했던 부분, 그랬기에 알 수 있었던 카페 운영관리 부분, 그런데도 절대 자만하지 않는 나의 모습에서 희망을 보셨다는 답변이었다. 결국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대로 흘러가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대화였다. 물론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말이다. 그 굴곡은 누구에게나 있고, 그렇기에 나에게도 긍정적 상황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예전의 나를 돌아해보면 지금의 내가 신기할 정도이다. 그 과정에는 지역자활센터와의 인연이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이 분명하다. 일을 할 수 있었기에 경제적 도움을 얻을 수 있었고, 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시간과 정보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 기본적인 사회교육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었기에 나는 점차 발전할 수 있었다. 돈을 벌면서 사회적 실무경험을 쌓고, 나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지역자활센터만의 긍정적 요소이다.

나는 결국 그렇게 원했던 탈수급을 이루었다. 자신감과 자긍심을 충분히 가지게 되었고, 더 이상 아버지와의 나쁜 기억 속에도 갇혀있지 않다. 그 건강한 마음으로 공장,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도 경험했고, 지금은 카페 매니저로서 일을 배워나가고 있다. 또한 명확한 나의 목표도 생겼다. 나의 과거, 현재가 만나 기대되는 미래를 그려가는 중이다. 그렇기에 나는 나쁜 기억이든 좋은 기억이든 어느 것 하나도 빼고 싶지 않다. 모든 것이 나의 인생이며, 결국 나를 완성하기 때문이다.

나의 구체적 목표를 말하자면, 향후 5년 동안 경력과 능력을 더 쌓아 대학병원 근처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내 최종 목표이다. 가만히 안주하고 있으면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퇴보한다. 스스로 꿈을 꾸지 못하고 불행한 나날에 주저앉아 행운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그 행운을 찾기 위해 밖으로 씩씩하게 걸어나가 앞으로든 나는 많은 경험을 해나갈 것이다.

혹여 나와 같은 처지에 놓여 고민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처음은 늘 무섭고 두려운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움 주는 그 손을 절대 뿌리치지 말아라! 그것은 나에게 좋은 기회로 이어질 수 있고, 행운으로 얼마든지 연결될 수 있다. 나에게겐 자활사업이 그 기회였고 행운이었으며, 현재는 꿈이자 목표가 되었다. 나는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날갯짓해 나가보려 한다. 이 발걸음에 여러분들도 함께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볼 뿐이다.

최우수상

1톤 트럭은 오늘도 달린다

◆ 정영미 · 강원특별자치도

내가 사는 이곳의 겨울은 다른 곳보다 더 서둘러서 온다. 가을의 단풍이 떨어지기도 전에 추위가 옷 속까지 스며든다. 오늘도 나는 1톤 트럭을 몰고 재활용품을 수집하러 나간다. 40대 초반 여자의 몸으로 시작한 나의 自活을 위한 프로젝트는 오늘도 여지없이 진행 중이다. 트럭을 몰고 나가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사업장에서 병과 플라스틱, 고철들을 분리하고, 사무실 회계업무까지 하는 나는 슈퍼우먼이다. 서울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서 가족 전체가 화성시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나는 결혼 전까지는 아주 평범한 일상을 보냈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

나의 인생 2막

20대에 나는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며 남편을 만났고 결혼하면서 아들을 낳았다. 결혼생활도 잠시, 아이가 네 살이 되던 해, 남편과 너무 잦은 싸움으로 지쳐갈 무렵 나는 이혼을 하게 되었다. ‘아! 여자 혼자서 몸으로 아들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던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혼자라는 두려움이 어둠처럼 나를 휘감아 떨어지지 않았다. 여자 혼자서 몸으로 아기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혼녀, 한부모가정... 여러 가지의 낙인들이 나를 움츠러들게 했다.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나는

발을 동동 굴렀고, 생활비 또한 부족하여, 한 달 한 달을 하루살이처럼 살아갔다.

‘혼자서도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아이를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을까?’

이 세상에 혼자가 된 듯한 이 감정들은 밤마다 나를 괴롭혔다.

새로운 시작

그러던 중, 강원도 양양에 있는 친언니가 이곳으로 오는 건 어떠냐며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다. 강원도는 공기도 좋았고 산도 들도 아름다웠다. 나의 마음과 몸도 조금씩 치유되는 듯했다. 아들을 괴롭히던 고질성 아토피피부염도 사라졌다.

언니네 집에서는 일을 하면서 아들도 돌볼 수 있어서 더욱 좋았다. 그것도 잠시 언니가 밀양으로 사업을 한다고 가버렸다. 그 당시 아들은 8살, 초등학교를 입학하던 해였다. 나는 다시 혼자 남겨졌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사회 경험도 부족한 나는 시골 생활이 너무 버겁고 힘들기만 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아이가 되어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의지할 곳도, 아들을 맡길 이웃조차 없는 곳. 막막함이란 이런 것이구나... 또 한 번의 시련이 다가왔다.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끝나지 않는 질문에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식당에서 일하는 설거지나 서빙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다. 아들을 저녁에 혼자 둘 수 없었던 나는 양양군청 복지과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동안의 어려움도 하소연하며 아들과 함께 어떡하든 살아야 한다며 일자리를 부탁하였다. 복지과 담당자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다.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자활센터에 가다.

그리고 며칠 후, 복지과에서 연락이 왔다. 나는 조건부 수급자가 되어 자활센터에 다니게 되었다. 호미도 삽도 모르던 나는 야생화사업단에서 꽃을 키우고 예초기를 돌리며

농사도 지었다. 풀을 뽑고 꽃을 키우면서 나 또한 조금씩 성장하고 단단해졌다. 주변에서 잘한다는 칭찬을 들었고 사업단의 매출도 올라갔다.

2년쯤 흐른 뒤 지금의 센터장님의 조언과 격려로 야간전문 대학교(사회복지학과)를 입학하였다. 일하며 공부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었지만 학교에 다니고 있는 나의 모습이 너무 뿌듯했다. 2년 뒤, 졸업장을 손에 쥔 나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사회복지실습을 하며 나 또한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나에게 큰 성취감을 안겨줬다. 전문대학교가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노력의 결실과 나에겐 큰 자신감을 안겨줬다. 나의 생활에는 그전에 없던 활력이 생겼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야생화사업단에서 재활용사업단으로 옮겨 일을 하게 되었다. 재활용사업단은 양양군의 재활용품을 분리선별 하는 곳이었다. 처음에는 냄새와 먼지, 우글거리는 파리 떼 등으로 너무 힘들었다. 여름휴가 기간에는 산더미 같은 쓰레기와 재활용이 뒤엉켜서 악취와 냄새가 더 심하였다.

2012년 9월 자활을 한다.

재활용사업단이 드디어 자활기업으로 나가게 되었다. 자활센터 직원들과 센터장님의 격려로 재활용사업단 참여 주민 15명 전원이 유한회사로 자활기업 창업을 하게 되었다. 누구 하나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하였다. 나 또한 1톤 트럭을 끌고 폐지와 재활용품을 모았고 사무업무도 하며 몸을 사리지 않았다. 우리는 양양군 1호 자활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매출이 성장하였고 그때의 수급자와 차상위자들은 일반인이 되었다. 현재는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여 더욱 안정적인 자활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나 또한 자활기업에서 안정적인 직장인이 되었고 수급자에서 일반으로 탈수급을 하게 되었다. 지금 자활기업은 20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린 안정적인 회사가 되었으며 나 또한 현재의 나에게 만족한다.

양양에 내 집을 짓는다.

아들은 대학생이 되었으며 현재는 능률한 군인이 되어 군 복무 중이다. 잘 자라준 아들이 제일 고맙고 자랑스럽다. 나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나는 돈을 모았다.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았다. 그리고 굶은 땀방울을 흘리며 올여름에도 여지없이 재활용을 모았다. 드디어, 작년에 나는 조그마한 땅을 구입했다. 그리고 그곳에 아들과 내가 살 집을 짓고 있다. 하루하루 조금씩 지어지는 집을 보면 감동이 밀려온다. 생각해 보면 혼자 이루어 낸 것은 하나도 없었다. 주변에 크고 작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었다.

자활센터에 방문하면서 나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었고 꿈을 꿀 수 있었다. 주변 분들의 격려와 나의 용기로 나는 양양에 뿌리를 내리고 내 집에서 아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지역자활센터장님께서서는 초기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그 언덕이 되어주겠다.”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준 자활센터에 감사드린다. 저를 아끼고 사랑하여 주신 자활센터 직원들 그리고 양양군청 복지과와 자활기업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다. 그리고 엄마를 믿어주고 항상 옆에서 든든히 지켜준 나의 아들에게 말하고 싶다.

“사랑한다. 아들아”



자활에서 자활하고 자활하기

▶ 박지나 · 인천광역시

어려서부터 가정이 화목하지 않았다. 결국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하셨다. 어린 시절이라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젠 아빠를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엄마와 둘만 남겨졌었다. 엄마도 아빠가 없어서 힘들었을까? 엄마는 나를 때리고 학대하기 시작했다.

더 있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살기 위해 집을 나왔고 쉼터나 보호시설 등을 돌아다니며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다. 수급자가 되어보려 부모님이 모두 있는 나로서는 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나중에 알았지만 아빠는 나를 찾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나를 만나면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법에서 그렇게 정했다고 했다.

후에 시설 선생님이 아버지가 찾고 싶어 하신다며 고모라는 분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아빠와 연락이 닿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 미성년자로 아빠를 만나면 안 된다고 했고, 성인이 되어서 만날 수 있었다. 아빠는 같이 살자고 했지만 이미 커버린 나는 아빠와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이제야 가족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 왠지 모를 힘이 났다.

아빠가 다시 생겼어도 생활은 해야 했기에 취업해서 일을 시작했다. 여러 회사에서 일했지만 뭐 하나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이 없었다. 직장 내 갑질이 도를 넘어 퇴사하고, 회사가 사라져서 퇴사하고, 운영이 어렵다며 퇴사하는 등 사회생활은 너무 어려웠다. 회사 생활이 계속 잘 안되자 남자 친구와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워낙 재수가 없었던 걸까? 코로나라는 팬데믹 사태까지 불러일으킨 질병이 국내에 퍼지기 시작했다.

손님이 없어도 매달 막대한 기본비용은 발생하였고 급기야 남자 친구 혼자 가게를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나는 아르바이트와 가게 운영을 병행하는 투잡을 뛰게 되었다. 하지만 시간만 뒤로 미뤘을 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결국 사업은 실패로 돌아갔고 고생으로 지친 몸과 빚뿐이었다. 매일 빚 독촉에 시달렸다. 취업을 해보려 했지만, 이전에 근무했던 경력을 증빙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사회보험 공제액까지 그냥 월급으로 받아 가라는 이야기가 당시에는 좋은 줄로만 알았다. 회사는 사라지고 사회보험 가입 명세도 없어서 나는 무경력자나 마찬가지였다.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했지만, 코로나로 취업이 힘들어지자, 나보다 어린 친구들이 아르바이트 시장에 몰렸고 내 자리는 없었다. 그때 남자 친구가 부양의무 조건이 완화됐다고 수급자를 신청해 보라고 제안했다. 과거에 안됐던 게 다시 될까? 싶었지만 의외로 쉽게 수급자가 될 수 있었다. 수급자가 되면서 개인회생도 진행할 수 있었다.

매월 6만 원씩 10년 정도 갚으면 빚이 탕감된다고 했다. 너무 흥가분한 소리였지만 당장 6만 원조차 없었다. 다행히 유예제도가 있어, 유예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활센터에 참여하라는 연락이 왔다. 솔직히 너무도 참여하기 싫었다. 인생의 패배자가 된 느낌이었다. 하지만 당장 생계도 문제고 개인회생도 진행해야 하기에 우선 참여해 보자 결정했다.

내 나름으로는 코로나가 해결되고 취업시장이 조금 유연해지면 취업할 때까지, 그동안만 잠시 비를 피하자고 생각했다. 하지만 코로나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나이는 점점 먹어갔다. 처음에 로지스 사업단에서 참여하였는데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다른 방안도 없었다. 그저 열심히 하는 것 밖에는.

센터에서 신규사업단을 개설한다고 했다. 다회용기 세척사업단, 과연 잘 될까? 싶기도 했지만,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사업단 변경을 요청했다. 깔끔한 시설을 보자 뭐가 될 것 같은 자신감이 솟았다. 하지만 이내 다시 이번에도 안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로지스 사업단보다 일이 없었다. 하루 종일 있어도 일하는 시간이 채 2시간이 되지 않았다. 너무 답답했다. 그저 빨리 상황이 끝나고 취업해서 이곳을 나가야겠다. 라는 생각만 들 뿐이었다. 팀원들끼리도 이번 사업단은 1년 후 사라질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매일 돌았다. 기운이 더 빠졌다.

2021년이 가고 2022년이 왔다. 사업단의 팀장님이 바뀌고 새 팀장님이 왔다. 경력이 많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알 바는 아니었다. 팀장님께서 오시고 팀원들 전체 개인 상담을 진행했다. 그중 나와 상담을 하면서 내 목표에 관해서 물었다. 나는 이곳을 나가는 것이 목표라 했고, 팀장은 사업단을 성장시켜 올해 안에 월 매출 500만 원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 했다. 그리고 나를 취업시키는 것이 목표라 했다. 그러니 이제부터 잘 따라와 보라고 말했다.

먼저,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나에게 운전 연수를 해주었다. 넓은 공터를 찾아 기본적으로 운전할 수 있게 알려주고 난 후 주차하는 것을 알려주고 주행을 일부 알려주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배송팀과 함께 배송을 나가라고 했다. 직접 운전을 해봐야 실력이 는다고 했다. 그러곤 간담회에서 나를 반장으로 선임했고 사업단 운영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모두 연락을 돌려봤는데 반응이 냉담했고 먼저 가까운 남동구청 인근의 카페를 직접 방문하여 우리 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해보고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방문하여 영업을 해보겠다고 하였다. 그게 될까? 싶었는데 얼마 후 나를 데리고 시흥의 공장으로 갔다. 공장에서 카페에 납품할 컵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보여주었다. 아쉽게 공장의 사정으로 논의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렇게 진행하는 거구나 싶었다.

이번에는 평택의 공장으로 갔다. 이곳에서는 협의가 잘 진행되었고 바로 구청 인근의 카페와 협의에 들어갔다. 순식간에 남동구청 인근에 있는 모든 카페에 우리가 컵을 납품하게 되었다. 하루에 200개 정도 사용하던 물량이 700개 정도로 증가했다. 그 과정을 옆에서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얼마 후 유치원 2개 원의 물량을 가져왔다. 갑자기 매출이 300만 원이 되었다. 그냥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업단에서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으니, 동료들도 너무 기뻐하며 신나서 일을 했다.

이후 물량은 얼마 안 되지만 동선을 만들어서 몇 군데 어린이집 물량을 가져왔다. 이제 목표라 말하던 월 매출 500만 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한번은 점심을 사준다고 나를 초밥집에 데려갔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 초밥집 사장님이 대형 유치원의 학부모운영위원이었고 그로 인하여 대형 유치원 납품을 이뤄냈다. 매출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나와 상담할 때 목표라던 500만 원은 가볍게 넘기는 매출이 되었다.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면 계속 부딪히며 시도하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실패하는 모습도 많이 봤지만, 특별히 좌절하지 않았다. 나도 해보고 싶었다. 팀장에게 이야기해서 영업을 뛰어도 되는지 물어봤고, 팀장님이 나에게도 명함을 만들어줬다. 배송팀과 배송을 나가는 날을 빼고는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을 돌아다니며 명함을 돌렸다. 비록 실패한 곳이 훨씬 많지만 그래도 영업에 성공해서 납품을 하기로 했을 때는 기분이 정말 좋았다. 이 기분에 일을 하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계속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사업단 영업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자 매출이 꽤 상승했고 그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다른 자활센터에서 우리 사업단으로 선진지견학을 많이 왔다. 선진지견학을 올 때마다 팀장은 나를 소개시켜 줬고 내 덕에 사업이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며 나를 치켜세워줬다.

물론 항상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만은 않았다. 먼저 반장이지만 어린 나이로 부모님 나이 이상이 되는 팀원들과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았다. 팀장님은 나의 의견을 들어주고

힘이 되어주려 했지만, 반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마냥 의지할 수만은 없었다. 맘을 강하게 먹으려 노력했다. 비록 나이가 많지만,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사업단이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려 했다. 몇몇 분들은 나에게 힘이 되는 말들도 많이 해줬다. 나에게 지금이 많은 기회라고 이야기해 줬다. 이 나이에 이렇게 지휘를 해보는 경험은 얻을 기회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해 줬다.

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도 이야기해 줬다. 힘들었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버텨내야 내가 단단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 힘을 내고 열심히 조율을 해보려 노력했다. 또 내가 사업단을 잘 조율하고 열심히 운영해야 팀장 영업 등 외부 업무를 할 수 있고 사업단이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10월이 되기 전 월 매출이 1,000만 원을 넘겼다. 물량이 증가하자 첫 번째로 세척 할 사람이 부족해졌고 사람들이 세척 할 자리가 부족했다. 하지만 제일 빠듯한 부분은 배송이었다. 배송은 차가 움직여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배송 시간은 이미 가득 차 있었다. 팀장님과 논의를 거쳐 로지스 사업단에 배송 업무를 일부 위탁하기로 하였다. 배송 업무는 해결이 됐고 23년 2호점을 신규 오픈하기로 하였다. 팀장님과 함께 발품을 팔아 사업장 장소를 섭외하였다.

사업장의 오픈을 준비하던 중 자활센터들에서 신규 채용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팀장님에게 들었다. 함께 자격요건을 보며 이력서를 작성해 보려 하였지만 나는 경력이 증빙되는 부분이 없었다. 일은 경력이 없어서 응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우리 사업단에 선진지견학을 왔었던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에서 채용을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경력 증빙이 안 되는 것으로 실망이 컸었던 나는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에서 요구 경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지원을 해보았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지만 서류심사가 통과되고 면접도 통과되어 자활센터의 직원이 되었다. 원래 참여하던 남동지역자활센터의 모두가 나를 축하해 주고 나눔

지역자활센터의 모두가 나를 환영해 줬다. 그동안 재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인생이 풀리는 기분이었다. 다화용기 세척사업단의 참여 주민이었던 내가 반장이 되고 센터에서는 다화용기 세척사업단의 팀장이 된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 같았다. 너무 행복했다. 항상 힘이 되어주던 남자 친구도 자기 일처럼 정말 좋아해 줬다.

내일 키움 통장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었고 인천시에서 진행하는 희망 잡아 프로젝트 지원금도 받아서 꽤 목돈도 생겼다. 지갑이 든든하니 마음이 너무 안정되었고 자신감이 마구 뿔어져 나왔다. 자활센터의 팀장으로 출근, 자신 있게 일을 시작했지만 생각처럼 되질 않았다. 일의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의 회계와 행정업무를 진행해 본 적이 없어서 일이 너무 막연하게 다가왔다.

선임팀장님이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셨지만 돌아서면 이해가 안 갔다. ‘팀장님들이 그동안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해 온 건가?’ 싶었다. 업체와의 조율도 너무 힘들었다. 이전 팀장님이 “상대방이 하는 일이 쉬워 보이면 그 사람이 일을 잘하기 때문”이라던 말이 생각났다. ‘아, 자활센터 팀장님들은 일을 참 잘하는구나’ 했다. 그리고 나도 꼭 그렇게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너무 행복했지만 나는 또 다른 임무를 짊어진 것 같다.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해야 다른 참여 주민들도 나처럼 다양한 기회를 받을 수 있고, 자활센터들도 참여 주민을 센터직원으로 고용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 참여 주민이 센터직원으로 고용된다는 공식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나로 인해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팀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자활이 우리의 자활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며 나는 출근한다.



막다른 길에서의 희망, 자활

◆ 김수환 · 경기도

젊은 시절 나는 무역회사를 30년간 경영하며, 꽤 풍족한 삶을 살았다. 그 시절 나는 이런 풍요롭고 안정적인 생활이 평생 갈 것이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모든 일은 항상 뜻대로만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IMF가 오자마자 운영하던 회사는 부도가 나버렸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회사를 재건해 보려 했지만,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아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어버렸다.

나는 결국 하루아침에 풍요롭고 안정적인 생활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한동안은 술독에 빠져 살았다. 오늘이 내일인지 어제인지도 모른 채, 무기력하게 누워있다 술만 먹고 잠드는 나날들의 반복이었다. 그렇게 며칠, 몇 개월,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렸다.

그렇게 허송세월하고 있다 보니 60대라는 고령이 되었고, 어느 날 부천시에서 연락이 왔다. 조건부 수급자가 되었으니 자활을 찾아가 보라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무기력했던 나는 사실 자활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아들의 사업 실패와 도박중독으로 인해 생활이 더욱 궁핍해졌고, 아들은 결국 가출을 해버렸다. 갈수록 악화하는 생활에 이대로는

정말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결국 나는 등 떠밀리듯이 자활센터를 찾아가게 되었다.

자활센터의 첫인상은 낯설 그 자체였다. 게이트웨이 단계를 마치자, 청소 사업단을 배정받았다. 나는 개인사업만을 30년 가까이 해 온 터라 다른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 나에게 청소 업무를 하라니 자존심이 많이 상하기도 하고, 고령에 처음 해본 일을 배우자니 너무 서툴고 힘들었다. 그래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 나의 다짐을 알 듯 사업단 담당자님이 반장님을 멘토로 붙여줬다. 반장님은 사업단 내에서도, 외부 기관에서도 청소를 잘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반장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완전히 달라졌다. 반장님과 한 팀이 되어 어떻게 청소하는지를 배우고, 또 반장님을 지켜보며 따라 하기를 반복하며 어느새 파견을 나가는 복지관에서 청소를 너무 깔끔하게 한다는 칭찬을 들을 정도로 실력이 많이 늘어 있었다. 실력이 느니 일이 점점 재미가 있어졌다. 처음에는 ‘내가 웬 청소일이냐. 어찌다가 이렇게 되었나.’하는 푸념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나도 새로운 걸 배워서 할 수 있구나. 아직 늦지 않았구나’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또 다음날 일을 늦지 않기 위해, 일할 때 힘들지 않기 위해 몇 년간 갖은 노력을 해도 끊지 못했던 술도 점차 줄여갔다.

생각이 바뀌니 일이 즐거워졌다. 무기력하던 내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일에 대한 열정이 솟아났다.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더 꼼꼼하게, 어제보다 더 깨끗하게 구석구석 청소하고 닦아내면서 어지럽던 내 마음도 깨끗하게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재도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내일 키움 통장에 가입했다. 동시에 급여에서 30만 원을 따로 빼서 개인 저금을 넣었다. 그렇게 3년 동안 꾸준히 저금하다 보니 내일 키움 통장은 개인 적립금 270만 원, 국가지원금 810만 원을 합쳐 총 1,080만 원, 개인 저금은 1,080만 원이 모였다. 다른 누군가가 보기엔 큰돈이 아닐 수 있지만 모든 걸 잃었던 나에게 스스로 이렇게 다시 돈을 벌고 모았다는 사실이 그 어느 때보다 가치 있게 느껴졌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모은 매칭금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이 필수로 필요했다. 매칭금을 위해서도 아직 몸이 건강하기에 노후 생활비를 더 벌기 위해서라도 나는 외부 취업이 필요해졌다.

고민만 하던 나에게 취업 담당자가 찾아왔다.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였다. 5년간 청소 업무를 해왔기에 나는 청소 분야로 취업을 희망했고, 담당자는 내 희망 분야 및 조건에 맞는 업체를 추천해 주었다. 취업을 위해서는 2가지의 산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력서 작성이었고, 두 번째는 면접이었다. 나는 30년간 개인사업을 해 온 터라 이력서를 작성해 본 경험도, 면접을 본 경험도 전무했다. 이런 나를 위해 취업 담당자는 친절하고 알기 쉽게 이력서 작성법 교육법에서 면접 교육에서 실습까지 진행해 주었다. 이력서는 처음에는 어떻게 쓸지 막막했지만, 담당자와 함께 써보고 고쳐가면서 어느 정도 배우고 나니 작성하는 것이 수월해졌다.

하지만 문제는 면접이었다. 사업이 실패하고 나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어려워진 탓이었는지 면접이라고 생각하면 자꾸 긴장되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이다. 이런 나를 위해 담당자는 여러 번의 면접교육과 실제 현장처럼 하는 면접 실습을 통해 면접에 익숙해지도록 나를 단련시켰다. 그래도 혼자 면접 가는 것이 두렵다면 동행 면접까지 진행하겠다는 약속 또한 해주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여 이력서를 여러 군데 넣어보며 면접을 보았지만 바로 취업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취업 담당자는 본인 일처럼 지속적으로 업체를 알아봐 주었다. 그렇게 취업 담당자와 함께 고생하기를 여러 번 취업 담당자가 구인 업체 발굴을 통해 남자 청소직원을 구인한다는 업체를 찾았다. 그리고 담당자는 나를 데리고 해당 업체에 동행 면접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합격이었다.

사업을 실패했던 시절 나는 우울과 절망에 빠져 절대 스스로 다시 설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니 너무 감격스러웠다. 그동안의 고생과 노력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자활에 왔던 시절,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죽기 살기로 청소 업무를 배웠던 시절,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취업을 준비했던

시절, 힘들기도 했고 포기하고도 싶었지만, 주변에서 나를 응원해 주던 반장님, 동료들, 센터 선생님들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 같다. 남들이 보기엔 그깟 청소 업무하는 것이 뭐가 대단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죽지 못해 살았던 나에게는 이런 자그마한 일이라도 내일을 살 수 있는 희망이 되어준다.

나는 지금 해당 업체에서 4개월 째 근무 중이다.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거리가 조금 멀어서 출퇴근이 힘들어 내일키움통장 매칭금 수령 조건인 3개월만 채우는 것이 목표였는데, 막상 일을 시작하니 몸이 적응되면서 일이 너무 재밌고, 이 업무를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오래 일할 계획이다. 나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기회를 절대 헛되게 쓰고 싶지 않다. 자활은 나에게 생명의 은인 같은 곳인 것 같다. 이곳에서 많이 배웠고 또 다른 희망을 보았으며, 나를 다시 살아가게 해주었다. 앞으로도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더 나은 내일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고 싶다.

우수상

어둠의 터널을 지나 희망을 꿈꾸다.

장지연 · 전라남도

평범하고 단조로운 나의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주는 사람이 생겼다. 그 사람은 나에게 미소를 짓게 해 주었고, 나에게 힘을 주었다. 이 사람과 함께 한 시간이 나의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를 잡을 때쯤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하늘에서 주신 귀한 선물인 첫째 아이를 임신하였다. 남편은 나와 보물(태명)에게 최선을 다해 잘해 주었다. 나는 그저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 매일 감사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나의 보물 첫째 출산으로 누구보다 기쁨과 행복에 잠겨있을 때, 자상하고 배려심이 넘치던 남편은 가정에 소홀해지며 외박이 잦아졌지만, 틈틈이 아이와 나에게 잘해 주었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나의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남편의 반복적인 도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둘째와 셋째를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나는 더 지쳐갔다. 도박에 빠진 남편이 가정을 등한시하는 날이 많아졌지만, 아이들을 생각해 결혼생활만은 유지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의 바람과는 다르게 남편은 더욱더 도박에 빠져들었다. 그로 인해 더 이상 결혼생활이 힘들어지면서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과 남편의 도박 빚을 전부 떠안으며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결혼생활을 2015년 이혼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짧은 시절 경력을 바탕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경력이 단절된 나에게 기회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다. 전업주부로 있던 나는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를 위해 준비하지 않았던 지난 시간이 너무 후회스럽고 원망스러웠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혼 후 무엇이든 열심히 생활하면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내 생각은 정말 크나큰 오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사랑하는 아이들이 올망졸망한 눈으로 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악착같이 일자리를 찾아야만 했다. 아이들을 돌보면서 일자리를 찾는 것은 내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 힘든 일이었다. 새벽에는 우유배달과 낮에는 조금은 자유로운 화장품 방문판매를 시작했으나, 경제적으로 도움은 되지 않았다. 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택배, 레스토랑, 스크린골프장 청소 등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굶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해보았지만 좀처럼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고, 남편의 도박 빚을 정리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모자란 돈으로 허덕이고 있을 즈음 설상가상으로 내 몸에도 적신호가 찾아왔다. 이러다 말겠지 하고 방치하였던 허리디스크가 통증이 심해져 몸놀림이 자유스럽지 못하게 되어 그동안 하고 있던 일들을 하나씩 정리할 수밖에 없게 되자 빚에 빚이 더해져 경제적으로 더욱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아픈 몸으로 어린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을 한다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고, 일자리를 줄인 만큼 수입도 줄어들어 생활에 어려움이 생겼다. 그래서 고심 끝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비에 대출이자까지 더해지면서 나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며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웠다. 나는 내 자신이 너무 싫고 한심스러워 매일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이때 내가 힘들 때마다 의지하고 있던 지인으로부터 수급자 신청을 해보는 것이 어떤지 권유를 받았다.

나는 수급자를 신청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과에 가는 동안 제도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자존심도 상하고 고민과 걱정으로 뒤엎기는 마음이었다.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상담을 받고 나왔는데도 나의 지금 환경과 생활이 너무 밑으로 떨어져

있어 오만가지 생각을 하며 집으로 향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까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되었으니 자활근로를 신청하고 자활센터에 방문하라고 안내를 받았다. 나의 마음은 미묘하게 걱정만 되고 풀릴 거 같지 않았던 상황들이 편안하게 자리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조금은 떨리는 마음으로 자활센터에 방문하면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하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는데, 게이트웨이 팀장님과 인사를 나누고 내 상황에 대해서 하나씩 상담을 해 가면서 내가 했던 걱정은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게이트웨이 교육 중 ISP·IAP를 통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자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갔고, 현장실습을 통해 나에게 숨은 재능을 알아가면서 차츰 자신감 또한 생겨났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3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는데 센터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알고 유연근무제로 근로 형태를 변경해 줘서 아이들 돌봄과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자활사업에 참여하였고 작지만 매월 고정적인 수입으로 계획을 세우며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업단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전담 관리자로 일하게 되었으나 허리디스크로 인한 통증이 또 시작되었다. 혼자서 끙끙거리고 있을 때쯤 사업단 팀장님께서 함께 병원 진료를 동행해 주셔서 수술이 시급하다는 소견을 듣고 긴급치료비 지원을 신청해 주셨다. 그 덕분에 수술과 재활치료를 병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으나, 무리한 활동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아픈 몸보다 남편 도박으로 인해 생긴 부채가 나에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사례관리 팀장님의 도움으로 금융복지상담센터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 전세자금 대출 또한 이자가 적은 내 한국주택 공사에서 실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기존주택전세임대로 전환하여 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내일 키움 통장사업’에 참여하여 해지하지 않고 만기까지 유지하며 미래를 위한 자금을 하나씩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센터에서는 나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복지서비스 하나로 한국교육방송공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EBS 학습 교재 지원사업으로 자녀를 위한 학습지를 지원하고 지역 장학재단을 연계하여 학비 및 경제적 부담감을 줄이도록 지원해 주었다.

그러는 동안 나에게도 밝은 미래라는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그 빛을 따라가기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자각하고,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이에 사물관리팀장님과 함께 나의 꿈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사회복지사라는 내가 예전부터 꿈꿔왔던 직업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센터에서 자활근로를 통해 주말에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동아보건대학교 사회복지과”에 입학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며 학위를 이수하였다. 2022년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역사회 일원으로 활동하고자 여러 구직활동을 했지만, 아쉽게도 취직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실패에 굴하지 않고, 사물관리팀장님의 제안을 받아 (주)맑음청소나라 대표를 해보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 기회를 통해, 나는 자립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라는 뚜렷한 직업 목표를 세우고, 나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나의 이런 변화는 자활센터의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 덕분이었다. 자활센터의 도움으로 나는 건물위생사 2급과 소독 방역 2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나는 자신감을 회복하였다. 이제 나는 모든 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밝은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제 나는 절망에서 희망을 꿈꾼다. 나의 미래를 위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고, 탈수급에 성공하여 예비 사회적 기업인이 되는 날을 기대하며 제2의 인생을 향해 무한 질주 중이다.

나의 새로운 비전은 청소 자활기업 법인대표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건물위생사 2급과 소독 방역 1급 자격증을 바탕으로, 청결과 안전을 지키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자활센터의 도움 덕분에 가능했다. 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나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의 빛을 전달하는 나만의 여정을 위해 끝없이 나아가고자 한다.



Dream come true!!

◆ 박정은 · 강원특별자치도

나는 항상 꿈이 있었다. 항상 꿈꾸고 혼자만 간직해 왔던 그 꿈의 주인공이 나는 되고 싶었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이루고만 싶었던 그 꿈. 추운 겨울 부모님 몰래 넣었던 수시 원서가 합격이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 기쁨도 잠시 등록금과 기숙사 비용이 문제였다.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등록금은 국가장학금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기숙사비만 해결하면 되었다. 통학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해보려 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통학버스마저 운행 중단되었다.

결국, 난 대학교 입학 일주일을 남겨두고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기숙사 비용만 지원을 부탁드렸다. 축하와 함께 지원받을 줄 알았던 내 생각과는 달랐다. 부모님은 집안 경제가 어려워니 대학교를 취소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가슴을 치며 꺾기를 맴돌던 그 말. “네가 이 집에서 돈을 안 벌면 누가 버니.”나는 결국 입학 일주일을 남겨두고 입학을 취소하고 말았다. 나는 부모님이 너무 미웠고 반항을 못 하는 내 자신도 너무 미워 눈물만 계속 흘렸다. 이를 넘게 서럽게 울었다.

꽃다운 나이 20살, 꿈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어려운 집안 경제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고등학교를 졸업 하자마자 생활비를 벌어 부모님에게 드리며 빚을 갚았다. 처음에는 나 혼자만 이렇게 큰 짐을 지고 사는 것 같아 너무 억울하고 그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 힘들었다. 주변 친구들은 다들 대학교에 다니며 꿈을 향해 무언가를 배워나갔고, 그런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소심해졌다. 배움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면 부러운 생각에 계속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언제부턴가 친구들에게 이런 내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 피해 다니기도 하고 현실을 부정해 보기도 했지만 나의 자존감을 점점 더 낮추며 내 꿈을 누르고 살아먹었다.

그럼에도 영 포기는 되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은 꿈을 항상 그리워하였으며 언젠간 꿈을 위해 뭐든 해야만 싶었다. 생각 끝에 지금은 열심히 돈을 벌며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아 대학을 가보자고 생각했고, 언젠간 내 꿈을 위해 돈을 벌고 쓸 생각을 하니 상상만으로도 벽차고 힘이 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마음처럼 돈은 잘 모이지 않았다. 월급을 받으면 먼저 집안 부채를 위해 부모님께 드려야 했고, 나한테 돌아오는 돈은 10만 원뿐이었다. 내 꿈도, 내 마음도 몰라주시는 부모님은 “10만 원도 너한테 큰돈이지.”라는 말씀만 하였고, 내 꿈은 점점 멀어져 잡을 수 없는 느낌이 들었다. ‘돈을 많이 벌면 용돈도 올려주시겠지’라는 생각에 오후 아르바이트를 주말로 넘기고 또 다른 평일 아르바이트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시작했다. 야간까지 이어지는 아르바이트는 너무 힘에 부쳤고, 예의 없는 손님들에, 술 먹고 오시는 아저씨들까지. 여러 상황이 또다시 나의 꿈을 잊히게 했다.

한 번은 아르바이트 중 나쁜 손님으로 인해 경찰을 부르게 될 정도로 큰일을 겪기도 했다. 그 뒤 종종 불안감에 손이 떨리고 일이 집중되지 않았다. 결국,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3개월만에 그만두고 사장님께 부탁드려 평일 오후만 일하기로 했다. 그렇게 8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이어갔지만 중일 일을 함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여기저기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내 몸을 너무 안 챙기고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프던 난 하고 있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다.

2개월 정도 몸을 추스르며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삼척시청 전화를 받게 되었다. ‘삼척지역자활센터’라는 곳에 일자리가 있는데 참여를 하면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가족들은 내가 그곳에 가서 일하길 원했고, 가족들을 위해서 나는 삼척지역자활센터에 가기로 했다. 마침 일자리를 찾고 있던 중이니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20살에 첫 입사를 하게 되었다.

처음이라 긴장이 되었다. 내 성격이 그렇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인상 좋은 팀장님이 들어오셔서 자신이 게이트웨이를 담당하는 팀장이라고 하였고, 내가 선정된 과정과 삼척지역자활센터에서의 혜택과 업무를 설명해 주셨다. 매일 출근할 곳이 생기자 안정되고 처음으로 소속감도 느낄 수 있었다. 이곳을 통해 내 꿈에 한발짝 다가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나는 또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삼척지역자활센터에서 일하는 동안 다양한 교육을 들을 수 있었다. 교육을 통해 자립과 자활, 배움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사업단 파견 기간을 통해 앞으로의 꿈이 그려졌다. 꿈들을 떠올리며 일하는 시간은 설레기까지 했다. ‘웰빙 삼척 답다’라는 사업단에 첫 파견을 나갔다. 다시 빵을 만드는 공동작업장에서 만난 다양한 연령대의 동료들과의 작업은 항상 또래들과 지내 왔던 내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성격상 적응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다. 작업장 특유의 채소 냄새와 다시마 냄새들도 힘들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옆에서 가족처럼 걱정해 주시는 동료들이 정말 고마웠다. 걱정해 주시며 약을 챙겨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주셨다. 다양한 사업단을 경험하며 배우던 중 이런 따스함에 신기하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사업단 파견이 끝나고 게이트 팀장님께서 원하는 사업단을 정하라고 하셨다. 커피와 빵에 가장 관심 가지고 있던 나는 밀싹제빵소 사업단으로 정했다. 그리고 정식 배정을 받아 커피와 빵을 배우게 되었다. 담당 팀장님께서선 단순한 일보다는 전문적인 기술을 익혀 취업하는 것이 더 좋라며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권유해 주셨다. 마침 삼척시에서 지원하는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을 소개받게 되었고 그 사업을 통해 바리스타학원에 등록할 수 있었다.

첫 자격증 취득을 앞두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무섭고 두려운 감정이 앞섰지만 사례팀 팀장님의 동행과 학원 선생님의 친절하고 쉬운 설명으로 교육부터 시험까지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었다. 커피를 알아가는 것은 흥미로웠고 시간은 금세 지나갔다. 시험일이 다가왔고 필기 문제집을 풀던 중 처음 보는 단어들과 영어들이 있어 고민하던 차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먼저 취득한 자활센터 동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덕분에 필기시험은 합격이었다. 실기 시험은 연습할 때와는 다르게 분위기도 무겁고 심사위원들의 시선도 부담되었다. 실수하지 말자는 생각을 계속하며 들어가기 전까지 배웠던 것들을 여러 차례 되짚어 보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긴장 상태였다. 2주가 지나 학원 선생님에게 합격 소식을 전해 듣고 그제야 긴장했던 몸이 풀리며 행복의 눈물이 흘렀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 뒤 나의 삶은 달라졌다. 커피를 내리고 음료를 만드는 데 자신감이 붙었다. 빵을 만드는 작업도 배우게 되었고 밀씩 제빵소의 하루하루는 나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그렇게 1년을 지낸 후 사례팀 팀장님께서 자격증 리스트를 주시며 혹 따고 싶은 자격증이 있는지 물으셨다. “정은씨는 아직 젊으니 앞으로 다양한 취·창업에 위해 컴퓨터 자격증이 있으면 좋겠다.”며 권유해 주셔서 ITQ 라는 자격증을 도전해 보기로 했다.

퇴근 후 매일 학원에 가 컴퓨터를 배우면서 피곤하기보다는 이런 기회가 그저 감사했다. 학원이 끝나면 집에 와 그날 배운 내용들을 복습하고 헛갈리거나 처음 보는 것들은 학원 선생님께 따로 물어가며 열심히 준비했다. 3개월 후 자격증 취득의 행복감을 상상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을 봤고 합격이었다. 노력은 나를 실망하게 하지 않았고 노력한 만큼 내가 더 반짝이는 기분이었다. 어디서 무얼 하든 꿈을 가지고 꿈을 향해 노력만 한다면 자활도 자립도 가능할 것만 같았다. 내 생각에 귀 기울여 주시고 꿈을 향해 도전하기까지 자활팀장님들께서 세세히 응원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신 덕분이었다.

나의 1년 8개월 과정의 자활 생활은 종료되었다. 바리스타 자격증으로 카페에 취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수급자 위치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사회로 첫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 새로운 일터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문제를 헤쳐 나가며 나는 매일 성장해 나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내가 나의 노력 결과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삼척자활센터 덕분에라고 말하고 싶다. 삼척자활센터에서의 경험과 조언, 그리고 응원 덕분에라고.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때론 언니처럼 때론 친구처럼 나를 도와주신 팀장님들과 동료들, 센터장님과 실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다시 삼척자활센터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 나만의 꿈의 센터로 생각하며 살 것이다. 그리고 그 응원을 잊지 않으며 꿈을 이어갈 것이다. Dream come true!!

기적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지금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문영 · 인천광역시

저에게 스스로 물어봅니다. ‘지금 나이가 몇이고 지난 7여 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과정과 변화에서 지금의 당신이 가능했나요?’

주위에서 지켜보셨던 많은 분이 저에게 ‘기적’이라는 간단한 표현으로 말씀하시지만 끝없는 사랑, 노고야말로 지금의 저를 가능하게 하였던 ‘기적’이겠지요. 그저 감사하다는 대답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는 떠오르는 다른 단어는 쉽지 않습니다.

당시 저는 50살 평생의 마지막이 죽음보다 더 무서운 고립과 단절이었고 끝날 것 같지 않은 고통과 절망의 연속이었으며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저의 정신과 육체 그리고 영혼마저 왜? 라는 궁금함마저도 모르고 술(酒) 속에 잠겨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미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혜자였지만 아마도 주위의 모든 분은 주정뱅이였던 저를 포기하고 싶었던 불편한 존재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절박한 가운데 50살 평생 처음으로 용기 내어 술을 끊고 싶다는 표현을 하였고, 100여 일의 병원에서의 응급 단기 치료와 알코올 중독 주거시설에 입소하여 새누리 새

삶 치료 공동체에서 8개월 정도의 집중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적응하면서 구 자활근로 사업에 1년 6개월간 참여하면서 일과 치료를 병행하였고 제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술잔을 내려놓고 걸은 멀쩡한 사람처럼 변해갔지만, 저의 내면은 폭풍과 어마어마한 파도처럼 수 없는 의문과 갈등을 겪으며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 6시 기상하여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습관의 시작부터 낮에 알코올 중독 이용 시설에서의 내면의 치유로 이어지는 알찬 프로그램들은 아마도 다 죽어버린 뇌세포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기적과도 같은 치료의 과정이었습니다. 매일 양심을 건드리는 철학 암송과 일상의 문화 체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과 반복되는 훈련 과정은 저의 생존과 비례하여 회복의 기쁨을 순간순간 느끼게 해주었고 병행하는 구 자활근로 사업 식품부에서의 알찬 노동을 통해서 이미 예견된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거듭나는 맛을 조금씩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고의 시간을 보낸 후 인천연수지역자활센터에 첫발을 내딛던 날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폐인처럼 살아왔던 나의 삶에 온전한 일자리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새누리 새 삶 치료공동체에서 마음과 몸을 정화하고 성실히 교육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저의 성실함과 진실성을 높이 평가해 외식 자활근로사업단으로 이끌어 주신 센터장님께 또 한 번 감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연수구청 구내식당에서 조리 업무 등을 맡으며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한 3년 6개월의 과정에서 마치 일반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 착각이 될 정도로 보람되고 희망에 찬 날들을 보냈습니다. 동료들과 팀장님과 돈독한 관계 속에 식당을 찾으시는 고객을 응대하고 맛있다는 칭찬을 들을 때면 제가 마치 사장님이 된 것처럼 기분이 좋았고 더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드리고자 건강에 좋은 건강식에 대한 교육을 듣고, 고객 응대 서비스 정신에 대한 교육, 위생교육, 저염식단, 잔반 제로 캠페인 활동에 더욱 신나게 참여하면서 주인의식으로 책임감을 더욱 느끼면서 보람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2년 연말 인천연수지역자활센터 송년회 참여 주민 대표로서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제목으로

기타 반주에 맞춰 단독 무대에 올라 노래를 열창했던 그 순간 또한 잊을 수 없는 영광의 무대 경험이었고 이후로도 내 인생의 가장 빛나던 행복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적금통장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기쁨과 보람으로 살다 보니 경제적 보상은 덤으로 저에게 왔습니다. 매달 10만 원의 적금을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하여 올해 3월 드디어 만기 적금을 타던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598만 원의 목돈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 또한 기억이지 않습니까? 내 삶에, 내 평생에, 이런 피땀 흘린 노력의 결실로 받게 된 이 목돈으로 그간의 인내와 노고를 한꺼번에 보상받았던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연수구청 구내식당에서 일했던 자활근로 사업도 만기 종료하고, 공동생활시설도 퇴소하면서 일자리도 주거시설도 없어진 상황이었으나 내일키움통장 만기금으로 인천도시공사의 지원을 받아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하여 주거 안정을 찾았고 다시 시작된 취업 준비 과정에서 실업급여의 혜택과 더불어 탈수급, 그리고 노후 준비로 이어지는 국민연금 추납 계획 그리고 저의 건강 준비로 각종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였던 구청 구내식당에서 석식 제공이 생기면서 조리사를 구인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그동안의 구청 구내식당에서 익힌 조리 기술 등을 인정받아 당당히 합격하여 정식 직원으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지속적인 안정된 일자리를 갖게 되었으며 지금은 또 다른 미래를 꿈꾸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순간들이 저에게도 드디어 허락되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새 가족 동료들과 끈끈한 정(情)을 통한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고 매일 매일이 재미있고 기쁜 생활이 저에게 허락되어 계속된다는 설렘까지 모두가 축복(祝福)이었고 감사(感謝)함이었습니다.

계절의 변환을 느낄 수 있음도 감사하고 오랜 시간 헤어졌던 제 혈연의 소중한 행복도 곁에서 지켜볼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저의 노력보다는 선물처럼 주어졌던 하늘의 용서였고,

사랑이었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초심을 잃지 않고 괜찮은 늙은이가 되어 삶을
마칠 때까지 제게 주신 향기를 뿜으며 잘살아 보고 싶습니다. 정말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2023. 11. 13 어느 멋진 날에

이 문 영

아들아, 만나서 밥 한번 먹자

◆ 한봉수 · 경상북도

막내야 밥 한번 같이 먹고 싶다.

그리운 막내야. 이 아빠를 용서해 다오. 온몸이 온전한 사람은 장애인들보다 지체의 사용에 대한 간절함이 많지 않을 것인데.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우수한 영역을 훈련하여 전국체전이나 올림픽에 나가서 뛰어난 자를 자랑하고 박수갈채를 받으려 노력하겠지? 요즘 우리 사회의 어지간한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해외여행을 우리 가족은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이 아버지가 얼마나 야속하더냐? 내가 너의 얼굴조차 못 본 세월이 20여 년이 되어가는구나.

어느 가수는 사랑하는 연인을 쉽게 만나지 못하는 심정을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피력하던데, 이 못난 아버지는 남이 아닌 남으로 살아가면서 영원히 추방당하여 잊혀간 너의 가족이 되어있구나. 누구에게 하소연조차 하지 못하는 이 신세가 모두 나로 인함이니 누구를 탓하리. 그래도 아들아 이 아버지는 무조건적 용서보다, 참모습으로 만나고 싶음이 간절하더구나. 자네가 이 말을 이해 할 나이가 되거든 [아버지의 일기장]을 한 번 봐주겠니?

그래서 너에게 더욱 미안하구나.

대기업 직원이 되는 것이 직장의 대명사라고 생각하며, 술한 밤을 낮 삼아 책과 씨름하며 젊음을 보내다 보니, 비록 대기업은 아니어도 남에게 자랑할 정도는 못 되지만 그저 평범한 가정을 꾸밀 수 있었다. 지금도 막내인 너에게 미안한 것은, 너의 형은 어린 시절을 우리 부부의 사랑을 제법 많이 받으면서 보냈는데, 너는 누구나 누릴 호사(護砂)를 이 아버지의 잘못된 판단으로 받질 못하고 오히려 이혼이라는 결정으로 마음의 상처와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게 하였구나.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노력해도 남들처럼 살기 어려운 세상을, 자네 어머니에게 모두 떠넘기고 도망치듯 떠나 세상을 원망하며 방랑자로 살아 나온 내가 정말 부끄럽구나.

막내 아들아! 실패한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만,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각오로 몇 자 적어 보낸다. 결정적인 불행의 시작은 내가 젓 동이 때, 대구에 있는 대동은행을 설립한다면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은 때가 30여 년 전에 있었다. 풍부한 지식과 세상 흐름을 분별할 분별력도 없으면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객기에 가까운 무모한 도전 정신으로 당시 전 재산에 가까운 3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모두 잃게 되었다. 현명하지 못한 이 아버지는, 주식이 곤두박질 칠 때 중간 매각하여 얼마의 금액이라도 보전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가난의 명예를 너희들에게는 물려주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감에 쥐고 있다가 모두 날렸단다.

의욕만 있다고 성공하지 못더라.

막내야 자네도 어렵듯이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 이후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조그마한 수학교습소를 운영 했지만, 이 또한 치밀하고 정확한 판단력과 강단이 있는 사람만이 책임자인 모양이더라. IMF가 오니 빈익빈의 극치를 보이는 사회 기조에 편승하여 빚만 남기고 망해버렸지. 이때부터 잦은 가정 싸움과 불화로 이혼하면서 빚만 남은 나는 너희들의 양육권인 친권자 권리마저 넘겨주어야 했기에 네가 중학교 1학년 때 곁을 떠나게 되었다.

끊임없이 도전하란 은인(恩人)을 만나

만나고 싶은 막내 아들이! 당시 신문의 사회면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삶을 비판하여 생을 마감하는 마음 아픈 사연들이 보도 되었고, 이 아비 또한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무작정 부산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눈물을 흘리며 한참 가던 중 창문에 비친 반대편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또래의 얼굴을 보고 너희들이 떠올라 대성통곡하던 난 밀양역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고 다시금 대구로 올라와 몇 년 동안을 걸인처럼 방랑하다 지금 살고 있는 고령까지 흘러 들어와 세상과는 담을 쌓고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우연히 집 근처의 목사님으로부터 ‘삶을 포기할 용기로 사회봉사라도 해 봐라.’라는 권면에 순응하기로 하고 목사님과 함께 읍사무소와 군청을 찾아가 상담하고 지금 일하고 있는 고령지역자활센터를 소개받아 느지막이 일을 시작하고 있다.

아들아, 내가 생각을 바꾸니 좋은 일이 많구나.

자활사업이 남들이 보면 보잘것없는 일자리일지 모르지만, 나에게서는 다시금 심장을 뛰게 하는 곳이란단. 자활센터 담당 선생님과 상담하는 첫날. “선생님은 일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세요?”라는 질문에 “돈 벌려고 나왔지, 다른 이유가 있나.”하며 말끝을 흐리는 중에 갑자기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 “아들이 보고 싶다.” 이것이 지금 내가 열심히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이유가 되었다.

생을 마감하기 위해 올라타던 기차에서 평평 울던 그날 이후 술에 찌들어 방탕한 생활을 하며,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사랑하는 아들 앞에 서기 위해 열심히 자활사업과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자활센터의 공동작업장에 일하면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고 주말과 주중에도 틈틈이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나를 보고 동사무소에 데려가 주신 목사님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며 웃으시던 것이 생각이 나는구나. 공동작업장에서 나를 열심히 했는지 담당 선생이 정부양곡을 배송하는 ‘나르미 사업단’이라는 시장진출형의 부서로 옮겨 보는 것이 어떨겠냐? 하는 권유에 화물운송 자격증도 취득하고 몇십 년 만에 상여금도 받아 보는 기쁨도 누릴 수 있었다.

정부미를 배송하면서 얻은 즐거움은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행복이라도 드렸다는 자긍심도 있었지만, 초고령화 사회의 일면이기도 한 매우 슬픈 일도 있었다. 월초에는 살아 계셨지만, 쌀이 가는 그 며칠 사이에 세상을 하직하고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자네의 할머니이자 나의 어머니가 하늘 가신 그때처럼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내가 들고 간 정부미를 고인의 적선(積善)이라면서 ‘비록 쌀 한 포이지만 더 어려운 가정에 전달해 달라’라는 뜻으로 읍사무소에 반품하는 상주의 모습을 보며 내가 살아 있음이 행복하더구나. 그래서 이 아비도 봉사활동을 시간 날 때마다 하고 있단다. 너희 할머니이 좋은 하나님 나라에 가시라고. 이처럼 자활사업 참여하며 내 생각을 바꾸니 행복은 남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도 좋은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서.

나름으로 뜻있는 정부양곡 배송 업무였던 나르미 사업단이 아비보다 선임으로 활동한 사람들이 ‘희망 물류’라는 자활기업으로 창업하여 나가는 바람에 나는 다시금 청소 사업단으로 재배치되어 지금은 관내의 공영화장실을 관리하고 있구나. 자활기업 창업멤버로 함께 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에 화가 났지만 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나의 목표가 아닌 것을 다시금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화장실들을 청소하고 관리함으로써 조금 더 쾌적한 배변 활동이 되도록 유지한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으로 일하고 있단다.

막내야! 이 아비 나름으로 너를 만날 준비를 해 왔단다. 자활센터에서 일을 시작하고 1년쯤 지나고부터 남몰래 적금을 시작했었지. 당시 일상생활도 변변찮아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이 저축은 무슨 저축’하며 놀릴까 싶어 남몰래 그것도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다는 농협은행의 안내를 받아 월 30만 원씩 적금을 시작했었는데 벌써 3년 만기가 지나서 사회적으로는 적지만, 이 아비에겐 거금인 천이백만 원이나 되는 돈을 모았을 때 네가 가장 먼저 생각나더라.

꿈에도 미안하던 막내아들 찾아가서

귀중한 청소년기를 지켜주지 못한 막내인 네 녀석에게 찾아가 용서를 받고 싶었다. 십수

년 가까이나 소식조차 들을 수 없었던 막내아들, 이혼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네놈에게 아버지로 아무것도 못 해주고 차라리 고아보다도 못한 편모슬하로 살아갔던 네놈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도 용서받고 싶음이 간절했었다.

기억을 더듬어서 인천에 있는 너와 내가 살았던 옛집을 찾아가 봤지만, 그야말로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 곳 없네’란 시 구절처럼 이사 가고 없더라. 네놈이 다녔던 계양중학교를 찾아가서 확인해 보니 고교진학은 하였고, 고등학교 졸업 후 준사관 군인으로서 국가에 충성하는 참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었지.

엄치 불고하고 면회랍시고 찾아갔던 이 아비에게, 군인답게 본인 눈물은 감추고 오히려 이 못난 아비가 “그립고 보고싶었다.”고 너털웃음으로 나를 안고 오히려 달래어 주었었지. 이때 너의 형도 사회의 일원으로 착실히 생활하며 너희들의 어머니(나의 이혼녀)을 잘 모시고 있다고 전해 주어서 정말 감사하고 좋았다.

나보다 신장(身長)이 한 뼘이나 더 크고 듬직한 네 녀석에게, 그 돈 천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조용히 내어 주니 놀란 눈으로 “아직은 아빠도 사회적응 할 정도가 못 되는 경제적 약자이니 각자가 더욱 노력해서 멀고 먼 미래엔 웃으면서 만납시다.”라는 말과 함께 통장을 다시 내미는 너의 모습에 이 아비의 가슴은 얼마나 메어졌는지 모른다. 편모슬하에 살게 한 아비의 미안한 마음과 조금이나마 보상하겠다는 마음에 통장을 들고 너의 앞에 선 나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하지만 돌아오는 발걸음은 헤어짐의 슬픔이 아닌 오히려 희망이라는 밝음으로 십수 년 만의 행복을 맛볼 수 있었다. 고맙다 아들이.

막내야, 아빠는 아직도 힘이 있단다

막내야 아비도 벌써 노인이란다. 너에게 면회를 다녀온 뒤 나의 목표는 ‘아들에게 짐이 되는 사람은 되지는 말자’로 바뀌었다. 이전에는 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상하기 위해 자활사업에 참여하였다면, 지금은 천국 가기까지 나 자신을 책임질 금전의 필요성이 엄청 무겁게 느껴왔단다. 내가 온전히 서는 것이 너에게 조금이나마 용서를 구하는 길이고 막내아들 너에게 미안함을 씻는 일이라 생각하며 새로운 희망을 그리며 살아가고 있다.

나에게 자활사업이 계속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지금은 자립에 대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앞서 적금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내일키움통장 제도가 있음을 알고 납입 한 지 벌써 26개월을 넘어가고 있으며, 적금의 필요성을 절실히 알기에 지난번보다 많은 50만의 적금을 납입하면서 센터에서 실시하는 자격증 취득반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에 가장 먼저 신청하여 참여함으로써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귀여운 막내아들아 ‘희망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찾아가서 누리는 것이다.’란 교훈을 자활근로 참여를 통해 아빠는 깨달았다. 그래서 지금 내가 납입하는 적금이 보잘것없는 돈이겠지만, 이 돈으로 고령군에 없는 음식 배달 사업을 꿈꾸며 준비하고 있다. 아들, 걱정하지 마! 시골은 오토바이도 괜찮아... 일감과 수익성만 생각한다면 대도시가 좋겠지만, 70세를 앞둔 아비가 일할 수 있는 곳은 70세도 일손을 놓을 수 없는 군 단위의 시골인 이곳 고령에 내년 자활 참여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시작해 볼 계획이란다. 벌써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카페와 분식집 2곳에 대해서는 센터장이 일감을 주기로 했단다.

아들아, 이 아비는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성공한 사람은 아니다. 오히려 실패자에게 가까울 것이다. 하지만, 나는 자활사업을 통해 성공한 사람이다. 나의 목표였던 사랑하는 나의 아들을 찾아가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 목표인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아비가 되기 위해 내년 이때면 시원한 가을바람 맞으며 음식과 함께 나의 꿈도 배달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들. 이때쯤이면 나도 그리고 너도 사회에 약자가 아닌 떳떳한 일원으로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성공한 그날. 다시 만나자꾸나. 그리고 밝은 햇빛처럼 웃으면서 살아가자

입 선

받는 자활에서 주는 자활로

◆ 허진홍 · 서울특별시

2019년 1월 겨울이었다. 한 세무법인에서 3개월의 수습을 조건으로 출근을 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전화를 받을 때 지나치게 공격적인 목소리로 고객들에게 위협감을 준다.’는 것이었다. 팀장님께서도 미안하다며 연초에 워낙 바쁜 상황인지라 천천히 일을 알려줄 상황이 안 되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씀하셨다.

어렵게 첫 취업에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나는 결국 그렇게 한참 나에 대한 회의와 패배감으로 주눅이 들었다. 그렇게 무거운 걸음으로 자활센터로 향하게 되었다. 부끄러움과 창피함이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나는 상담을 통해 자활센터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 일을 하고 싶다고 용기 내 말씀드렸고, 구립 흥은청소년문화의집에서 자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 주셨다. 2019년 3월, 맞춤형 사업단 소속으로 어찌면 내 인생의 변곡점이 될 첫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주로 ‘놀터’라는 놀이시설에서 아이들의 시설 사용을 지도하고 이용 시간을 관리하는 업무였다.

첫날 신입이었던 내게 아이들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 나서서 ‘놀터’를 관리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아이들과 나는 서로 티격태격하며 그렇게 우정을 만들어 갔다.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던 나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점점 자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게 되었다. 한 아이가 나를 보기 위해 청소년문화의집을 방문한다는 말이 그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고마울 수가 없었다. 아이들의 말을 통해서, 어쩌면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필요하고, 조금은 중요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게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나처럼 자활에서 파견 나오신 청소사업단 선생님이 계셨다. 큰아버지뻘 정도 되셨던 선생님은 참으로 불같은 성격이었다. 누군가가 더럽혀놓은 바닥을 보며 인성을 높이는 모습이 일과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반면 나에게는 따뜻한 분이셨다. “허선생!”을 크게 외치시며 작은 대화를 걸어오시곤 했고, 종종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시며 젊은이의 취향을 배려하신 간식을 주시곤 했다. 어른들의 잘못에는 불같이 화를 내시지만 아이들이 실수로 음료나 과자를 바닥에 흘려서 당황하면, 오히려 사소한 표정으로 연신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치우셨다. 그분 옆에서 어른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를 배워가고 있었다.

이러한 생활이 매우 만족스러웠지만 자활사업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었다. 먼저 취업에 필수인 컴퓨터활용능력 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어느 날, 맞춤형 담당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는 사회복지사 공부를 해보라고 제안하셨다. 아이들을 좋아하니 그런 특성을 살려서 아동·청소년 분야에서 일을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탈수급이라는 확실한 목표를 위해서,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하여 미래를 위한 목돈을 마련하자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나는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내 취업 방향과 전혀 상관이 없던 사회복지사의 길에 발을 내딛게 되었다. 그리고 관심 없었던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하며 정말로 내일을 키울 준비를 하게 되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날들이 많아 아쉬웠지만,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사회복지사 공부를 할 수 있었다. 3주간 이태원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에서 실습하며 중동계, 아프리카계 아동들 역시 피부색만 다르지 여느 한국의 아이들과 다를 게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2020년 11월, 나는 청소년문화의집에 다시 복귀할 수 있었다. 이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에만 합격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자활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는 참으로 단호하셨다. 선생님께서는 사회복지사로서 경험을 쌓아야 한다며 강하게 내 파견처 변경을 추진하신 것이다. 나는 여러 차례 기존에 다니던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더 다니고 싶다고 말씀드렸으나 그러면 그럴수록 나만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마치 어린아이가 선생님께 떼를 쓰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았다.

결국 나를 대신해서 구립 흥은청소년문화의집의 ‘놀터’ 업무를 보게 되실 새로운 선생님께 그동안 했던 일을 인수인계해 드리게 되었다. 선생님께서는 내가 떠난 뒤에도 종종 흥은청소년문화의집이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도 했다. 따뜻한 마음은 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던 나였지만 이런 선생님 덕분에 새삼 깨닫고는 감사했다.

유난히 쌀쌀한 바람에 낙엽이 흩날리는 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자활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함께 버스를 타고 어린 시절 아련한 나의 추억이 녹아 있는 북가좌동에 다시 발을 내딛게 되었다. 그리고 구립 가재울지역아동센터에서 어린 시절 나와 친구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아이들을 보며 헤어짐으로 인한 아쉬움이, 새롭게 시작될 만남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추억의 동네에서 나는 이제 어른으로서 다시 새롭게 아이들과 함께 동네를 누빌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그뿐 아니라 공부하며 사회복지사 2급 과정을 마무리하였고 2021년 5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자활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는 내가 더 많이 공부할 기회를 주고자 하였고, 운전면허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자활센터의 프로그램 지원을 연결해 주셨다. 결과적으로 도로 주행을 3번 낙방하고 4번째 도전으로 운전면허 1종 보통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이어 워드프로세서도 도전하여

기본적인 사무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구립 가재울지역아동센터에서 실수를 연발했다. 처음 돌봄 교사로서 시작할 때 교만에 빠져있었다. 아이들과 금방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었고, 정말로 그렇게 되기도 했었다. 나를 좋아하고 내게 장난치며 재미있어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어찌면 좋은 돌봄 교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다. 내가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라는 사실이다. 정작 아이들을 제대로 돌봐야 할 시점에 나는 제대로 된 도움을 주는데 서툴렀다. 센터 생활 복지사 선생님들이 나서서 수습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조언과 격려를 해주셨지만, 실수가 크다는 생각이 들면 단호하게 충고하셨다. 그럴 때마다 부딪히면서 배워야 한다고 하셨던 자활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말씀이 실감되었다.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보다는 내 사적인 즐거움을 앞세웠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이들 개개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자 노력하게 되었다.

3살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근 30년 동안 우리 가족은 어머니와 나, 단둘뿐이었다. 친가와 외가의 도움이 있었기에 오랜 지병이 있으셨음에도 어머니는 나를 키워내셨고, 나는 어느덧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생으로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다. 그러나 첫 취업 실패 이후 내가 자활에 참여함과 동시에 어머니의 지병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코로나19로 입원 치료 조차 어려웠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알게 된 자활센터에서는 여러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입원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도와주셨다.

구립 가재울지역아동센터 생활에 적응할 즈음, 자활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9급 공무원 시험에 도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셨다. 언젠가 그 시험에 도전하고 싶다고 생각은 했었지만, 여전히 높은 공무원 시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할 것이라고 자신할 수 없었기에 쉽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그러나 선생님의 제안에 작은 바람이 일었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경제적 여건이 조성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깊게 들었다. 무엇보다도 공무원이 되어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된다면 사회복지실습과 자활 참여를 통해서 경험한 아동·청소년 관련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더

가깝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막연한 두려움이었던 공무원 9급 시험에 대한 이런저런 정보들을 찾아보게 되었으며, 그 결과 바람들을 이루어내기로 마음먹었다. 2022년 10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공시생의 삶과 자활근로를 병행하기 위해 시작했다.

2023년 1월, 사업단 개편에 따라서 자활 도우미로서 서대문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주로 탕비실의 물품을 정리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등 간단한 업무를 하며 자활센터의 배려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도록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자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진심 어린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고, 나와 같은 입장에 계신 다른 자활참여 주민분들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그분들께서 베풀어주신 배려에 감동하는 날들도 많았다.

같은 자활 도우미로서 고마운 말벗이 되어 주던 선생님, 카페사업단에 커피를 사리 가면 가끔 쿠폰에 도장을 하나 더 찍어주시는 선생님, 몰레 마들렌 하나를 챙겨서 주시는 선생님, 어른들께 더 잘 인사하라고 타이르면서도 항상 밝게 웃는 모습이 좋다고 칭찬해 주시는 선생님... 자활에 참여하면서 오랜 기간 주로 아이들의 순수한 포근함과는 다른 어른들의 능숙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표현된 따뜻함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다.

2023년 8월 10일을 마지막으로 내일키움통장이 만기가 됨에 따라서 나는 자활을 종결하게 되었다. 감사하게도 종결 전인 2023년 6월 10일에 응시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에 7월 12일 합격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광복절 전날인 그해 8월 14일 실시한 면접에도 통과하여 9월 13일 최종 합격하였다. 지원을 받기만 했던 나는 이제 봉사자로서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다.

2019년 자활센터에 발을 내딛게 되었을 때, 나는 사실 많이 부끄러웠다. 그때는 그저 나 스스로를 취업에 실패한 사회적 낙오자로만 여겼고, 도움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실패자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자활 참여를 통해서 나는 스스로가 사회에서 다른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다. 또한 그러한 자신감의 바탕 위에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다시 갖게 되었고, 그렇게 일하며 공부한 결과, 이제는 자활 졸업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되었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많은 도움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는 한다. 만약 구청과 자활센터, 주민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사회 공동체가 우리 가족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더라면 건강이 악화된 어머니를 취업에 실패한 내가 부양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만약 자활센터에서 배우고 일할 기회를 얻지 못했더라면 나는 내가 과연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깊게 고민하고 경험할 시간을 가지지도 못한 상태로 삶을 비판하며 허비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자활 참여를 통해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찾아야 하고 나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었다. 나의 옆에서 자활 여정에 동행해 준 사람들에게 감사할 뿐이다. 이제는 나의 차례라고 생각한다. 어딘가에서 좌절하고 있을 다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과 동행하여 그들이 또 다른 누군가와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주어진 나의 역할을 다하겠다.

희망의 빛이 되어 준 자활

◆ 임명옥 · 경기도

“만드는 사람이 행복해서 먹는 사람이 더 즐거운 서로 좋은 식당 아자아자 파이팅~~!”
오전 8시, 오늘도 어김없이 구호와 함께 하루가 시작된다.

큰 화구에 올려진 압력밥솥에서 추가 돌아가는 소리, 보글보글 냄비에서 끓는 소리, 요란하게 도마에 부딪히는 칼질 소리 등등 성남 탄천 스포츠센터 내 자리한 ‘서로 좋은 식당’ 주 고객은 이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회원들로 점심을 책임지고 있어서 이른 아침부터 주방은 분주하게 움직인다.

평범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큰 부자는 아니지만 부족함 없이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었는데, 친척이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한 것이 잘못되어 한순간에 집이 경매에 넘어간 후 아이들은 친정에 맡기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생활하게 되었다. 갑자기 불어닥친 시련 앞에 좌절할 틈도 없이 질병으로 오래전부터 치료받고 있는 작은아들의 병원 치료비와 남편의 2번에 걸친 척추와 허리 수술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오롯이 혼자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힘을 낼 수밖에 없었다.

홀로 가정을 책임지다 보니 반복되는 생활고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주민센터 담당 사회복지사로부터 성남만남자활센터를 소개받아 2019년 2월 첫 방문하게 되었다. 방문 당시 실무자님들의 격려와 지지를 받았지만 어리둥절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에 한없이 움츠러들기만 했다. 그리고 자활 초기 상담을 통해 유치원 조리사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김치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는 과정에서 손목을 다쳐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병가 신청을 하게 되었다.

그 후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 게이트 교육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담당 팀장님이 조리사 자격증이 있으니 사업단 서로 좋은 식당에서 근무하는 것을 권유하셔서 2019년 7월부터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내일키움통장에도 가입하게 되었다. 사업단 근무가 처음에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싫고 불편한 마음만 가득해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처음 소개받은 근무지에서 좋지 않게 마무리가 되어 힘들었던 만큼 사업단에서는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구성원들과 잘 지내기 위해 먼저 다가가 인사하고 사업단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여 2019년 10월부터 서로 좋은 식당 사업단 소속으로 일하게 되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사업단에서 일하던 중 동료와의 갈등으로 센터에 불려 가 상담을 받으면서 자활의 뜻도 모르고 정말 어쩔 수 없이 타인에 의해 떠밀리다시피 선택하게 된 일터이다 보니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러 교육이나 실무자님의 상담을 통해 날이 갈수록 일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사업단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며 준비하는 시간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다.

사업단에 일하면서 받은 직무교육 중 특수교육실무사, 상하반기 리더십 교육, 식자재 관리자 등은 평소 배우는 것을 좋아하지만 일에만 쫓겨 사는 나에게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다. 사업단 일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갈 즈음 담당 팀장님이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것이 어떤지 권유했을 때 너무나 뜬금없고 지금 먹고살기도 힘든데 공부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일에만 매여 각박한

삶에서 갈등을 해소해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러나 첫 번째 난관은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저에게 모든 과정이 컴퓨터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힘들었고 나이가 들어 공부하니 집중력도 떨어지고 체력적으로도 힘이 들었다. 힘들어하는 저를 위로하며 끝까지 도움을 준 남편과 아들의 배려로 사회복지사 2년 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 도저히 안 될 거라 생각했던 공부를 마치고 나니 자신감도 생기고 삶을 의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의 변화가 생겼다.

사업단에서 3년이 가까울 즈음 사업단 서로 좋은 식당을 유한회사 서로 좋은 식당 자활기업으로 창업하게 되었고, 내 인생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자활기업 대표의 자리를 저에게 맡겨 주신 것이다. 환갑이 넘은 나이로 장사를 하던 사람도 접을 나이인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처음에는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급식단에서부터 실무자 팀장님으로 함께 생활했던 강지영 대표님과 자활 창업 의지가 있는 구성원들과 함께 자활기업 출범을 모색하게 되었고, 4박 5일의 한국자활연수원 자활 창업 과정 워크숍에 참여해 다양한 강의와 성공 사례 등을 들으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도전하는 마음을 심어 주었다.

22년 9월 총 5인으로 유한회사 서로 좋은 식당 발기인 총회를 마친 후 2023년 1월 12일 드디어 개업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업 당일 우리는 종사자의 다짐을 외쳤다.

서로 좋은 식당은

1. 고객들에게 건강하고 바른 먹거리를 준비해 늘 사랑받는 식당이 되겠습니다.
2.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즐겁게 일하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3. 지역사회 일원으로 건강한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구성원 모두 떨리는 마음으로 활기차게 종사자의 다짐을 외쳤던 그날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개업 이후 모두가 의욕에 차서 설렘으로 ‘서로 좋은 식당’의 문을 열었으나 각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불화가 생겼고 마음의 틈이 생겨 화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창업할 당시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기에 가능했던 일들이 창업 후에는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고 난항을 겪었지만 끊임없이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우고 배려하는 과정이 쌓여 우리는 ‘서로 좋은 식당’을 통해 운명공동체가 되어가기 시작했다.

‘서로 좋은 식당’을 개업한 지 아직 1년이 채 안 됐지만 개업 당시 우리가 외쳤던 종사자의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고객들에게 바른 먹거리를 위해 꾸준히 메뉴개발과 식자재 질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구성원들 간의 꾸준한 소통으로 화합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작게나마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수익을 통한 이웃과의 나눔 실천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자활센터에 처음 들어왔을 때 내가 지금 처한 상황만 보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암담한 심정이었지만, 센터 내 담당 팀장님들의 지도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신 덕분에 삶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비슷한 처지였기에 서로 아픔을 같이할 수 있어 많은 위로가 되었고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첫발을 내디뎠던 자활에서 희망을 발견한 것처럼 자활을 처음 방문하는 누군가에게도 희망이 되기 위해 오늘도 ‘서로 좋은 식당’ 캐치프레이즈를 활기차게 외쳐본다.

인생역전 로또 자활기업 ‘만찬유’

◆ 천성규 · 충청남도

나는 40대 후반에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자동판매기 및 포스기 임대 사업을 정리하고 신학교에 입학한 후 공부를 마치고 홍성에서 특수목회(알코올중독자 및 우울증 환자 전문케어)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활성화되지 않은 목회 활동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생계유지 곤란을 겪게 되어 차상위자로 선정되었다. 당장 삶의 재기를 위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나는 이러한 경제적인 부분을 해소하고자 아내와 상의 후 재가 복지사업을 시도하고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회복지학과 입학 후 홍성지역자활센터에서 실습하게 되었다.

사회복지 실습을 위해 찾았던 홍성지역자활센터에서 실습하던 중 시간표에 따라 사업단별 라운딩과 소개를 받게 되었고 그 중 반찬 판매사업단 ‘만찬’을 알게 되었다.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와 사업설명 중 예전 사업 경험이 있었던 나는 도시락 배달 사업 아이템을 제안하게 되었다. 이 일을 시작으로 센터장님께서도 실습생인 나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협약기관 청운대학교 미래 창업학과 교수의 컨설팅을 진행 후 사업 타당성 및 가능성을 보이고, 실습생인 나(차상위자)에게 자활근로 사업 참여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는 창업의 기회를 가져보면 어떻겠느냐는 권유와 조언을 하셨다.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다. ‘무슨 일이지?’

당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활동까지 10년간 수입이 전혀 없었던 나와 아내는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센터장님의 자활근로 사업 참여 권유는 새 희망을 찾을 수 있는 한 줄기 빛으로 우리 생각과 삶을 뒤흔드는 순간이었다. 어둠의 굴레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다.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가 있다면 흥성지역자활센터는 나에게 찾아온 회생의 기회 로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아내가 생계유지를 위해 간헐적으로 식당에 나가 일을 했을 뿐, 우리 부부는 식당 운영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막막하였지만 센터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용기를 내어 아내와 함께 차상위자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우리 부부는 2015년 5월 11일 게이트 과정을 거쳐 5월 26일 반찬 판매 사업단 ‘만찬’에 배정되어 참여하였다.

반찬 판매사업단 ‘만찬’은 총 3명(차상위자 2명, 수급자 1명)의 참여자와 함께 신규 아이템 도시락 배달 사업의 시도로 자활기업 출범 준비를 본격화하였다. 우리 부부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심정으로 고민 끝에 센터장님의 권유로 시작은 했지만 진짜 할 수 있을까? 주변의 모든 사람이 반신반의했다. 과연 당시의 상황으로 심한 불경기에 기존 사업을 뒤엎고 신규 사업 도시락 배달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주변의 대부분 사람은 걱정과 염려를 동반한 부정적인 시선을 드러냈지만 이상하게 나는 조금도 불안하지 않았다. 사업단 반장이 된 나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도시락 배달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차분히 준비하였고, 다른 생각을 품을 수가 없었다. 꼭! 성공할 것이다. 오직 이 생각뿐이었다.

2015년 6월 1일 재오픈일 결정!

예정일 2주 전에 필요 주방기기(150인용) 및 물품 구입 정리, 1차 배달처 확보를 위한 판매 타킷(소규모 공장, 병원, 약국, 역전, 사무실 등) 시장조사 완료 후 아내와 함께 한정식 도시락 메뉴 1주일분 식단(메인=고기 종류 또는 생선 종류/가치/조림 종류 1가지/나물

종류 1가지/부침 종류 1가지/김치 종류 1가지/에피타이저 1가지/국/밥/1주 중 반찬은
겹치지 않게) 작성한 것을 매일 30장씩 복사하여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병원, 약국, 역전
등 직원이 5인 이상인 관공서 및 자영업체에 메뉴를 설명, 식단표에 의한 매일 다른
메뉴 제공을 전략으로 시제품을 홍보하였고, 고객을 직접 만나 홍보하는 공격적 마케팅
홍보 방법이 통하여, 그 결과 20여 곳의 주문을 확보하였고, 직원 30명 있는 김 공장을
포함하여 재개업식 날 134명분을 주문(1인=5,000원 첫 판매를 67만) 배달하게 되었다.
성공적이었다!

이후 입소문과 공격적 마케팅 홍보로 주문량은 늘었고, 참여자 3명으론 감당하기
힘들어 홍성지역자활센터 센터장님과 팀장님들이 자원하여 도시락 세팅과 설거지를
도와주셨다. 또한 우리 3인은 업무를 세분화하여 세 파트로 나누어 배달, 수거, 설거지로
분담하여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시간을 보냈다. 바쁜 시간 속에서
허둥댔고 도와주러 오신 자활센터 팀장님들의 얼굴에는 걱정, 염려가 아닌 기쁜 표정으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하루였다. 지금도 두근거림으로 기억이 생생하다.

힘든 기억도 있다. 사업단 멤버 3인은 한 번도 식당을 운영해 본 사람들이 없었다. 오후
5시경에 설거지 정리가 끝나고, 다음날 장사 준비를 못해 일거리를 집으로 가져가며
준비했던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또한 1주일 후 주문받은 20여 곳 중에 세 군데가
취소하는 시행착오도 있었다. 취소 이유는 인스턴트에 익숙한 젊은 직원들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 아닌 자극적이고 입맛을 당기는 강한 맛을 원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민원에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욕구를 반영하여 수정해 나갔으며,
40대 이전과 이후의 욕구가 다른 것을 알아채고 식단을 수정. 다시 영업하며 하루에 고객
130명 선을 유지하며 안정적 성공의 길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며 깨닫게 된
것은 식당이 많은 시내는 메뉴에 따라 취소 발생 건수가 많은 건을 경험하고, 고객타깃을
시내에서 외곽에 있는 공장들로 포커스를 맞추는 홍보 마케팅 전략을 세워 공장(10~20명
내외)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시작하였고, 예상대로 적중하여 몇 군데 주문을 받으면서 점심
배달 150~200인분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사업단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하게 되었고 자활기업 출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모든 성과는 녹록지 않은 과정이었다. 사업단 참여자만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한 사업 방향 수정을 위해 센터 내 센터장님과 직원들이 함께 해준 덕분이었다.

반찬 판매사업단 ‘만찬’은 다양한 시행착오 끝에 사업전환 3개월이 지난 2015년 9월 1일 짧은 기간에 사업 성장 가능성을 확인, 우리는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드디어 한정식 도시락배달 전문점 자활기업 ‘만찬’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홍성군의 자활기금을 통한 가게 보증금 7천만 원과 창업자금 지원, 창업자금을 통한 배달용 차량(다마스 신차 2대) 지원 및 필요한 주방 기구 무상으로 지원 등 홍성지역자활센터와 지자체 홍성군의 지원으로 자활기업 ‘만찬’이 순조롭게 출발 사업을 개시하였다.

이후 센터는 운영 지원 등 다양한 자원 연계를 하였으며, 충남 광역자활센터 창업컨설팅을 통하여 2016년 1월 29일 법인(주식회사) 변경, 2016년 6월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면서 사업이 나날이 성장하여 홍성에서 배달업체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매출 또한 상승 가도를 달려 1년 만에 1일 매출 300인분+a로 연간 4억을 돌파하게 되었고, 자활센터와 연계하여 고용 창출 10명을 하게 되었다. 입소문을 타고 독거노인 반찬 배달, 초등학교 급식 배달, 방과 후 아동 급·간식 배달 등 공공영역의 다양한 사업 연계가 이루어졌으며 배달처도 증가하였다. 2019년에는 1일 500명+a 매출액 연간 6억을 돌파(607,071,412원)/고용 창출 13명) 하였다. 그러나 그 인면에는 감당해야 하는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다. 직원들이 서로 영역 다툼을 하며 싸우기도 하고, 말없이 출근하지 않고 특히 배달 직원이 안 나오면 우리 부부는 배달까지 다 해야 했고 다음 날 메뉴 전처리까지 되지 않으면 밤 11시까지 집으로 가지고 가서 일을 해야 하는 날이 허다했다.

때로는 과로가 겹쳐 배달 운전하면서 길옆에 세워 놓은 차를 굽어 보험 처리하기도 했고, 배달하면서 배달 차량 짐칸 문을 닫으며 손가락이 차 안에 있는 줄도 모르고

달아버려 손가락에서 핏방울이 용솟음치고 손톱이 시퍼렇게 멎들어 결국 빠져버리기도 했지만, 배달이 밀려 휴지로 툭툭 말아서 눌러버리고 배달이 다 끝나고 나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는 모든 행사가 멈추었고 거래처 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감원이 되어 매출이 40%까지 떨어져 어려움을 겪게 되어 우리도 구조조정(직원이 그만두면 새로 충원하지 않음)을 해야 했다. 어려운 시간을 센터의 적극적인 협조로 잘 지나가며 지금은 조금씩 회복되어 올해는 연간 매출 5억 대를 바라보고 있다.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세 분야(주방, 배송, 행정)의 시스템이 갖춰져 작동되면서 더욱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그 결과 우리는 3년 만에 차상위자를 완전히 벗어나서 빈곤에서 벗어났으며, 월세방살이를 탈피하고 시골 한적한 곳에 주택을 마련하여 안락하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직원도 늘어 출발 당시 3명 → 현재 10명, 자활센터를 통한 수급자 채용도 2명을 하였다. 또한, 2018년부터 홀로 계신 독거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균형적인 영양공급을 위해 5종의 밑반찬을 매주 금요일마다 10세트(약 연 480세트, 총 2,880세트)를 제공하여 그동안 받았던 사랑의 빛을 조금이나마 갚아 나가고 있다.

지금은 새로운 이름으로 바뀐 자활기업 ‘만찬유’에서 대표직을 내려놓고 영업과 배달 담당으로 일을 하고 있으나,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한 어려운 이웃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과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옆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사람으로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일할 수 없어 만찬을 내려놓게 될 때 우리가 조건 없이 받았던 것처럼 그동안의 노하우들을 값없이 제공하여 자활기업 ‘만찬유’(구, 자활기업 만찬)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인 수급자 및 차상위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자활·자립하여 가난과 어둠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후계자를 양성하여 이어가길 기대한다.

나도 자활근로 참여자였는데, 2015년 6월 1일은 내 인생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인생의 새로운 인생 무대가 펼쳐진 신기한 날이다. 그날은 홍성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 사업으로 운영하는 “만찬”이라는 반찬을 제조·판매하는 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진출하려고 2년여일 동안 노력하였지만, 매출저조로 인해 품목을 전환하여 도시락배달전문점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새롭게 단장하여 출발한 날이다. 평생 잊지 못할 기회요, 순간이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다. 많은 분의 지원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은혜요 또한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홍성지역자활센터의 은혜요, 지자체인 홍성군의 은혜이다. 어둡고 캄캄했던 긴 터널의 시간을 벗어나 빛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홍성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홍성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나는 감사함으로 산다.

새로운 내 인생의 향해

◆ 김종경 · 경상북도

대한민국 대표영화 “친구”의 촬영지인 부산의 빈민가가 내가 나고 자란 곳이다. 나는 그곳에서 32년을 살았다.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나는 청소년 시절을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패싸움도 하고 사고도 많이 쳐 경찰서도 많이 갔었다. 환경에 대한 불만이 가득해서 혼란스러운 유년 시절을 보내고 있던 고3,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간암 진단을 받으셨다. 그때 난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고 아버지의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다.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병원 치료는 꿈도 꾸지 못했다. 지금이야 정부의 지원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때는 막막하기만 했다.

집안 형편 때문에 아버지는 간암 진단을 받으셨던 날 방문했던 병원 진료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병원 치료를 받으실 수 없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치료는 복수가 차오를 때마다 동네에 은퇴한 간호사분에게 몇만 원의 수고비를 드리고 복수를 빼는 치료가 전부였다. 그래서 나는 빨리 돈을 벌어야 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러시아 근해 베링해란 곳에서 원양어선을 타게 되었다. 12개월 중 10개월을 배를 타며 바다 위에서 명태와 대구를 잡다가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는 형태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이제 갓 스무 살인 내게는 망망대해의 배 위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며 일을 한다는 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

그래도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아버지께서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았다. 급하게 귀국하였지만 임종을 지켜보지는 못했다.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받아보시지 못하고 떠나신 아버지를 그리워할 시간도 나에겐 주어지지 않았다.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던 나에게 입대 영장이 나왔다. 빨리 돈을 벌어야 하는데... 눈앞이 캄캄해진다는 기분이 어떤 느낌인지 처음 알았다. 마음의 힘들음을 느낄 겨를도 없이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나는 다시 배에 올라탔다. 이번엔 외항선이었다. 세계 곳곳을 다니며 물건을 옮겨 다니는 외항선을 10년을 탔고 50여개국을 다니며 일을 했다.

울렁거리는 배 위에서 생활한다는 건 너무나 고되고 외로운 일이었다. 나는 육지에 대한 그리움에 30대 초반에 선원 생활을 마무리하였다. 10년 동안의 선원 생활 중 기관부에 근무하면서 전기에 대해 조금씩 배웠고 그때 배운 기술로 친구와 함께 구미에 정착했다. 그때 그곳에서 배우자도 만나 결혼도 하게 되었다. 아내와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 우리 둘만의 힘으로 작은 집도 마련하게 되었다. 아내는 마음이 너무 예쁜 사람이었다.

하지만 행복이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다. 혼자가 된 나는 일에만 집중하며 살았다. 주로 구미의 큰 공장에 전선을 설치해 주는 일을 했었다. 전기 기술이 있던 나는 일당을 받으며 한 달에 쉬는 날도 없이 30일을 꼬박 일을 하며 지냈다. 그때는 남들 부럽지 않게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는 있었지만 내가 하는 일은 늘 불안한 일이었다. 매일 내 주변에는 2만 볼트 이상 전류가 흐르고 10만 볼트 이상 전류가 흐르는 환경에서도 일을 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고압 전류에 감전되어 사망하는 사고도 많이 목격하고 수시로 나 또한 위험한 고비를 자주 넘기는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렇게 매일 외줄 타기를 하듯 위험한 일을 하던 어느 날 구미에 있는 공장 천장에 전선 작업을 하다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목뼈와 척추를 다친 상태로 병원에 누워있었다. 목에 신경이 통하지 않아 하체에 마비가 올 거라는 의사의 말과 수술 후에도 걸을 수 있을지에 대한 장담을 할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수술을 해야하나...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믿었다. 나는 수술보다 재활치료를 선택했다. 한의원을 다니며 물리치료를 받고 하루도 쉬지 않고 걷는 운동을 하며 1년이 지날 때쯤 나는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걷게 되었지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 호전되지는 않았다. 기뻐지만 한편으로는 막막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막막해지는 생계와 병원비... 나의 노력으로 몸은 치료가 되었지만 마음은 점점 더 쏠아 가고 있었다.

우울증... 나에게 새로운 병이 생겼다.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던 내가 열심히 살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환경이 나를 더 힘들게 했다. 매일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면 다음 날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마시고 또 마셨다.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며 살아가는 나를 지켜보던 친구가 읍사무소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해 보라며 알려주었다.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며 읍사무소에 찾아가었다. 현재 힘든 나의 상황을 이야기하였고, 담당 공무원은 3개월 진료기록부와 근로 능력평가서를 준비해 오라고 했다.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기다렸다. 2달 후, 심사에 통과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자활센터라는 곳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자활? 자활이 뭐지? 자활센터가 어떤 곳인지 전혀 몰랐던 나는 어떤 일을 하는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인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연락을 기다렸다. 며칠 뒤, 센터에서 연락이 왔고 게이트웨이 선생님과 상담과 교육 과정을 거쳐 청소 사업단으로 배치되어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10년 넘게 배도 타봤고, 위험한 환경에서 전기 공사도 해 보았지만 청소 업무는 처음이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몸이 건강하지 않아 움직임도 쉽지 않았고 환경도 매우 낯설었고 힘들었다. 화장실 청소를 한다는 게 조금 부끄럽기도 했다.

하지만 자활은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회였기 때문에 내 마음을 스스로 다잡을 수밖에 없었다. 학교 화장실, 공장 화장실, 입주 청소 등 장갑을 끼고는 있었지만 대소변을 만지며 청소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힘들었지만 동료들과 함께 힘든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하는 일은 점점 익숙해졌다. 하지만 여럿이 함께 하는 곳에서 늘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다.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새로운 사업단으로 전환되면서 다시 적응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다. 전환된 사업단은 청소 사업단보다 업무가 힘들지는 않았다. 고되지도 않았고

업무량이 많지도 않았다. 하지만 바쁘게 움직이고 고되었다고 느꼈던 곳보다 마음은 더 힘들게 느껴졌다. 그러던 중 신규사업단인 푸드코트 구성원으로 제의를 받았다. 센터에서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배를 타며 동료들에게 음식을 해주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을 알고 제안을 해주었다.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다. 분명히 힘든 곳인데, 성치 않은 몸으로 시작하기에 무리가 있지는 않을까... 하지만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제안해 준 센터의 의견에 따르기도 했다.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새로운 사업단, 메뉴, 그릇, 레시피 등 모든 것을 우리가 직접 의논하고 결정 내려야 하는 곳이었다. 퇴근 후 영상을 보며 레시피 고민을 하는 일도 즐겁기만 했다. 그래서 더 내 가게를 만들어 가는 기분도 들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손님맞이와 기념관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푸드코트라서 주말 근무를 해야 하는 환경이 조금은 부담스러웠지만 매일 같이 직접 장을 보고 레시피도 함께 공유하는 담당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불평불만만 늘어놓을 수가 없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아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우리는 단체 손님과 주말 손님으로 쉴 틈 없이 9개월을 보내며 단기간에 센터 내 매출 1위를 달성했다. 병원 단체 급식 경험과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동료, 식당에서 일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동료,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며 먹으러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동료, 일이 힘들지만 마음이 맞아 함께 하고 있는 동료들과 이루어낸 결과였다. 처음에는 손님이 키오스크로 주문하면 주방으로 울려 퍼지는 주문벨 소리에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임금님께 올리는 수라상처럼 긴장하며 보냈었다.

주문한 음식이 혹여나 맛이 없으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퇴식구 앞에서 남은 음식량을 확인하며 뿌듯하기도 했고 실망하기도 하는 하루하루를 보냈다. 어려웠던 유년 시절, 갑작스러운 가장의 역할 그리고 추락사고... 어두컴컴한 길에서 조금씩 더 어둡고 좁은 골목으로 걸어가고 있는 내 인생의 길에서 자활이라는 어색하고 낯선 빛을 만나게 되었고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몸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나에게 끊임없이 했다. 하지만 나에게 동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쌓이며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더 크게

자리 잡게 되었다. 자활에 참여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다 되어 간다.

적응하느라 3년을 보냈고 다시 길을 찾느라 1년을 보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생각하며 많은 생각이 든다. 5년이란 시간을 보내며 사는 것에 대한 용기가 생겼고, 용기가 생기니 포부가 생겼고 포부가 생기니 꿈이 생겨났다. 자활센터는 어둡고 좁은 길에서 헤매고 있는 나를 밝은 길로 안내해 주었고 누군가는 허황된 꿈이라고 할지 몰라도 나는! 나와 나의 동료들은 자활 매출 1위에서 칠곡 전체 매출 1위라는 목표도 달성해 보자며 웃어보곤 한다. 상처들이 많았던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 온몸에 가시가 돋친 듯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었고, 부정적인 생각들로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나는 자활을 통해 하나씩 돌쳐 있던 가시가 없어지기 시작했고 ‘안됩니다’, ‘못합니다’, ‘왜 해야 합니까’라고 말했던 나의 말들이 이제는 ‘한번 해보죠. 뭐 허허허’, ‘이것도 좋을 것 같은데...’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제 호국 푸드코트 사업단에서 근무하며 이루어 내고 싶은 나의 작은 소망은 나의 가게를 가져보는 것이다. 자활센터에서 일하면서 많은 사람을 알게 되었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에너지를 받아 건강도 많이 좋아졌다.

내가 받은 빛의 양만큼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 빛이 되고 싶다. 나는 이제 새로운 내 인생의 배 위에서 망망대해가 아닌 아름다운 나의 섬을 향해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였다. 그 섬을 향해 가는 나는 선장이고 나를 위해 힘써주는 자활센터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따뜻한 햇볕과 바람처럼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이다. 나는 새로운 내 인생의 섬으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 나갈 것이다.

입 선

작은 용기를 기회로 만들어 준 자활!

정영철 · 광주광역시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박한 가정에 2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회사에 다니시는 가장이었고,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시면서 부업도 하시는 평범한 부모님이였다. 어린 시절부터 꼭 무엇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지만 남자가 가장으로써 살아가려면 직업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전자공고에 입학하여 졸업하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대를 준비 중에 나는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시절 내가 너무 어려서인지 특별히 좋은 체력도 그다지 약한 체력도 아니었기에 문제가 생겨 군대를 면제받게 된 상황에도 심장 때문에 삶이 달라질 거라는 예상은 하지 못했다. 심장이 좋지 못하다는 것으로 군 면제를 받게 되어 방위산업체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다. 회사에 8년 정도 다니면서 결혼하게 되었고, 이른 나이에 아들도 태어났다. 나를 평범한 생활이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지만 그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은 오래가지는 못했다. 회사를 그만두고 여러 가지 사업에 도전해 보았고 실패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졌을 때 아내와 헤어지게 되었다.

그때 상황이 힘들었지만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었고, 나는 신용불량자에 노숙인이 되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때에 아들을 맡길 곳은 부모님뿐이었다. 어린 아들을 죄인의 마음으로 부모님께 맡기고 2002년 서울에서 일자리를 찾았지만 신용불량자에 머무를 집이 없는 상황에 나는 변변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몸으로 하는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삿집센터에 일용직으로 짐을 나르는 일을 15년 가까이 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때에 몸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했다.

20대에 진단받았던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심장판막에 문제가 생겨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형편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서 2017년 심장판막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받고 아들이 있는 광주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평소 아들과의 사이가 그리 좋지도 다정하지도 못한 상황에 아들과의 동거는 그리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다. 몸도 경제적 상황도 좋지 못한 상황에 광주로 오게 되어 2년 정도 천정만 바로 보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

어느 날은 돈이 없어 밥을 굶어야 했고, 어느 날은 그저 하염없이 걷고 또 걸었고,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는 일이 다반사였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주에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아프다는 이유로 일을 못한다지도 2년, 내가 왜 숨을 쉬고 살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실감과 이렇게 있으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럴 때쯤 잠깐이었지만 집에 찾아왔던 동장 아주머니의 말이 생각이 났다.

“동사무소 가서 좀 도와 달라고 해봐요!”

많은 돈을 벌고 살아오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한테 도와달라는 말을 하고 살았던 적도 없었다. 신용불량자였을 때에도 어떻게든 일을 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했었지만 일을 할 수 없는 몸이 된 나는 방법이 없었다. 너무도 막막한 때에 아주머니의 말이 생각난 건 지금

생각해 보면 기적 같은 일이었다.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갔다. 그때 난 정말 살고 싶었다.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담당자에게 “나 일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그날 이후 생활이 달라졌다. 행정복지센터 상담이 후 고용 플러스 센터를 소개받고 찾아가 상담하고, 지역자활센터를 안내받게 되었다. 자활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하루의 일정이 생겨 너무 행복했다.

지역자활센터에 방문 해 처음 상담할 때도 빨리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 지역자활센터의 게이트 교육을 참여하였고, 처음 사업단 배정 받은 곳은 해솔공예 사업단이었다. 이삿짐센터에서 가구 조립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 와서 그런지 나무를 만지고 조립하는 일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처음 해 보는 일과 처음 만난 사람들이 어색하고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생겼고, 함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동료가 생겼다는 것이 좋았다.

갑자기 만난 지역자활센터는 나를 다시 살게 한 특별한 선물이었다. 15년 가까이 이삿짐센터 일용직을 하면서 몸을 쟁길 여유도 목돈을 만들 계획도 세울 수 없었지만 지금 나는 다르다. 지난 세월 불규칙한 일상 때문에 치아 상실과 잇몸에 문제가 생겼고, 음식물 섭취가 어려워 시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다른 사람들의 경우라면 이 시술이 작은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었지도 모르지만 심장판막수술 후 혈액과 관련 있는 약을 먹고 있는 나는 대학병원에서 시술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예전 같으면 이 상황도 막막해하기만 하고 무언가 계획하고 시도해 볼 엄두도 못 낼 수도 있었겠지만, 내가 스스로 대학병원에 문의하고 담당자와 만나 상담을 하고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지원금을 통해 시술받을 수 있었다. 요즘 동료들에게 얼굴이 좋아졌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아마도 먹는 것이 편해져서였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내년에 재시술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나를 위해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내 모습이 조금씩 대견하게 느껴진다.

또, 지역자활센터 사업단에서 근무하면서 자산 형성 사업을 안내받았고 희망키움통장 가입을 통해 목돈 마련 계획을 세워, 다가오는 내일에는 체력 키워 창업을 꿈꿔보기도 한다. 지금 나는 조금씩 건강해지는 나의 일상을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어렵고 힘든 지금을 살아가는 나의 동료들이 현실의 막막함과 혼자라는 생각으로 상실감을 느끼며 자신을 방치하는 시간에서 벗어나 그저 절박한 상황에 다른 사람의 조언을 귀담아듣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용기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견딜 수 없었던 순간에 힘이 되어 주신 선생님들과 일하는 즐거움과 용기를 선물 해 주신 자활센터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활을 통해 나는 당당해지고 꿈이 생겼다!

◆ 박수미 · 전라남도

지금 생각해 보면 결혼생활 중 가장 많이 한 말은 “일 좀 제발 하자!”이다. 경제활동 없이 무능력한 남편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판단한 나는 남편을 대신해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아등바등 어린 두 딸을 키웠다. 가정의 화목을 위해 식당, 사무업무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경제적인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점점 쌓이는 채무로 인해 매일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렸다.

살얼음 같은 가정 속에서 매일 남편과 경제적인 문제로 전쟁을 치렀다. 더 이상 이런 살얼음 같은 환경에서 두 딸을 행복하게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한 나는 행복하게 살아보겠다는 의자 하나로 남편과 이혼했다.

이혼과 함께 두 딸의 양육권을 가져온 나는 부족하지만 “두 딸만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하게 건강하게 키울 거야!” 다짐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쉬운 소망 하나도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딸들의 건강과 행복 단 두 가지의 소소한 다짐은 둘째의 선천적 누두홍과 한쪽 귀 난청, 하사근 기능항진으로 인한 사시로 산산이 부서졌다. 둘째 아이의 수술과 대학병원 치료 비용은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커다란 짐이 되어 큰 상처를 주었다.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둘째를 위해 이른 시일 내 누두흉을 수술해야 했다. “수술을 위해서는 6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라는 의사의 말 한마디에 나는 절망했다. ‘600만 원...’ 아르바이트를 하면 근근이 두 딸을 키우고 있는 나에게는 눈앞이 아찔해지는 금액이었다.

둘째를 위해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다는 심정으로 읍사무소를 방문했고 나의 사정을 딱하게 들은 읍사무소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차상위 의료혜택을 받아 둘째를 수술 시킬 수 있었다. 안정적인 근로와 나의 자립을 위해 차상위 자활을 안내하고 신청을 도와줬고 그제 나와 전남화순지역자활센터와의 첫 만남이었다.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으며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은 나에게 있어 큰 안심을 주었다. 처음엔 단순히 다달이 급여를 받는 ‘일자리’라고 생각했지만 상담과 교육을 통해 지역자활센터는 단순한 일자리 제공 기관이 아니라 충분히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국가의 도움 없이 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임을 여기가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곳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젊지도 늙지도 않은 애매한 40대인 나는 배움을 통해 취업, 창업이 가능한 ‘희망카페’ 자활근로 사업단에 상담을 통해 배정받았다. 커피를 마실 줄만 알았던 난 손님을 접대하고, 음료를 만들고, 커피를 내리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값비싼 경험이었다. 자활근로사업 종결 후 내가 갈 수 있는 자활의 길이 어느 방향인지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사회에서의 나의 가치를 키우기 위해 바리스타 자격증, 핸드드립 자격증을 취득했고, 수제 청과 빵을 만들며 카페에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습득했다.

전남화순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의 도움으로 나의 가치와 역량은 점점 커졌고, 자녀 문제로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나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주었다. 자활센터의 도움으로 점점 생활은 안정화되었고, 둘째 아이의 병원 치료 역시 안정화되면서 나의 미래를 고민하고 직면하는 시간이 생겼다.

자활근로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나는 자활근로사업이 종결되면 무슨 일을 해야 하지? 어떤 일을 해야 아이들을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은 무엇일까?”에 대해 매일 고민하고, 사례관리 팀장과도 취·창업을 위한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을 통해 ‘희망카페’ 업무는 분명 재밌고 흥미로웠지만 취·창업을 생각하기엔 부족함이 많았고 내가 원하는 자활의 길이 아님을 깨달았다. 고민과 상담을 통해 어려서부터 꿈꿔온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사회복지사’의 길로 가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했다. 효율적인 공부와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사무 능력을 배우고자 ‘자활 도우미 사업단’으로 사업단을 변경했다.

평생교육원을 통해 사회복지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종사자들의 사무를 보조하면서 업무에 필요한 사무를 직접적으로 배우고 경험했다. 처음엔 어려운 일투성이였지만 하루하루 공부하고 배우면서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더욱 욕심이 생겼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다가가던 중 ‘실습처’를 구하는 일에 어려움이 생겼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사례관리를 배울 수 있는 실습처들은 모두 평일에만 ‘실습자’를 구했다.

‘자격증 취득을 미루고 자활근로 종결 후 실습해야 하나? 주말 실습을 구하는 요양원에서 실습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전남화순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의 도움으로 자활근로 참여를 유지하면서 ‘무급’으로 평일에 화순군 가족센터에서 실습하게 되었다. 실습처에서 배운 프로그램 운영 방법과 계획서 작성, 사례관리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더욱 매력을 느끼며 끌리게 되었다. 처음엔 신기루처럼 “남 도와주는 거 좋아하니가 사회복지사 잘하지 않을까?”라고 시작한 사회복지사의 길이 자활 도우미 업무를 하며 실무의 능력을 키웠고, 실습으로 사회복지 현장을 배우게 되면서 점점 구체화하였다.

실습이 끝난 후 자활 도우미를 하며 사무업무 및 행정업무를 더욱 집중해서 배우고 종사자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비전과 실습했던 경험 등을 나누었다. 종사자들과의 대화는 사회복지 방향성을 배우고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었고, 예비 사회복지사로 한발짝

나가게 되었다. 특히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진행한 복지·자활 도우미(대면, 비대면) 교육은 나를 사랑하는 방법, 내 인생 계획해 보기, 마인드맵 등 나에 대해 생각하고 돌아켜보고 몰랐던 나에 대해 알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

전남화순지역자활센터는 나에 대해 생각하고, 다양한 것을 배우고 경험하게 해 주면서 “아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그 경험은 나를 성장하게 했다. 무엇을 새로 시작하기엔 많은 나이, 배우지도 못했고 자신감도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나는 갈 데가 없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과거 나의 모습을 반성했고, 전남화순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새로 태어난 나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아직 늦지 않았어.”라며 응원하고 칭찬했다.

“자활근로를 통해 배움도 짧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어려운 40대인 나에게 꿈을 주고, 두 딸에게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인 엄마를 선물해 준 전남화순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의 따뜻한 시선과 도움에 가슴 속 깊게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고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픈 마음을 일깨워 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처럼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둠 속에서 삶의 희망 하나 없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제가 받고 느꼈던 그 마음을 나누어 줄 것입니다.”

2024년 3월 나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는다.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자활 도우미로 근무하며 사회복지사로서의 경력이 인정된다. 2024년에도 자활 도우미 겸 사회복지사로 전남화순지역자활센터의 실무와 사회복지사로의 신념, 역량을 갖춰나갈 것이다. 또한 나는 실습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특히 이주여성들과 다문화가족들을 따뜻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상담하고 지원해 주는 가족센터의 모습에 사회복지사의 꿈이 더욱 확고해지고 비전이 생겼다. 바로 ‘가족센터 취업’이다.

내 인생 제2의 나라 한국 생활 적응기

한예림 · 부산광역시

부푼 꿈을 안고 한국에 오다

필리핀에서 소개로 한국 남자를 만나 결혼하여 한국에 오게 되었다. 결혼 후 안동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고 아이 둘을 낳아 화목한 가정생활을 꿈꾸었지만,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으로 인해 형편은 갈수록 힘들어졌고 도저히 앞을 헤쳐 갈 힘이 없었다. 결국 최후의 선택인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고, 2007년도에 안동에서 부산으로 아이 둘을 데리고 이사 오면서 한 부모 가정으로서 경제적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다.

당장 아이들을 책임져야 했기에 여러 기관에 일자리를 알아보았으나, 자격증이 없는 관계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웠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어 교사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3년 동안 복지관, 방과후 학교, 개인 과외 등 영어 교사 및 통역으로 꾸준히 일을 하였지만 아이들을 대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어느 날부터가 강사라는 직업은 나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와 적성에 맞는 새로운 일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급여가 괜찮은 레스토랑 서빙 일자리를 찾았고, 적성에도 맞는 듯하여 4년 정도 근무하며 커피에도 관심이 생겨 커피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커피 바리스타라는 자격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열심히 연습한 결과 다행히 첫 자격증 도전에 성공하였다. 잠을 설칠 정도로 엄청난 기쁨이었다.

워킹맘에 당당히 도전하다

어렵게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아직은 부자연스러운 의사소통과 나이는 취업의 장벽이 되었다. 아이들을 돌보며 커피를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구청을 통해 사상지역자활센터를 소개받게 되었고, 센터 커피 사업단에 배치되어 5년 동안 바리스타로서 첫 일을 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하는 바리스타 일은 적성에도 맞고 워킹맘으로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하여 나에게는 너무나 좋은 일터였다. 한 가지 더 행복했던 일은 센터 담당 팀장님의 도움으로 2018년도에 귀화 시험에 도전하여 필기시험, 면접시험까지 합격하고 2021년 대한민국 국적취득이라는 큰 목적을 이룰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다.

나는 국내 바리스타 자격증에 안주하지 않고, 국제 바리스타 SCA 바리스타 파운데이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퇴근 후에도 바리스타 교육 학원으로 출석하여 교육을 이수하며 노력한 결과, 국제 바리스타 자격증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게 되었다. 결국 커피와 관련된 두 가지 자격증을 거머쥐게 되어 미래의 작은 소망인 ‘나의 커피하우스’를 만드는 데에 한발 더 나아가게 되었다.

더욱더 고마운 것은 아이들이 엄마가 밤낮으로 일하는 것을 보며 자라서인지 바르게 성장해 주었고, 지금은 각자 자기에게 맞는 꿈을 찾아가는 것을 보니 뿌듯하고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또 다른 시작

센터 커피 사업단에서 동료들과 원만하게 어울리고 배려하면서 우정을 쌓아 나갔고,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여러모로 도움받은 일들에 감사하며 그것을 나누기 위해 지역 봉사활동을 자원하게 되었다. 주례 3동 새마을 지도자연합회에 가입하여 김치

만들기, 어르신 밑반찬 만들기 등 한 달에 한 번씩 참석하며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감사하게도 봉사상까지 주셔서 개인적으로 일과 개인 활동 모두에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다.

어느덧 자활근로 5년 근무는 끝이 나게 되었고, 올해 자활기업 요거당에 취업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다. 자활기업 요거당은 나의 미래 꿈이었던 조그마한 카페나 분식 가게를 창업하기 위한 여러 경험과 준비를 할 수 있는 환경이기에 요즘은 근무하며 가슴이 벅차오른다.

자활기업 취업에 성공하여 매월 성실하게 납부한 내일키움통장 적립금도 전액 수령할 예정이며, 이 목돈으로 내가 꿈꾸었던 창업도 조금씩 준비해 보려고 한다. 막연히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닌 꿈을 가지고 자활근로를 하다 보니 정말 꿈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잘 버텨온 나 자신에게 감사하고, 자립할 수 있는 근무지를 마련해 준 사상지역자활센터에도 감사하며, 한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와준 소중한 친구들과 지인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내가 꿈꾸고 있는 사업이 조금씩 성장하기를 바랄 뿐이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내일을 꿈꾸다

◆ 이명운 · 전라북도

온전히 혼자가 되었다

남편이 사라졌다. 아이 둘과 남았다. 남부럽지 않던 단란한 우리 가정은 남편과 함께 사라졌다. 남편은 사업을 하며 열심히 살았다. 어느 날인가부터 남편은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다. 술을 마시는 날이 잦아졌다. 혼자 끙끙 앓는 날도 늘었다. 얼굴이 조금씩 노래지더니 까매지는 것 같았다. 걱정된 친정엄마는 병원에 가보자고 여러 번 권유하셨다. 하지만 남편은 일을 많이 해서 그을린 거라 괜찮다고 하며 본인의 병을 가벼이 여겼다. 그러다 사업이 안돼서 쉬게 되었다. 쉬는 것을 알고 큰형이 건강검진이나 받아보자고 설득하였다. 병원에 시아주버니와 갔다.

시아주버니가 전화하여 “제수씨, 내 말 잘 들어요. 얼마 못 살 것 같아...”라고 하자마자 바로 입원하였다. 의사 선생님은 마음을 준비하라고 하셨다. 길게 보면 3개월이라고 남편은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화가 진행되어 간암 말기에 접어들었다고 했다. 그래도 남편을 살려보고자 이리저리 알아보았다. 돌미나리와 다슬기를 꼭 삶아 물을 끓여 먹이면 간에 좋다고 하여 시장을 돌며 돌미나리와 다슬기를 찾아다녔다. 갑자기 다슬기가 시장에 나올 리 없었다. 구하기 힘들어 애타는 마음을 안 지인이 섬진강까지 가서 다슬기를 사다

주었다. 열심히 물을 끓여 먹이며 간병하였다. 그러나 무심하게도 진짜 3개월 만에 남편은 가 버렸다. 혼자가 되었다. 초등학교 1학년과 다섯살 어린 남매만 남겨두고.

약하게 태어나다

엄마는 첫째 딸을 낳은 후 몸이 계속 좋지 않았다고 한다. 계속 약을 먹으며 몸을 추스르던 중 엄마도 아빠도 알지 못한 채 내가 엄마 뱃속에 자리 잡았다고 한다. 엄마는 임신한 줄 모르고 몸이 아프니 약을 계속 먹었다. 임신한 것을 인지했을 땐 이미 너무 많은 약을 먹었다고 한다. 난 태어나면서 다리가 아팠다. 소아마비라고 짐작은 하면서도 삶이 팍팍했던 엄마와 아빠는 나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나는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자랐다. 다리는 걷기 시작하면서 절게 되었다. 나의 자존감도 다리와 함께 절며 자랐다.

남편을 만나다

남편과 결혼하고 비로소 보호받는 기분을 느끼며 살게 되었다. 남편에게 소아마비로 장애 판정을 받으면 어떨지 의논하니, 남에게 신세를 지면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성품을 지닌 남편은 그 정도로 장애 판정을 받고 남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그냥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면 된다고 하였다. 또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이들에게 장애인 엄마가 되기가 싫었다. 그냥 남들처럼 평범한 엄마로 살고 싶지, 공인된 장애인이라는 굴레를 쓰고 싶지 않았다. 정직하고 성실히 가족과 함께 가정을 꾸리며 단란하게 살았다.

삶의 무게

남편이 갑자기 죽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생활고가 밀려왔다. 남편은 사업을 하다 일이 잘되지 않아 빚만 1억 3천만 원을 남기고 갔다. 막막하고 막연했다. 아이 둘을 키워야 하는데 생활비에 빚까지, 어떻게 충당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다행히도 남편이 남긴 땅이 있었다. 바로 팔아서 1억이라는 빚을 갚았다. 하지만 아직 남은 빚과 아이 둘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도 우리 아이들 악착같이 제대로 키우자 하고 마음먹었다.

자활을 만나다

일을 해야 했다. 아이들을 키워야 했다. 아직 어린 초등학교 1학년 딸과 5세 아들,

아무도 도와주는 이는 없었다. 아이들이 아프기라도 하면 발을 동동 구르지만 할 뿐 도움을 어디다 청해야 할지 캄캄하였다. 아이를 키우고 살려면 일을 하여 생활비와 빛의 이자를 감당해야 한다. 돈이 필요했다. 하지만 선천적으로 다리를 절며 약하게 태어난 내가 정상적으로 직장을 가지기는 무리였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기 위해 면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받았다. 면사무소에서 자활에 한 번 가 보라고 하였다. 자활이 무엇인지 몰라 망설였지만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어 전북부안지역자활센터 사무실에 방문하였다.

자활하며 자활하다

자활에서 일을 시작하였다. 일을 시작하니 아이를 돌볼 시간이 부족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된 큰아이가 작은 아이를 돌봐주었다. 엄마같이 놀아주고 밥도 챙겨주고 하며 엄마 노릇을 해 주었다.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애가 타서 뛰어다니기도 하였다. 그래도 자활에서 일을 하니 수입이 생겼다. 아이들을 키우고 생활비 하며 아직 남은 빛의 이자도 내어가며 빠듯하게 생활하였다. 일을 하며 빛을 갚는 것이 빠듯하고 힘들어, 아이가 무엇인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사줄 수가 없었다. “안 돼” 하고 말하면 아이는 바로 고개를 숙이고 두 번 다시 요구하지 못하였다. 아이에게 부족함을 느끼게 해 주고 싶진 않았지만 한정된 돈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자활에 다니다 친정어머니가 아파 쉬기도 하였지만, 꾸준히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였다.

자활에 들어와 여러 사업단을 거쳤다. 떡을 만드는 사업단, 인턴 도우미, 명태포 칼질하는 사업단 등 여러 곳을 거치며 일하는 동안 조금씩 삶에 관한 자신감이 생겨났다. 그러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다툼이 생겨 힘들기도 하였다. 다행히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단으로 옮긴 후에야 안정을 찾았다. 일이 즐거웠다.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니 어렵고 힘든 작업도 즐겁게 성실히 일하였다. 성실함을 인정받아 세탁 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나가면서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작은 성공이지만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대화하며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였다. 서로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들과 서로 배려하며 일을 하였다. 주말엔 교회도 나갔다. 종교의 힘도 내겐 큰 의지가 되었다.

자활의 수입으로 근근이 생활하다가 얼마 전 빚을 모두 갚았다. 살던 집을 팔아 남은 빚을 모두 갚고 드디어 빚에서 해방되었다.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작지만 안정된 전셋집을 얻어 보금자리를 꾸몄다. 빚이란 굴레에서 해방되니 이젠 아이들과 더 앞으로 나아갈 희망이 생겼다.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엄마다

첫째 아이의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선생님께서 학교로 찾아오기를 희망하셨다. 한창 사춘기의 시기에 들어선 우리 첫째 아이가 학교에서 자꾸 남의 물건을 탐내며 자신의 물건이 아닌 것을 가지고 간다고. 학교에서 상담 선생님께서 아이와 상담하고는 불안증세와 소아 우울 증상이 있으니 전문기관에서 진단을 받아보라는 권유를 하셨다. 그동안의 일들이 머릿속에 스쳐 갔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잘해주지 못했던 일들, 스스로를 챙기면서 동생까지 밥이야 옷이야 챙겨주며 지내야 했던 환경에서 아이는 어른스러워진 것이 아니라 어른스러워져 보이기만 했던 것인가. 무엇인가 필요하다는 아이의 말에 항상 “돈 없어” 하고 나면, 아이는 지레 포기해 버리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생각나 가슴이 아려왔다.

가끔 아이들과 있어도 공허한 마음을 달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살면서 힘든 것, 아이들에게 못 해준 것들이 생각나거나, 잘해 주고 싶은데 다른 부모와 비교당하는 느낌이라도 있으면 교회에 나가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였다. 나의 감정을 다스리느라 우리 아이가 병들고 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였구나... 부족해도 많이 부족했던 엄마였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 아이가 엄마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알려주리라. 엄마가 챙겨주는 아이로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어야겠다. 아이에게 필요한 지원을 최대한 아낌없이 해 주리라! 앞으로 더욱더 강해져야 한다. 아이들을 위해서.

내일을 꿈꾸며

그렇게도 기특하던 멋진 아이였던 우리 첫째 딸. 먼저 아이에게 소아 우울증에 대한 심리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하시는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 김제의 정신신경외과에 진료 신청을 하였다. 그동안 장애인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장애 진단을 받지 않았다. 이젠

무어라도, 조금이라도 더 아이에게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장애등급 진단을 받아야겠다.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준비도 해야겠다. 자활에서 살아가야 할 용기를 얻었다. 막막하고 막연하기만 하던 내가 이젠 자활을 벗어나 더 나은 직장을 가지기를 꿈꾼다. 일을 하며 아이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요리도 배우고 운전도 배우고 자활기업에서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반 직장에 자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나의 능력을 키워야겠다. 내 아이를 위하여, 내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엄마가 되고 싶다.

희망제작소.. 그 안에서 나는 희망을 이루어간다

최우정 · 서울특별시

“여보, 내 양말 어디 있어?”, “엄마, 나 밥 먹여줘!” 아침부터 분주한 우리 집, 아침은 늘 이렇게 정신없이 시작한다. 6세, 8세, 딸아이 두 명과, 남편까지 우리는 4인 가족이다.

남들처럼 평범한 지금의 삶을 누리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나의 인생 44년.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었나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 것 같다. 세상은 나에게만 혹독한 것 같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지난 시간, 지금의 평범한 삶이 혹시나 꿈이 아니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며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9살에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아버지 손에서 길러진 나는, 어린 동생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며 살아왔었다. 술을 좋아하시던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어린 나와 동생들에게 이유 없는 폭력을 일삼아 왔었고, 그럴 때마다 나는 어린 동생들 손을 붙잡고 집을 나와 동네를 방황하다가 험 옷 수거함에서 낚아빠진 옷들을 꺼내 추위에 떠는 동생들을 보듬으며 아프고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내야만 했었다. 중학교 시절에 잊지 못할 만큼 큰마음의 상처를 느낀 사건이 몇 번 있었는데 끔찍하던 시간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고, 그날 이후로 나는 ‘세상은 내 편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는 바보 같은 생각도 여러 번 했었다.

19세 때 취업이라는 명목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1년간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서 20살이 되던 해.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동생들을 데리고 그 지옥과도 같은 집에서 탈출하듯 나오게 되었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미성년자인 동생들을 키우기에 내게 부족함이 많았고, 어쩌면 내가 부족한 탓인 것만 같아서 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는데 그런 힘든 시기를 이겨내며 우리 세 자매 참 열심히 살았었다. 지금은 두 동생 모두 결혼하고 각자의 인생에 충실하게 살고 있다.

20대 때에는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던 것 같다. 주유소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식당에서 서빙 알바를 했고, 밤에는 술집 주방 보조 알바를 해가며 밤낮없이 일을 해왔지만, 벌어들인 돈은 아버지께서 키워준 값이라며 간간이 가져가셔서 내 주머니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29살이 되던 해. 아버지께서 새어머니와 재혼하시면서 나는 아버지와 연을 끊었다.

남편은 내 나이 34살에 지인의 소개로 만났다. 8살 어린 나이에 부모님 모두 여의고 고아가 되어 소년소녀가장으로 살아온, 나보다 3살이 많은 사람이다. 세상에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곤 동생들 둘 뿐이던 나였지만, 혼자서 연로하신 할머니와 6살 어린 동생을 돌보느라 중학교 1학년까지 밖에 다니지 못하고 식당에서 일하며 음식 배달한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데 어딘지 모르게 나와 비슷한 처지의 이 사람이 꼭 내 모습 같아서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남편을 만나고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며 굳게 닫힌 마음의 빈자리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었고, 연인이 되어 가정이란 길 꾸리게 되었다. 가시밭 같았던 인생을 살면서 아무도 믿지 않았었고, 아무도 의지하지 않았던 내가, 지금의 이런 평범한 삶을 살고, 믿고 의지할 사람이 생겼다는 것에 감사했고, 이제는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고 함께 슬퍼해 줄 가족이 생겼다는 것에 세상 모든 길 다 가진 것만 같았다. 남편은 가정에 충실했고 자상했으며 책임감도 많은 사람이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어 나에게 더할 나위 없는 마음의 쉼터가 되었다. 세 가족에서 네 가족이 되었는데, 이런 행복이 나에게 가당키나 한 것인지, 나는 행복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건지, 또다시 불행은 시작되었다.

2018년 8월 둘째가 태어나고, 건강하던 남편이 갑자기 몸에 마비가 오면서 쓰러졌다. 70kg에 육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49kg까지 몸무게가 빠지면서 남편은 정신적인 고통까지 감내하고 있었다. 애정 많고 다정했던 남편은 건강을 잃고 성격도 포악해졌고, 심각한 우울증과 강박증으로 정신과 치료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내 삶은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다. 둘째를 출산한지 한 달도 안 되었고, 39살 늦은 나이에 출산하면서 부정 출혈로 죽을 뻔했던 고비를 넘긴 터라 몸 상태도 다 회복하지 못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아기 때 심장질환을 앓았던 두 아이를 두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아이를 유아 기관에도 보낼 수 없었고, 코로나 시기라서 더욱 민감하게 아픈 남편과 아이를 돌보며 지냈다. 둘째가 5살이 되던 해, 아이의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 증상이 보이지 않아 아이를 유아 기관에 보낼 수 있게 되었고, 남편의 건강도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다.

아픈 남편을 대신해 내가 우리 집의 가장이 되어야 했다. 사회로 발을 내딛으려 했지만, 너무 오랜 시간 사회와 단절된 나는, 사회로 나가는 방법을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강북구청에서 연계해 준 강북구 자활센터 게이트웨이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나와 같은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 나보다 더 힘들게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많았다. 게이트웨이 교육에 참여하면서 나는 나를 알아가게 되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힘든 시기를 잘 이겨왔던 나의 과거를 회상하게 되었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 속에서 무엇인가 꿈틀거림을 느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강북구 자활센터 게이트웨이 교육에 참여했지만, 좋은 강의를 듣고 마음을 다스리며 지식을 쌓고, 게이트웨이 교육을 통해 나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나의 강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적극적인 내 모습을 보게 되었고, 게이트웨이 교육은 힘들게 살아온 나에게 참 유익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나는 게이트웨이 교육을 마치고 희망제작소에 출근하게 되었다. 지금은 희망제작소에서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어간다.

아침에 아이들 등교시키고 바쁘게 출근하는 시간이 행복으로 느껴지는 요즘. 남편의 건강도 예전보다 많이 회복 되어가고, 여느 평범한 가정의 위킹맘처럼 내 일을 열심히 하고 내 가족들을 살뜰히 보살피고 있다. 지금까지 제대로 직장에서 일해본 적 없던 내게 직장에 출근한다는 건 막연하고 두렵고 어렵게만 생각됐었다. 가족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한다는게 자존감이 떨어져 있던 나에게는 불안 할 수밖에! 게이트웨이를 마치고 희망제작소에 출근하기 전까지 이런저런 생각이 참 많았었다.

내가 일하는 희망제작소에는 나처럼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많다. 그렇다 보니 공감되는 것도 많고 나이대도 다들 비슷해서 첫 출근 날에 서로 인사하며 잘 지내보자고 하는데 다들 알고 지냈던 사람들처럼 뭔가 친근함이 느껴지더라... 희망제작소에 출근하면서 일하는 재미를 알게 되었고, 아이 양육하는 선생님들께 좋은 정보들도 공유하면서 하루가 짧게 느껴졌다!!

내가 직접 만든 길 사업장에서 판매도 하고 마트에 납품도 하고 남들 앞에 나서기 싫어했던 내가 플리마켓에 나가서 직접 판매를 하기도 했다.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을 알게 되었고, 내가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이었던가?!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던가?! 스스로 놀라는 일도 많다!! 요즘 내가 희망제작소에서 하는 일은 업사이클링 이라고 해서, 폐가죽으로 가방을 만들고 카드 지갑을 만드는 일인데, 보잘것없는 나란 사람이 이런 재주가 있었던가 새삼 느끼고 있다.

이 사회의 한 명의 일원으로 ‘나도 이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해 준 강북구 자활센터, 제2의 삶을 살게 해 준 희망제작소. 이곳에서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해 계획하는 사람이 되어간다. 내가

이토록 밝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가?! 늘 주눅 들어있고, 자존감이 없었던 나는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간다!!

‘희망’이란 뭘까? 항상 물음표로 남았던 ‘희망’이라는 단어가 요즘은 내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이고 단어가 되었다. 인생을 살면서 아무도 믿지 않았었고, 아무도 의지하지 않았던 내가 희망제작소 안에서 다른 선생님들과 웃으며 하루하루 즐겁게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강북구 자활센터 게이트웨이 교육에서 들었던 희망을 이야기하는 강의 내용과 희망제작소 안에서 내가 이곳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는 선생님들의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나는 희망제작소 선생님들의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에 한 발 더 다가가 마음을 열게 되었다. 처음으로 제대로 서 본 사회의 율타리 안에서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고 서로 돕고 타협하고 협동하며 한 발짝 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1년이라는 시간이 그리 길지도, 그리 짧지도 않지만, 희망제작소 이 안에서 나는 멋진 동료가 되어가고, 집에서는 슈퍼맨 엄마가 되어가고 있다. 가진 것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나의 소중한 귀한 아이들이 항상 밝게 웃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나는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막막했던 유년 시절.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웠던 과거. 지금도 어딘가에는 어린 날의 나같이 힘든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어둠 속에서 나와 내 안의 나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희망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닌, 내 스스로가 찾아야 하는 것이기에...

내 인생은 직진

◆ 김석진 · 인천광역시

첫째 아들이 태어나고 동시에 소원이었던 자그마한 꽃가게를 시장 어귀에 개업하였다. 건설회사, 골프 모임 등 여러 지인의 도움으로 수입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었고 둘째, 셋째 자녀가 태어나 어느덧 세 아버지의 가장이 되어버린 어느 해부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서서히 매출은 떨어지고 가게는 부채만 쌓이게 되었다. 결국 꽃가게 문을 닫게 되었고 여러 직장을 찾으며 건설회사 화초 도매업 일을 하던 중 꽃꽂이 학원을 운영하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였다. 이후 소장으로 근무하는 큰동서의 소개로 건설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일이 힘들고 지방을 떠돌긴 해도 나름 자녀들과 가정이 있었기에 아버지로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내는 내 월급과 이전 부채의 후유증으로 인해 세 명의 자녀를 키우는 것이 만만치가 않았던 거 같다.

둘째 딸이 중학교에 다니던 어느 날 나는 개인 사정으로 직장을 퇴사하게 되었다. 생활고로 인해 힘들었던 아내는 마트에 취직하였고, 나 또한 하는 일 없이 전전하던 중 야간 대리운전을 하였다. 주야간의 바쁜 생활 속 1년을 하다 보니 위에 역류 현상으로 위염 직전에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생활고로 고통받던 아내와 나는 결국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심하게 다투게 되었다. 그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내와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했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곤 한다.

이혼하고 아이들은 엄마가 맡기로 하고 나는 빈손으로 찜질방을 떠돌며 대리운전을 하였고, 보증금을 만들어 월세방을 얻게 되었다. 그래도 다행히 자녀들과 연락이 끊이지 않아 어느 날 문득 딸에게 전화가 왔다. “아빠가 너무 불쌍해요, 나 아빠하고 같이 있을 거예요”라고 울먹이며 전화가 왔다. 어린 딸이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한없이 고마웠다. 그러나 도저히 돌볼 자신이 없었기에 엄마와 같이 있으라고 했지만, 급구 오겠다고 하여 같이 지내며 아침엔 딸의 등교를 준비해 주고 저녁엔 대리운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 아주머니가 주민센터를 가보라고 하셨다. “왜요?”라고 물었더니 가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있다고 하니 신청해 보라고 하셨다. “그게 뭔데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코로나 시기였기에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서 괜찮다 싶었다. 집주인 아주머니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조건부 수급자가 되었고 생계, 의료, 주거급여 혜택으로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이런 제도도 있었구나!” 고맙고 감사했다.

어둡고 막막했던 나에게 새로운 빛과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자활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센터에 오셔서 상담해 보시라”고 하여 상담 중 나는 많이 고민했고, 친절하게 게이트웨이를 담당하시는 팀장님의 설득으로 자전거사업단을 선택하게 되었다. 버려진 방치 자전거를 수거, 분해하고 부품 하나하나 세척하여 새것으로 만들어지는 자전거사업단이 신기했다. 그래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지금 이 나이에 자전거 기술을 배워서 무언에 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 고민하던 중 불현듯 오기가 생기기 시작했다.

“한번 해보자, 내가 성공해야지 꽃가게는 실패했지만, 이번엔 성공해야 정말 이번엔 자녀들 앞에서 떳떳한 아빠가 되어야겠다, 손해 볼 것 없다”라면서 사업의 꿈을 품기 시작했다. 6개월 동안 자전거 부품 닦는 일을 배우며, 조립, 분해하는 것을 눈여겨보았다.

적성에 맞지는 않았지만 나를 몸치는 아니어서 시간이 흐르고 자전거 반장님이 5년 만기 종료 시점에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사업단 차량을 운전하며, 사업단 팀장님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자전거사업단 반장이라는 기회가 주어졌다. 팀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시고 새로운 여자팀장님이 오셨다. 자전거를 모르는 여자팀장이지만 경험치가 있어서 그런지 이모저모 코드가 잘 맞았고, 팀장님의 권유로 고급 자전거 정비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반장이라는 확실한 직책을 맡아 팀장님과 기업, 아파트 이동수리 행사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재생 자전거 판매도 병행하며 사업단 매출을 꾸준히 상승시켰다.

“아~~ 이런 게 사업이구나!” 나와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사업단 분위기가 좋은 건지 큰 말썽 없이 사업단을 지키고 있으며, 지금도 매출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나에게도 기회가 온 건지 모르지만 팀장님이 “기업 나가 보실 생각 있으세요?”라는 질문을 했고, 나는 고민 없이 “네~”하고 대답했다. 광역자활센터 지원으로 기업컨설팅을 마치고, 지금은 센터장님의 응원으로 자활사업단을 기업 전환에 확신하여 자활기업창업을 위해 철저한 준비 중이다.

사업단 참여 주민들을 다독이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열심히 일하며 매출도 상승시키다 보니 자활센터의 추천으로 2023년 자활 한마당에서 인천시장 표창장을 받게 되었다. 나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키워주고 도와주신 분들과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빠를 응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내 아들, 딸 아빠가 꼭 성공할게”

2024년 하반기에 자활기업 창업이 목표이며, 어두웠던 내 인생에 자활이라는 곳을 만나 삶에 녹색 신호등이 켜진 것 같다.

이제 “내 인생은 무조건 직진이다”



**위기를 기회로,
절망을 희망으로**

자활 성공·공로 수기 2023



자활사업 공로 수기

최 우 수 상 / 우리는 함께 성장함으로 (김새움/부산)

우 수 상 / 자활「르네상스」시대를 열다 (정혜영/경기)

1/100의 희망 (김유림/경기)

꿈이 현실이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성훈/대구)

입 선 / 선의의 참여자와 종사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허금주/충북)

꿈 너머 꿈을 찾아서 (안병준/울산)

New Start!(당신과 나의 새로운 시작) (김은정/부산)

나의 인생이 자활에서 '차올다'(차오르다) (김미선/광주)

'특별기여 난민' 자활성공 프로젝트 (이혜정/경기)

최우수상

우리는 함께 성장함으로

◆ 김새움 · 부산 사상지역자활센터

자활, 사회복지사로서의 첫걸음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도우미로 근무하면서 동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진행 중인 복지사업에 대해 안내한 적이 있었다.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살아갈 힘을 얻은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나는 한 통의 전화로 안부를 묻고 복지사업에 대해 안내한 것 말고는 한 게 없으나 어르신의 살아갈 힘이 되었다는 그 한마디가 살면서 전혀 생각도 해보지 않은 사회복지의 길로 나를 인도하였다. 2021년 1월, 그 길의 첫걸음을 내디딘 곳이 자활센터의 자활사례 관리사였다.

자활, 기초 다지기

입사 첫날, 자활사례관리가 무엇인지 생소하기만 했기에 자활근로 사업 지침 책자와 자활사례관리 매뉴얼을 읽어보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참여자들의 자립 역량을 약화시키는 개인 차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들을 사정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을 도모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자활사례관리라고 한다. 그렇기에 참여자들의 어려움과 문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사업단을 돌며 참여 주민들과 상담을 시작하였다.

“남편이 하던 사업이 망해서 수급자가 됐는데, 구청에서 자활근로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근데 빚이 꽤 많아서 못 갚고 압류 방지 통장만 쓰고 있어요.”

“옛날에 알던 형님이 자동차 산다고 명의 좀 빌려달라길래 빌려줬는데, 연락이 끊겨서 제가 다 덤터기 쓰게 됐네요…”

“이가 너무 아픈데 돈이 없어서 치과 치료를 못 받고 있어요”

“남편이랑 이혼하고 아이들은 내가 데리고 왔는데, 양육하기가 쉽지 않네요. 돈도 돈인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사업 실패 및 사기로 인한 부채 발생, 배우자와 이혼 후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에 대한 어려움, 열악한 주거환경 등 참여 주민들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됐는지, 현재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각자의 삶을 살아오며 만들어진 다양한 이야기 가운데 공통점이 있었는데, 참여 주민 대부분이 자립에 대한 의지가 꺾여있었다는 점이다. 채무조정을 통한 부채 해결, 주거 환경개선, 자녀 양육 관련 지원 등은 희망하지만, 자립은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취업하면 의료급여 탈락하는 거 아니에요? 저 병원 다녀야 해서 탈락하면 안 돼요.”

“가지고 있는 기술도 없고 나이도 많아서 나가면 취업 안 될 거예요.”

계속되는 실패와 어려움으로 이곳까지 오게 된 참여자들의 자존감과 자립 의지는 떨어져 있었고 내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버티고 있었다. 그렇기에 경제적 자활과 동시에 정서적 자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었고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활사례관리 기초과정, 정서적 자활 프로그램 운영 전문과정, 자립 지원 금융복지상담 자격 과정, 강점 기반 자활사례관리 교육 등 사례관리 전문 교육을 이수하였고 복지 자원 발굴 및 각종 공모 사업 신청 등을

통하여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는 자활사례관리 사업을 보완하고자 힘썼다.

참여자 A의 성장일지 - 자녀

2021년 여름, A 씨는 자녀(충동, 폭력적인 언행, 학교생활 부적응)의 문제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상담을 요청하였다.

“재작년에 상담받고 괜찮아지려는 게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아이가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들을 보여서 너무 힘드네요....”

2019년에도 A 씨의 자녀 문제 관련하여 Wee센터로 연계하였고 상담 및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의 상태가 호전되어 종결하였으나 자녀의 행동이 다시 폭력적이고 충동적으로 변했다고 한다. 연계되었던 전문기관과 연락하여 현재의 A 씨의 상황에 대해 공유하였고, 구청의 통합사례 회의의 안건으로 의뢰하여 관내의 다른 복지자원들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A씨를 지원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하였다. 행정복지센터, 구청, 이 외의 여러 유관 기관이 함께 모여 회의하였고 Wee센터에서 A 씨의 자녀를 위하여 특별 상담, 부모 코칭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참여자 A의 성장일지 - 건강

하지만, A 씨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신체적 건강과 심리 정서적 건강 모두에 문제가 발견되었다. 2020년 가슴에 섬유선종이 생긴 것을 건강검진으로 확인하였으나, 악성은 아니어서 제거할 필요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기에 제거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2021년, 재검진을 통하여 종양의 개수는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또한 근무 시간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다거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잦았기에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신체적인 문제는 3 for 1 통합지원센터의 의료비 지원을, 심리 정서적인 문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연계를 권하였다.

A 씨는 상담할 당시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중앙 수술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을 받겠다고 했으나 한 달쯤 뒤 돌연 상담도 수술도 받지 않겠다고 한다. “팀장님, 제가 지금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다른 곳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좀 정리되면 그때 수술받든가 할게요.” 내가 건강해야 주변을 챙길 수 있다며 재차 권하여도 A 씨는 완고하였다. 그래서 건강 외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시간을 두고 지켜보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2022년, 광역자활센터의 ‘자활사례관리 지역 맞춤 현장 지원사업’ 공모 내용을 확인하였다. 반기마다 시행하는 참여 주민 자립 욕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부모 가구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신청하였고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 공모에 선정되어 참여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A 씨에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권하였지만, 이미 반복되는 자녀 문제로 인해 해결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 A 씨는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사업단 담당자와 함께 계속 설득한 끝에 A 씨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상담은 많이 받아봐서 크게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정말 힘들었는데, 많은 위로와 힘을 받고 갑니다.” 프로그램 참여 결과, A 씨는 자신의 상황에 공감해 줄 수 있는 다른 대상자들과의 집단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되면서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하였으며 자녀를 위해 빨리 자립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되었다.

프로그램의 영향인지 좋은 소식은 연이어 찾아왔다.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던 A 씨가 구청과 병원의 복지사업을 통해 수술받겠다고 수술 일정까지 잡아두었다는 것이었다. “제가 계속 망설이고 포기해서 힘드셨을 텐데, 옆에서 끝까지 챙겨줘서 고마워요, 팀장님. 덕분에 수술받을 의지가 생긴 것 같아요.” 수술은 잘 마무리되었지만, 재발 우려가 있어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수술을 잘 결정했다고, 재발이 되더라도 빠른 대처가 가능하게끔 꼭 검사받으라고 독려하며 A 씨를 지지해 주었다.

참여자 A의 성장일지 - 주거

“팀장님, 혹시 집 관련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벽지랑 장판에 곰팡이가 너무 슬어서 교체하고 싶은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요...” 2021년, A 씨가 벽지 및 장판에 곰팡이가 너무 슬어 아이들 기관지에 좋지 않을 것 같다며 주거와 관련하여 지원을 요청하였다. 실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어 가정방문을 통해 확인해 보기로 하였다.

A 씨의 집을 방문했을 때, 자녀의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이 집의 환경 때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다. 저장강박증까지는 아니지만 정리되지 않은 물품들이 집을 군데군데 채우고 있었으며 벽지나 장판에는 곰팡이가 가득했고 구멍 난 옷 덧대듯 형형색색을 이루고 있었다. 또한 자녀의 문제 행동의 흔적으로 보이는 굵힌 자국, 구멍 난 자국이 벽지 및 책상 등 여러 곳에 보였다. 해당 내용을 구청과 공유하여 주거 관련 지원 여부를 확인한 결과 주거 위기가구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추천받아 정리 수납 서비스와 벽지 및 장판을 교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센터 내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되어 자녀들의 책상, 책장, 의자 등을 지원하였다.

참여자 A의 성장일지 - 근로

A 씨가 시간제 사업단에서 전일제 사업단으로 변경을 요청하였다. 자녀 양육 문제로 시간제를 선택했었지만, A 씨의 앞을 가로막던 문제들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자녀를 위한 미래를 생각하게 되었다. A 씨는 구청에서 실시했던 주거 위기가구 지원사업을 계기로 정리 수납 및 청소에 관심이 생겼고 관련 사업단에서의 근로 경험과 습득할 기술로 자립을 희망하였다. 사업지원팀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하였고 논의한 결과 A 씨에게 적합한 사업단에 새롭게 배치하였다.

눈앞에 닥친 문제로 갈대처럼 흔들리던 마음은 그런 상황임에도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굳건한 마음으로, 사례 관리사의 지지가 절실히 필요하던 대상자에서 동료로 지지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주거환경개선과 방역의 대상에서 정리 수납의 전문가로, A 씨는 느리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다.

정서적 자활

A 씨와 함께 한 시간을 통해서 참여자들을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은 정서적 지원임을 깨달았다.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받아서 넣어둘 그릇이 없다면 쓸모가 없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나는 2023년, 자활사례관리 지역 맞춤 현장 지원사업에 ‘중장년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을 위한 음악 치료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신청하였고 이 사업 역시 선정되어 참여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

대상자의 불안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음악 감상, 악기 연주 등을 통하여 해소하는 데 효과적인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각자의 생각과 감정에 함몰되어 있던 참여자들이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는 수용적인 자세를 가지게 해주었고 자조 모임을 통하여 정서적 지지체계를 구축해 주었다.

“평생 해보지 못한 경험이었어요. 울고 웃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OO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이 위로받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B 씨는 배우자와의 사별 후 혼자서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을 도맡아 하였다. 주변과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이 50대를 맞이한 B 씨는 음악치료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다.

결론, 자활사례관리란

정서적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 외에도 참여자들이 지닌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아동 청소년 지원사업, 유관 기관의 장학금 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취업역량 강화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활 사례 관리사로서 보낸 시간이 3년이 다 되어 간다. 자활사례관리 매뉴얼에서 권고한 자활사례 관리사 최소 자격 기준 중 하나가 ‘지역자활센터 또는 광역자활센터 3년 이상 경력자’인데, 올해가 지나야 겨우 최소 자격 기준에 충족된다. 그만큼 자활사례관리의 업무가 중요하며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

자활사례관리는 담당자의 역량뿐 아니라 참여자들의 역량 또한 함께 향상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A 씨가 느리지만 조금씩 성장하였듯 나 또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 이수 및 자격증 취득, 제공할 수 있는 복지자원 확보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참여자의 무너진 자존감과 자립 의지를 회복시켜 자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조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례관리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역량을 향상할 것이다.

“팀장님, 자활센터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활근로에서 못 벗어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되네요!”

센터의 모든 참여자가 자활근로와 사례관리를 통해 자립하여 이런 소감을 나눠주는 날까지 나는 자활 사례 관리사로서 참여자들과 함께 성장할 것이다.

우수상

자활 「르네상스」 시대를 열다

정혜영 · 경기 용인지역자활센터

청년 자활 도전 「더 건강하게」 스타트업!

나는 최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청년복지 사업이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정작 자활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은 기준이나 조건이 맞지 않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쉬움이 항상 있었다. 이에 청년이 관심 있어 하는 특화 자활사업을 고민하다, 최근 펫코노미(petconomy) 시대에 관심 분야로 반려동물 수제 간식 사업을 도전하기로 했다. 용인시 첫 청년자활도전사업단을..

우선 펫 푸드 전시회를 참여하여 산업의 동향을 파악했고, 반려동물 간식 사업에 대한 신세계를 보고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내가 몰랐던 이런 세상이 있었다니?..’ 막막한 심정으로 관내 대학의 반려동물학과 교수님께 사업의 취지를 설명해 드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학교에서도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사업 추진을 기획하고 있던 상황으로 학교의 물적, 인적 자원을 동원해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용인시·학교·센터가 자활 최초로 민·관·학이 협력하여 새로운 사업을 도전하기 위해 1천만 원 교육비 지원으로 발대식을 2023년 2월 진행하였다.

반려동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습 이외, 이론 수업이 필요했고, 교수님이 학교에 초대하여 강의해 주시고 대학생들과도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다. 처음에는 혹시나 ‘우리 참여자들이 대학생들과 어울리는 걸 싫어하지 않을까?’하는 소심한 걱정을 했지만, 대학교 강의를 처음 듣는 우리 참여자는 신입생 새내기처럼 들떠있었다. 저렇게 밝고 환한 열정적인 참여자들의 모습은 그동안 내가 보던 얼굴이 아닌 듯했다.

또한 참여 청년 12명 모두가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한국 반려 동물교육협회 펫푸드 전문가 1급 자격증을 취득했고, 교수님의 컨설팅을 받으며 레시피 만들고 재료 준비, 조리, 포장 등을 직접 참여하면서, 동시에 「밥팻」이라는 민간 업체의 펫 비즈니스 교육 과정을 추진했다. 간식을 완성할 때마다 “사람보다 더 호강하네?”라는 탄성이 나왔다.

우리만의 [더 건강하개] 로고를 디자인하고, 제조장과 판매장으로 구분하여 시설을 구축하며, 단미사료 제조 허가를 받았고 자활기업의 인테리어 공사로 매장은 아주 멋지게 탄생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제 중요한 우리가 만든 작품의 홍보 및 판매 통로 개척이 남아있었다. 나는 판매장에서 수익 창출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주문자 위탁 생산방식(OEM)으로 협약 후 생산성 향상을 도모했으며, 펫푸드 전문업체와 온라인 마케팅 제휴 및 소셜커머스 온라인몰(티몬) 판매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협업했다.

그리고 2023년 8월! 주변의 응원과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반려동물 수제 간식 전문점 [더 건강하개]를 화려하게 오픈하게 되었다. [더 건강하개]의 오픈 소식은 한마디로 이슈가 되었다. 각종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오고, KBS 전국 뉴스에도 우리 사업장이 소개되고, 청년축제, 원데이클래스 강의, 행사요청 등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로 자활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가족들은 내가 인터뷰한 뉴스를 계속 돌려보며, 1년 동안 너무 바빠 가정에 소홀했던 나를 인정해 주는 분위기였다.

청년의 장점을 인스타로 활용하여, 매장 소식 상품개발, 행사 참여 등 홍보에 힘쓰고, 고객들의 다양한 요청에 맞는 수제 간식을 만들고 반응 후기를 보면서 저절로 힘이 났다.

언론에서는 자활사업의 성공 모델이라며 취재가 오고, 기획보도가 되면서 자활에 대해 좀 더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 뿌듯하다...’

전국 최초 자활 분식 브랜드 프랜차이즈화 도전

인생에서 성공은 꿈꾸는 자의 몫이라는 명언이 있다. 분식사업단을 준비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입을 고려하다가, 상권분석 및 입지 선정, 창업 관련 책을 읽으며, 분식 브랜드를 만들어보자는 꿈을 갖게 되었고, 전국 지역자활센터에 분식사업단 가맹점화를 기획했다. 전국에 「밥과 함께 라면」 간판이 올라가는 것을 꿈꾸며...

먼저 사업단 프랜차이즈를 위해서, 환경개선 공모 인테리어를 하고 밝고 산뜻한 분위기, 신규 레시피 개발, 직무의 매뉴얼화, 친절 교육 등 체계적인 구조개선에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다. 우리 자체 특화된 레시피가 필요했다. 다행히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참여자가 있어서, 여러 가지 식재료와 조리 시간, 조리 방법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가며 레시피를 계속 개발했고, 다양한 분식집을 찾아다니며 맛을 비교하고 분식 트렌드를 살펴 나갔다.

아파트 상가 내로 작게 시작한 분식 사업단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메뉴를 제공하자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규모 및 비용면에서 창업이 다른 업종에 비해 용이하다 보니, 이미 레드오션 시장이었으나, 신선한 재료·맛과 위생·친절을 모토로 삼아 최선을 다하여 분식집을 운영하였다.

수많은 손님을 대면해야 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직종이기에 몸은 아주 힘들었지만, 맛있게 먹었다는 감사 인사와 인터넷 후기를 보며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만 있다면.. 힘내자~! 파이팅!’하고 외치며 힘을 내며 서로를 다독였다.

하루 매출 5만 원으로 시작했던 사업단은 2021년 시장진입형으로 전환 후, 일평균 6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창업 공모에 선정돼 창업 자금 1억 3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지원금으로 실내 인테리어를 개선하고 장비와 물품을 보완해 2023년 8월! 당당하게 자활기업으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나는 「밥과 함께 라면」 1호점의 자립을 준비하며, 동시에 다문화 가정 및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밥과 함께 라면」 2호점 개소를 동시에 준비하였다. 인테리어 컨셉을 자활기업 한우리 건축과 의논하면서 색상 심리학을 공부하였고, 색과 분식사업단의 조합을 고민하였다. 여러 색상의 후보 가운데 주황색이 식욕을 돋우고 분위기를 따뜻하고 밝게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는 색이라 주황색으로 콘셉트를 잡고 인테리어를 시작하였다.

인테리어는 기존 김밥 브랜드와는 차별화된 캐주얼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나왔고, BI도 김밥과 라면을 헤어스타일로 조합해 김밥 전문점을 드러내면서도 재미있는 요소를 부각시켰다. 또한, 사업의 성패는 홍보가 중요하고, 다른 김밥 브랜드와의 차별성을 위해 용인시 캐릭터 ‘조아용’을 활용한 상품 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득하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조아용 김밥’과 ‘화나용 김밥’을 개발했다.

2023년 10월! 드디어 꿈에 그렸던 「밥과 함께 라면」 2호점을 개소하게 되었다. 개소식에 시장님이 참석하시어 자활의 발전에 대해 축하해 주시며, 1호점 성공에 이어 2호점도 성공 신화를 계속 만들어갈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자활 성공 모델을 만들어 달라시며 엄지척을 해주셨다. 시장님이 그동안의 고생과 노력을 알아주시는 거 같아 가슴이 뭉클해졌다.

「밥과 함께 라면」 2호점 오픈은 예상대로 시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조아용 김밥’은 시정 홍보에도 도움이 되고, 다른 곳에서는 먹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성이 있어서 단체 주문이 밀려 들어왔다. 포장지에도 조아용과 화나용의 캐릭터를 더해 귀여움을 더했다. 각종 채소와 재료를 아끼지 않고 짹짹 채운 ‘조아용 김밥’과 매운 어묵 맛 ‘화나용 김밥’을 먹기 위해 먼 거리에서도 찾아와 주었고, 맛있다는 후기와 인증사진을 올려주었다.

용인 자활은 2024년에는 3호점을 개소 계획을 확정했다. 분식사업단 브랜드화 소식에 타 시에서 선진지 견학을 오는 등 레시피 문의, 가맹점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경기광역자활센터와도 광역 단위 프랜차이즈화 사업추진을 위해 함께 논의하는 중이다. 제2의 백종원처럼 꼭 성공하리라~

꿈이 없는 사람은 없다. 자활근로자의 Change my life~!

자활의 성공 신화 「밥과 함께 라면」과 청년 자활 도전사업 「더 건강하게」는 자활근로자에게 희망이 되었고, 용인 자활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주었다. 물론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다. 차라리 다~알려주고 다~차려주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맹점을 할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자활근로자가 사업단에 참가하면서 변화해 가는 모습, 꿈을 실현해 가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 흘렸던 땀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한 예로 분식사업단 참여 중인 한 근로자는 ‘사기꾼 남편을 만나 홀로 아이를 키우며 억울함과 원망으로 자신이 인생의 바닥까지 경험했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분식사업단에 참가하면서 “다양한 요리 기술과 조리 방법을 배워 자립하고 지하 방에서 탈출하겠다는 꿈을 꾸게 되었다.”면서 “내가 원래부터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잘 웃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꿈과 희망을 안고 새로운 나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감사함을 표현했다.

또한 반려동물 펫푸드 「더 건강하게」 사업단에서는 조현병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30살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던 참여자는 청년 사업단을 통해 사회로 나오게 되었고, 자존감과 협업을 배우며 또래와 함께 있어 일하는 자체를 즐거워했다. 청년 및 여성에 특화된 2개의 사업단을 추진하면서 자활참여자들의 노력과 성실성, 하고자 하는 의지! 이러한 작은 변화가 쌓여 본인이 참여하는 사업을 즐거워하고 자긍심을 갖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에게는 가장 큰 보람으로 남았다. 참여자들의 경력이 화려하진 않아도 내면엔 단단한 자아가 생겨나는 것을 보았고, 이 점이 자립을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하게 된다.

문득 카르페디엠(Carpe Diem)이 떠오른다. 힘든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저 인생의 한순간이었을 뿐이고 자신에게 집중하며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다 보면 되는 것이 아닐까?.. 2023년은 사회복지사로서 긍지와 자부심, 보람이 가득한 한해로 내 마음속에 기억될 것이다. 앞으로도 그들과 고민하고, 기뻐하고 함께하는 조력자가 될 것이고, 진정한 자활이 될 수 있도록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끊임없는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이다.



1/100의 희망

 김유림 · 경기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나는 게이트웨이 담당이다.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자활사업의 시작을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을 맨 처음 맞이하는 것이 내 역할이다.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자, 재기를 준비하고자 의욕을 갖고 오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수급을 유지하기 위해 찾아오고, ‘어쩔 수 없이’ 이 일 말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찾아왔다고 서두를 꺼내는 분들을 만나게 된다. 개중에는 자활을 여러 번 경험하신 분들도 있기 마련이다.

최근에 만난 참여자는 만 18세가 갓 지난 분이었다. 얼마 전 자활기업에 취업하면서 센터를 떠났던 참여자가 본인의 자녀를 데리고 온 것이다. 상담 시간에 기본면접 기록지를 작성하며 ‘자활센터에 기대하는 점’을 묻자 ‘없음’이라고 대답한 참여자에게 질문을 바꿔 ‘여기에 온 이유’를 물었다. 참여자의 대답은 ‘엄마가 가라고 해서요’였다. 보통은 50대에서 60대의 중장년인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더러 30대에서 40대인 분들이 오면 젊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하물며 10대 후반의 ‘가라고 해서’ 찾아온 참여자에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어떤 목표를 잡고 가야 의욕이 생길까, 고민하게 되었다.

하고 싶은 일은 딱히 없지만 가능하다면 빨리 취업하고 싶다는 참여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빨리 독립하고 싶어서라고 한다. 무슨 얘기를 해도 시큰둥하며 단답형으로 얘기하던 참여자와 처음으로 긴 대화의 물꼬가 터졌다. 그렇게 시작된 참여자의 얘기는 이렇다.

부모님과 동생 두 명, 그리고 친할머니가 함께 살고 있는데 얼마 전 큰외삼촌이 더부살이를 시작했다고 한다. 장애가 있는 아버지는 매일 술을 드시고, 이 많은 식구를 위해 돈을 벌어오는 어머니는 친할머니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맞추며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다고 한다. 집을 꾸미고 있는 가구는 누군가 길에 내놓은 것들로 채워져 있고 연식이 오래된 집에서는 언제부턴가 개미들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안 그래도 낡고 비좁은 집에 더부살이 식구가 한 명 더 늘어서 온전한 내 공간을 갖는다는 건 꿈도 못 꿀 일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루빨리 돈을 모아 나만의 공간을 얻어 내 생활을 살고 싶다는 목표만이 남았다고 한다.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비슷한 상황의 참여자를 이전에도 만났고, 경중을 논할 수는 없지만 더 기구한 사연을 가진 참여자도 수없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지금 만난 참여자의 말과 표정이 마음속에 남았다. 주먹만 한 크기의 솜이 물을 머금은 딱 그만큼의 무게로. 왜일까. 하루, 이틀, 사흘. 참여자와 상담하며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생각은 흘러 흘러 ‘내가 그러면, 어땠을까?’라는 질문에 닿았다.

나는 점점 자라서 많은 것이 변하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공간과 환경은 열악한 그대로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어져 가는 18년 동안의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다.”는 희망 사항은 이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생활 속에서 ‘희망’은 허울 좋은 말치레에 불과하였을까. 그렇다면 변화를 일으킬 힘도 욕심도 소용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익숙할 것 같았다. 생각이 거기까지 닿자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올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변화할 수 있다고 믿게 될까?” 답을 찾지 못한 채 상담을 계속했다.

IAP를 작성하며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찾아보았다. 여전히 하고 싶은 ‘일’은 없지만 독립을 꿈꾸는 참여자에게 그 막연한 목표를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물어보았다. “아무래도 돈이겠죠”. 1년 이내에 월세로 독립을 시작해서 3년 이내에는 전셋집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개인 재산은 현재 전무한 상태였다. 얼마가 필요할지, 어떻게 마련할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아도 참여자는 “그렇게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라는 식으로 대답하였다.

이대로 IAP를 마무리할 수는 없어 참여자의 목표를 다시 정리해 보았다. 참여자는 아마도 단기간 내에 많은 돈을 좀 더 쉬운 방법으로 모으는 방법을 바라는 듯했다. 그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청년내일저축계좌’였다. 그래서 참여자에게 슬쩍 이야기해 보았다.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자활에 참여하면서 정부지원금을 최대 50만 원 더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지만 “오, 좋네요” 정도의 반응이었다. “혹시 내용이 현실감이 없어서 그런가?” 그래서 물었다. “그게 다 얼마나 되는지 직접 계산해 볼까요?” 3년 만기로 정부지원금까지 다 받으면 총합이 2,160만 원이었다(이자 제외). 계산기를 보여주자 상담한 이래 처음으로 참여자의 눈이 반짝였다. 진심 어린 감탄사도 함께였다. ‘됐다’하고 나도 속으로 감탄했다. 비로소 IAP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물론 지금 만난 참여자가 무조건 적금을 들고 만기에 탈 거란 보장은 없다. 하지만 뭔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보고 싶다는 의욕을 갖는 경험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게 이번 상담 동안 스스로 물어왔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가난한 부모와 살면 자식도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 의문이 계속 맴돌았다. 그건 사회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 설득하는 부모와 그 설득이 당연한 사실인 듯 여기며 성장하는 자식. 그렇게 한정된 범위를 나의 한계지점이라고 단정 짓고 체념하는 마음에 반기를 들어주고 싶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나는 이미 그 반기를 매일 반복해서 들고 있었다.

돌이켜보면 게이트웨이를 하면서 참여자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참 많이 받았다. 초기상담을 거쳐 사업단 현장실습을 한 뒤 사업단에 무사히 배정되는 분들, 그리고 게이트웨이만 참여하고 종료하시는 분들도 종종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처음에는 단순히 예의상 건네는 말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상담하는 참여자 수가 조금씩 많아지고 상담 횟수가 늘어나면서 감사 인사 뒤에 덧붙는 말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내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같이 정리해 주시니까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어디에서도 안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나이도 들고 돈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만으로도 힘이 좀 난다.”

각기 다른 사람들인데 신기하게도 같은 소감을 전해주셨다. 혹시 그게 내 역할의 의미가 아닐까, 뒤늦게 생각해 보게 되었다.

변화를 바라지만 변화를 일으킬 방법도 힘도 없어서 주저앉아 멈춰버린 채로 누군가가 센터를 찾아온다. 그러면 나는 그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는 것부터 상담을 시작한다. 그 후로는 터무니없는 욕심이 아니라 실현할 수 있는 목표로 이정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경로를 찾아 단계별로 차근차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참여자와 함께 계획하고 지원해 나간다. 매뉴얼 같았던 그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이제야 가슴으로 와닿았다.

새삼스러웠다. 그리고, 작지만 반복적으로 끈질기게 이 일을 하고 있으면 100명 중의 1명일지라도 자기 삶의 한계선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어졌다. 그게 자활의 목표이자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희망’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꿈이 현실이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김성훈 · 대구 중구지역자활센터

꿈을 꾸다.

대구중구지역자활센터에서 12년 동안 근무하면서 많은 참여자가 거쳐 갔고, 자립·자활을 현실적으로는 출퇴근만 잘해도 자활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기본적인 근태부터 문제가 많은 참여자들이 많았다. Gateway 과정 참여자들은 자활센터 전화를 받거나,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불평불만이 많았다.

“왜 오라 가라 하나?”

“왜 바쁜 사람 불러서 하는 것이냐?”

“자활센터 안 다녀도 생계비 안 끊기게 해라.”

언성을 높이는 참여자도 있었지만, 자활사업을 참여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싶다고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상담을 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그중에 박○○ 참여자는 2018년 4분기 맞춤형 취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인을 통해서 자활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오랜 상담이 이루어졌다. 표정과 말투를 보면 불만 가득 찬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지만, 박○○ 참여자는 꿈을 꾸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현실로 실현하기에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자활의 문을 두드렸다. 그렇게 시작하여 지금은 자활기업 대표가 되었다.

꿈이 현실이 된다.

1) 신규사업단 개설

박○○ 참여자와 함께 2019년 2월부터 로스팅피플이라는 이름으로 신규사업단을 시작하였다. 내가 12년 동안 자활 근무하면서 해보지 못했던 사업단을 시작하려고 하니 생소하고, 큰 노력이 필요했다. 사업단 운영 초기에는 매장을 찾고, 원두 업체 선정, 메뉴 개발, 상품 로고 개발 등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참여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지지를 해주었다. 다른 사업단 비해서 신경도 많이 쓰이고, 참여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꾸려가는 사업단이었다.

특히 박○○ 참여자는 기차재 물품은 무조건 좋은 것을 해야 한다고 하였고 대부분 해외제품이거나 고가제품이었다. 자활 지침에 따라 무한대로 예산쓰는 것이 안되는 것을 알려드리고, 질충안을 찾고, 적정선에서 필요한 제품을 살 수 있다는 방법도 알려드렸다. 처음에는 로스팅 기계나 커피머신기 등등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투덜대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기계로 고급스러운 맛과 향을 내는 커피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달콤한 커피만 마시는 나에게는 커피콩이 뭔지, 로스팅, 아메리카노, 더치커피 등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박○○ 참여자는 사업단에 무심하게 툭툭 내뱉는 말투와는 다르게 로스팅피플사업단에 관심과 애정이 남달랐다. 로스팅하는 과정에 다 태우기도 하고, 원두 보관을 잘못하여 이상한 냄새가 날 때도 있었고, 주문이 들어왔는데 잘못 납품이 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서 로스팅할 때 얼마나 볶으면 가장 맛있는 커피가 되는지 알게 되었다.

2) 지원 내용

2020년에는 대구시 자활기금 지원(8백만 원)으로 로스터기(1kg) 및 그라인드 구입을 하여 드립커피 전문교육, 드립 전용 원두 로스팅 및 원두 제품이 다양화될 수 있었다. 2020년에 중구청 자활기금 지원(3백만 원)으로 더치커피 및 드립커피 세트 상품개발을 위한 포장 용기 및 제품 디자인비 지원을 하여 더치커피용 포장 용기 및 선물 세트용 포장 용기 제작 판매를 시작하였다.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로스터기를 구입함으로써 사업단 사업비 절감 및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사업의 초기안정화를 할 수 있었다.

3) 실전 체험

무뚝뚝한 성격과 무표정을 한 박○○ 참여자에게 손님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판매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역행사에 참여하게 하였다. 2019년 실패박람회, 대구 동성로 일대 한 드립커피 체험부터 시작해서 매년 대구 중구 관내 사회복지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중구 복지 한마당, 주민자치센터에서 주최하는 마을 행사, 지역복지관과 연계한 마을 축제, 동성로 축제, 대구 중구 밤길 걷기 축제 등에 참여함으로써 손님 응대를 어떻게 해야 하며, 판매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소비자의 직접적인 반응을 경험하게 되었다. 박○○ 참여자는 고집 센 성격이라서 큰 변화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조금씩 변화되는 표정들과 말투로 응대하였을 때 매출이 조금씩 오르는 것에 본인 스스로 성취감을 느꼈다.

4) 매출 상승 그리고 자활기업

신규사업단으로 조직화한 2019년에는 1년 동안 750만 원 매출이 있었다. 여러 가지 실패도 많이 했고, 판매도 저조했다. 조금 더 나은 매출을 위해서 박○○ 참여자와 많은 시도와 노력을 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4,500만 원 매출이 났다. 2021년 매출은 1억5천 이상 매출이 났으며,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자활기업을 준비했다.

꿈을 향해 도약하다.

자활기업 준비 이외에도 바리스타 1급 자격증 취득, 조주기능사취득, 식음료

검정감독관 심사위원자격 취득, 핸드드립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등 누가 하라고 했으면 할 수 없을 일을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실천해 갔다.

“왜 이렇게 자격증을 많이 따요? 자활센터에도 창업하는 데 문제없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 텐데...”

“신용불량자로 있으면서 무기력할 때 자활센터에 왔고, 상담 속에서 자신의 꿈을 발견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박○○ 참여자는 단순한 커피 관련 사업을 하고 싶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한 생각하던 시점에 “이게 6차산업입니다”라는 나의 한마디에 막혔던 숨이 뚫린 것 같이 그대로 직진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거침없는 도전의 결과로 신규사업단 2019년 2월에 시작하여 2022년 5월에 주식회사 모비 덕 에프앤비 자활기업을 창업하였다. 현재 박○○ 참여자에서 대표님이 되었지만, 꿈을 항상 도전은 아직 멈추지 않았고 더욱더 열심히 달려 나갈 준비하고 있다. 2023년 10월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현장실사가 완료되었으며 프랜차이즈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대구를 상징하는 쿠키 제작을 위한 특허 취득 및 2호점 직영점을 내년에 준비하고 있다. 지금은 제가 박○○ 대표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사업단 운영에 대해 상의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있다.

꿈이 현실이 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

12년 동안 자활 근무를 하면서 힘들고 속상한 일들도 많았지만, 나의 말 한마디에 꿈을 꾸고, 현실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현실 이상의 것을 만들고자 지치지 않고 따라온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 박○○ 대표님이 있어서 ‘사회복지사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든다. 일상의 조그마한 변화 속에서도 삶의 기쁨을 느끼고, 행복해하는 참여자들을 보면 나 자신도 지치지 않고 열심히 달릴 수 있는 에너지를 얻고 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꿈을 현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계속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선이의 참여자와 종사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 허금주 · 충청북도 영동군

2022년 1월 10일, 영동군청 주민복지과로 발령 받았을 때 앞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자활만 아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해 전, 대학교 친구가 공무원 생활을 토로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분야가 ‘자활’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 업무 첫날, 자활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 ‘앞으로 참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느낌은 처음부터 늘 맞는 걸까요? 자활업무 첫째 날부터 10시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자활참여자라고 본인 소개를 한 사람은 아침부터 이미 허가 꼬부라져 있었습니다.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험담을 늘어놓고, 장시간 수화기를 붙잡고 놓지 않는 남성 참여자를 보면서 자활센터 종사자들이 얼마나 힘들지 훤히 보였습니다. 전임 주무관도 이미 인수인계 시에 알코올과 폭력으로 문제가 많다고 말했던 그 참여자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인지 의심이 가는 참여자와 통화가 끝나고,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자활센터를 방문하는 일이었습니다. 자활센터 1층 사업장의 나무로 만든 문이 주먹

자국처럼 패여 있어 의아했습니다. 센터 소개를 해 주시는 자활센터팀장님께 저 문은 왜 그런지 문의드렸더니 참여자 중 한 명이 술에 취한 채 문을 때렸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기가 차서 어서 문부터 고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퍼뜩 대학 때 배웠던 ‘깨진 유리창’ 이론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과연 자활에서 무엇을 해야 좋을지 저는 그 주먹 모양의 부서진 문을 보면서 두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째, ‘선의의 참여자분들을 보호’하는 것과 둘째, 다른 사회복지기관들보다 열악한 처우에서도 ‘자활을 포기하지 않는 지역자활센터 팀장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업무 협조를 해 주는 것, 이 두 가지를 앞으로 자활업무를 하는 동안에 가장 기본적인 자세로 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다짐이 무색하게 근무 첫째 날 전화했던 자활참여자는 삶이 참 불우했습니다. 2년 전, 부인이 야간 식당 일을 끝내고 오토바이로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뒤에 타고 있던 중학생 아들은 살고, 부인만 즉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중학생 아들은 그 사고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아 아버지처럼 학교에서도 소주를 마시거나 친구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결국 보건의소에서 알코올 치료소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딸은 요리하다가 국물을 쏟아 화상을 입게 되어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불우한 가족사로 인해 참여자에게는 매우 동정심이 들었지만, 동정심이 무색하게도 이 참여자는 자활센터가 보이는 도로 한복판에서 노상 방뇨하다가 경찰에 신고당하거나 함께 일하는 참여자들에게 욕을 하거나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등 자활센터에서 상담을 무수히 많이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본인의 불행한 가족사를 자활센터 종사자와 참여자에게 와서 분풀이하는 행위는 이미 도를 넘어섰기에 저는 더 이상 동정심만으로는 자활센터에 계속 다니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은 아주 무거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자활업무를 하면서 세웠던 두 가지 결심 중에 첫 번째인 자활센터에서 일하는 ‘선의의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활센터에서 그동안 동정심으로 견뎌왔던 알코올 중독 의심 참여자를 보건소 정신보건전문요원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이 참여자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 중학생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 미성년임에도 술을 마시는 행위 등을 막고, 딸에게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참 아버지를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부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기 전에도 그는 늘 알코올 문제로 경찰서에 여러 번 들락거리는 사람이었고, 경찰서에서도 이미 많은 신고를 몇 년 동안 받아서 지역 경찰들과는 안면이 모두 있을 정도였습니다.)

보건소에 알코올 의심과 관련하여 정식으로 공문 의뢰를 하고 기다리던 중 보건소 정신보건전문요원에게 이 참여자를 상담할 수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전화했을 때는 이미 서울로 대상자가 떠났다는 겁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는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마음이 무겁고, 아쉬운 결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자활센터는 이분이 근무를 안 하게 되면서 다른 참여자분들이 상시적으로 난무하던 욕을 듣지 않게 되고, 폭력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없어져서 자활센터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습니다.

센터에서 빈번하게 행해지던 주취 행위와 노상 방뇨 등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자활센터 종사자분들도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때로는 단호한 결심이 필요하고, 동정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센터는 센터장 1명과 팀장 4명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임 주무관이 2021년에만 팀장님들 4명이 바뀌는 바람에 자활 업무하기가 매우 힘들었다고 했는데 제가 담당 업무를 맡게 된 2022년에도 신규 팀장 선발을 위한 신원조회를 4번이나 하게 되었습니다.

자활을 가장 오래 한 팀장님이 1년이 약간 넘고, 1년 동안 4명이 연속적으로 변경되어 자활업무의 연속성이 타 지역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2023년도는 팀장님들이 한 명도 변경되지 않아 성과 평가 점수도 지난 연도에 비해 많이 올랐습니다. 어느 업무든 마찬가지로겠지만 자활센터는 특히나 종사자들이 오랫동안 일하기가 매우 힘든 업무입니다. 노인, 장애인, 청소년 모두 각 분야의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자활은 특히나 일하고 싶지 않은 저소득층에게 일을 해야 함을 납득하게 만들어 근로의 성과를 내게 만드는 분야이기에 자활센터 종사자들에게는 처우개선을 좀 더 특별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타 지역자활센터 점검 결과, 어느 기관에서는 경력이 오래된 자활 센터종사자를 확보한 점이 오히려 센터의 연간 예산 확보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한 분야에 오래된 경력이 있다는 것은 자활 현장에서 매우 큰 장점입니다. 이 장점을 이용하여 자활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오히려 자활센터 예산에 부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울러 자활 담당자로서 우리 자활센터는 왜 이렇게 계속 실무진이 바뀌는가에 대해 고민이 되었습니다.

다른 기관은 십수 년이나 된 팀장님들이 정말 많은데 우리 센터종사자는 모두 5급이었고, 재직기간이 수개월에 지나지 않아 원인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여 2021년도부터 왜 팀장님들의 변동이 커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 자활센터에서 가장 오랫동안(육아휴직 포함하여 7년) 일했지만 2021년도에 그만둔 팀장님께 마음은 무겁지만 일단 전화를 드렸습니다.

막상 만나 뵈 자리에서 전(前) 팀장님이 자활에 정말 애정이 많았음을 확연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한 곳에서 오래 일한다는 것은 그곳에 사랑과 관심을 많이 두었다는 것이고, 그 기관의 역사를 알기에 더욱 자활에 힘을 썼을 텐데... 아쉬운 마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우리 자활센터에는 팀장님들이 모두 1년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전(前) 팀장님은 미안하다면서 본인이 사직하는 날까지도 승진을 못하고 계속 5급이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육아휴직을 했어도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승진을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책임지고 승진을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자활센터의 성격상 모(母)법인지 존재하고, 민간 위탁 기관인 자활센터의 인사에 행정기관이 제재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라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제 본심은 정말 기가 찼습니다. 참여자들에게는 물리적 보상이 명백히 주어지는데 종사자에게는 ‘승진’이라는 물리적 보상을 모(母)법인 또는 자활 센터장에게 재량적으로 부여하는 부분은 행정기관의 담당자로서 종사자의 매우 열악한 처우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일은 자활 담당자로서 묵과할 수 없는 부분으로 판단되어 우리 군 직속 팀장님께 우리 자활센터가 앞으로도 꾸준히 잘 되려면 현재 근무하는 팀장님들이 중도에 그만두는 일이 없어야 하고, 팀장님들 중에 아무도 승진을 못하고 있으면 결국 우리 센터를 그만두시고,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옮기실 것이기에 물리적 보상인 승진을 묵과할 수 없다고 보고드렸습니다. 다행히 직속 팀장님께서 자활 센터장에게 1년에 4번 이상의 팀장들의 사직과 관련하여 자활센터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센터와 모범인 스스로 판단해 보심이 좋을 것 같다고 하여, 우리 센터에서 가장 오래 일한 팀장님이 최근 4급으로 승진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제19회 충북자활 한마당이 개최되어 그날 하루 종일 참여자와 종사자분들과 버스를 타고, 다 같이 먹고, 마시고, 충북 전체 자활센터에서 모이게 되어 여러 게임을 하는 동안 그 흥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즐거웠습니다. 그날 참여자분들께서 보여줬던 해맑은 웃음과 행동들로 저도 자활참여자분들에 대한 애정이 더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만 그런 게 아니고 행사 이후부터 사업장에 점검을 나가게 되면 친절한 환영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모(母)법인, 자활센터, 종사자와 참여자, 자활에는 해당 구성원이 다양합니다. 서로서로 아껴주고, 이해해 주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처우 개선을 지침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는 등 기본적인 사회복지시설·기관 정도의 합리적인 면모를 갖춰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2년 동안 자활 담당을 한 후 느낀 점입니다. 자활 담당 초반에 많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자활센터의 실무진들과 참여자분들의 해맑은 웃음과 친절함으로 자활이 이제는 마냥 이뻐 보입니다.

꿈 너머 꿈을 찾아서

◆ 안병준 · 울산 울주지역자활센터

한 줄기 빛이 되어 준 아이들

“선생님 이제 안 와요?” 처음 아이들을 만난 건 지역아동센터에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아이들을 계속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보니 사회복지사를 하면 계속 만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길로 나는 사회복지사를 공부하여 29살에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주변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는 나에게 사회복지사의 길을 처음 열어준 것은 희망 리본 사업이었다. 고용과 복지를 연계해서 저소득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자활 프로그램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참여자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이 뿌듯하고 즐거웠다. 이후 울주지역자활센터에서 게이트웨이 전담자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참여자들이 자활센터를 방문했을 때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이 게이트웨이 전담자이다.

오늘은 또 어떤 인생을 듣고 보게 될까?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힘없는 발걸음과 무표정한 얼굴, 세상을 다 잃은 듯한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온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다. 참여자들에게 밝고 친절하게 상담을 시작하면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려준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삶의 의미를 찾고 다시 웃을 수 있을까?” 상담하면서 항상 고민해 왔다. 그분들은 어떤 욕구가 있는지, 과거에 어떤 일을 해왔고, 적성이나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개인별 맞춤형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자활센터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 효과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업하거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게이트웨이로 근무하다가 편의점사업단을 맡게 되었다. 편의점은 24시간 쉬지 않고 근로하다 보니 참여자가 부족하거나 결근이 발생하면 업무를 대신해야 했다. 근무 시간 중이나 주말, 퇴근 후에도 편의점에 문제가 생기면 망설임 없이 바로 달려간다.

똑똑!! 자활센터의 문을 두드린다

신규 편의점을 오픈했다. 근로의욕이 있는 참여자가 편의점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자활기업으로 편의점을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책임감 있고 성실한 분을 바라고 있을 즈음, 임○○ 참여자를 만나게 되었다. 참여자와 첫 만남은 2020년 11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발발하여 환자와의 접촉이 있거나 동선이 겹치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던 시기였다.

마스크 착용과 인원수 제한 등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사람들과의 접촉은 최소화하던 시기에 가게들이 폐업하는 경우가 많았던 시기였다. ○○ 참여자도 이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자활센터를 방문 했다. 동네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선한 인상의 수더분한 참여자는 20대에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입학하며 서울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졸업하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대기업에 입사해 인사, 총무과 업무를 맡았으며,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중간 관리자로 역량을 키워나갔다. 하는 일마다 인정받고 승진의 기회도 찾아왔으며,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예쁜 딸을 얻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회사에서도 중책을 맡아 외국계 기업과의 합작사업을 진행하는 TF팀을 구성해 개발 업무도 진행하다 보니 스카우트 제의도 받았다. 앞으로도 계속 탄탄대로를 달리며 꽃길만 걸을 줄 알았다. 가족이 늘어나고 경제적으로 더 탄탄해지기를 원했던 참여자는 욕심이 생겼다.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들여 더 높은 연봉과 함께 이직하게 되었다. 20년간 다니던

회사를 이직하고 울산으로 삶의 터를 마련하여 생활하다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현실로 다가왔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딸은 학교 적응이 쉽지 않았고, 아내 역시 힘들어하긴 마찬가지였었다.

고민 끝에 미국 유학을 결정하고 아내와 딸을 먼 타국으로 떠나보내게 되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힘들고 외로웠지만 한편으로는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을 떠올리면 마냥 기쁘고, 가족이 보고 싶을 때 미국으로 여행 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영원한 행복은 없는 걸까?

이직한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임〇〇 참여자의 자리조차 보장받기 힘든 위기가 찾아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참여자는 회사 측과 협의하여 퇴사를 결정했다. 딸의 유학비를 보내기 힘들었던 참여자는 미안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다. 어렵게 여러 사업들을 시도하였으나 기회는 오지 않고 마냥 행복할 줄 알았던 참여자의 삶은 계속된 사업 실패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좋은 아빠, 능력 있는 남편이었던 참여자의 삶은 변화되어 무능력한 아빠, 남편이 되어버렸고, 스스로 책망하고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 1년 동안 매일 술을 마셨다. 하루하루 몸과 마음이 망가져 가는 내 모습을 들여보다가 문득 ‘이렇게 살다가는 내 가족도 내 인생도 없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자활센터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희망이라는 이름

임〇〇 참여자는 성실해 보였고, 다른 참여자들에 비해 건강해 보였다. 방향을 잘 잡아준다면 어떤 일든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임〇〇 참여자는 2022년 12월에 신규로 오픈하는 GS25 편의점 사업단에 배정하여 근로를 시작했다. 누구보다 배우려고 하는 의지는 강했지만, 처음으로 접한 편의점 업무는 익숙하지 않았다. 발주시스템들도 가르치고 자활센터의 자활기업에 대한 정보도 알려드렸다. 〇〇 참여자는 GS25 편의점 사업단에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누구나 완벽한 인생을 살 수는 없다. 시대에 따라 변화되고 사회적 현상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참여자들의 삶은 아슬아슬하게 버티는 보드게임의 젠가처럼 느껴졌다. 자활센터를 처음 방문하는 이들은 걸어서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삶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진다. 표정이 어둡고 발걸음이 무겁다.

어둡고 긴 터널 속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해 조금씩 빛을 밝혀 스스로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일자리를 잃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새롭게 도전하는 꿈을 꾸게 하고 싶고, 희망을 안겨드리고 싶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어두운 표정이 문을 닫고 나갈 때는 밝고 씩씩한 걸음으로 활짝 웃으며 문을 닫고 나가길 바란다. 오늘도 나는 참여자들이 행복해지는 시간을 꿈꾸며 행복한 고민을 한다.

새로운 도전, 꿈 너머 꿈을 이루다

2023년 1월 GS25 편의점을 오픈할 수 있었다.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큰 기쁨을 다시 느낄 수 없을 것 같았던 참여자에게 다시 기회가 생겼다. 웃으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는 참여자의 모습은 밝고 희망에 찬 모습이었다. 누구에게든 불행은 찾아오고 또 불행이 온 만큼 기회도 찾아온다.

불행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만드는 발돋움이라고 생각한다. 임〇〇 참여자는 현재 자활기업 GS25 편의점에서 꿈 너머 꿈을 꾸며 살아간다고 말한다. 과거의 경험을 발판으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길 바라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다시금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좌절만 존재하던 제 삶에 희미하지만 확실한 빛 줄기 하나를 보게 된 것 같아서 요즘은 정말 행복하다. 월급이 기다려지게 되고 그 월급을 받아서 또 한 달을 생활하고 다시 사회초년생이 된 것만 같은 느낌으로 하고 있다고 말한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꿈 너머 꿈을 향해 달려간다.

New Start! (당신과 나의 새로운 시작)

 김은정 · 부산 사하두송지역자활센터

위잉~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부산사하두송지역자활센터 직원 채용에 합격하셨습니다.”

“네?!...!! 정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함박웃음으로 시작!

나는 육아에 전념하던 40대 경력 단절 여성이었다. 다시 사회로 나아가고자 했을 때 찾아보는 채용 공고마다 만 35세 이하가 대부분이었다. 절망적인 현실 앞에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고 있던 나에게 우연히 사회복지기관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사회복지 분야를 처음 대면하게 되었다. 계약기간이 끝날 무렵 사회복지의 매력을 알게 된 나는 새롭게 재도약하고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내가 보고 느꼈던 대로 지역사회 속에서 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을 실천하는 작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늦은 나이에 다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현실은 나를 위축되게 했고, 내 안에 확신은 없었다.

그런 나에게 2020년 12월은 내가 아직 살아 있음을 경험한 특별한 날이 되었다. 마치 20대 사회 초년생과 같은 기대와 두근거림이 나의 심장과 뇌를 가득 채웠다. 모든 것이 다 잘될 거라 믿으며, 나는 그렇게 감사함과 함박웃음으로 자활 사업 실무자의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씩씩하게.

自活을 아세요?

[국어사전] 자활(自活) : 자기 힘으로 살아감.

자활? 재활? 사회복지 전공자가 아닌 나는 사회복지를 떠올리면 후원·복지관만 생각했었다. 내가 이곳에 오기 전까지 각 지역 구 단위로 지역자활센터가 있는지 지역주민이지만 모르고 있었다. 지역자활센터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어려운 지역주민을 돕는 일이란 포맷에 한정된 생각만 가지고 자활사업단을 시작하였다. 사업단을 처음 방문했을 때 나의 시선에 보인 참여 주민은 시큰둥하고 의욕이 없어 보였다. 그리고 경계하거나 무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당황스러웠지만 친절한 미소, 상냥한 말투, 낮은 자세로 참여 주민을 대하기 시작하였다. 그제야 지역자활센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주 조금 깨닫게 되었다.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인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 의욕과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고 소득 창출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 바로 내가 함께 할 일 자활이다. 내가 처음 맡게 된 세탁 사업단은 직접 세탁은 하지 않고 수거·배송만 하는 사업 형태였다. 물량이 많이 확보되지 않아 참여자들은 근무 시간의 절반을 무력하게 보내다 퇴근한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단순한 것부터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솔선수범을 보였다. 참여자들을 독려하여 함께 인근 아파트부터 홍보 전단지들을 세대에 부착했다.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리 심장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던지. 계단을 한 층 한층 내려올 때마다 호환마마가 쫓아오는 것 같아 겁싸게 움직였다. 아파트 1동을 다

끝내고 외부 현관문을 나왔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 함께 한 참여자들도 동일한 마음이었다. 우린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었다. 참여자와 난 그렇게 서로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시작한 홍보 활동은 참여자 주도하에 정기적으로 시행되었다. 그 결과 사업단의 전화벨 소리가 자주 울렸다. 참여 주민은 웃으며 전화를 받는다. “네~ 탑클린세탁입니다.”

사업단에서 전화가 왔다. 세탁 공장에 맡긴 세탁물이 없다고 한다. 달려가 그곳에 있는 세탁물 전체를 다 찾아본다. 그 외에도 세탁 완성도, 기간 등의 고객들 불만 접수는 끊임없었다. 반면 공장 업체의 태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결정했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법. 발품을 팔아 지역 내 여기저기 찾아보다 우리 조건에 알맞은 세탁 공장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럴 수가!

시간 단축, 완성도, 시스템 모든 것이 충족되니 고객도 참여자도 만족한다. 참여자가 내게 말했다. “요즘 일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무기력하게만 있던 그들이 변화되고 있었다. 또한 나도 변화되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변화된 결과 사업단 개설 이래 가장 높은 매출과 참여자들은 난생처음 자립 성과금을 받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였다. 와우!~

내 눈길 한 번에 자활 한 걸음

자활 사업단이 내게 익숙해질 무렵 참여자의 개개인 상담에 집중하고 싶었다. 자활 근로를 참여하는 분들은 각각 개인 파일이 있다. 그 안에는 초기 상담지 및 ISP·IAP, 과정 기록지 등이 있다. 사업단 한 사람 한 사람 파일을 살펴보면 그분들의 고민과 어려움,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현실 속에 구체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참여자들에게 더 눈길이 갔다.

B 참여자는 자활근로를 하며 틈틈이 책 읽는 것을 좋아하신다. 내가 사업단에서 자주 마주친 모습이 여유시간이 있을 때마다 책을 보고 계셨다. 사업단에 새로 배정된 분들에게 시스템과 기기 사용법을 잘 안내해 주신다. 고객들에게도 친절하셨다. 이분에게도 하나의

목표가 있었다. 반드시 자활을 벗어나 취업의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졌다. 한 번, 두 번, 지원서를 넣는 곳마다 탈락을 맛보았다. 낙심한 참여자에게 나는 위로와 그분이 가진 다수의 장점을 복돋우며 새롭게 다시 시작해 볼 것을 권했다.

함께 이력서를 준비하고 면접 시 필요한 사항도 알려드리며 차분히 준비한 그 분은 당당하게 공기업 계약직으로 취업하게 되었다. 취업 후 여러 번 자활 성공 수당 신청 서류와 내일키움통장 지급 해지 건으로 센터를 방문하실 때 우리 실무자들을 위해 맛있는 간식을 사 들고 환해진 얼굴로 오신다. 자활을 벗어나 진짜 자활이 되었을 때 참여자의 얼굴은 꽃과 같았다. 그래,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그들의 자활과 자립은 힘들어 지친 나에게 충전과 같은 의미가 되었다. 나는 그렇게 자활사업 담당으로 무르익어 가는 중이다.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이 열린다!

자활사업은 매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한다. 그래서 항상 매의 눈으로 변화하는 트렌드와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을 머리로 이리저리 굴린다. 사하구 내 을숙도 근린공원에는 편의시설이 다양하지 않다. 그곳을 갈 때마다 아쉬운 점이 보였고, 기존 카페 사업단 반대편에 대형 카페가 건축 중이었다. 지금이 기회다! 근린공원 내 편의시설로 편의점 사업단을 추진하자고 의견을 제출했다. 을숙도 근린공원의 특색에 맞게 일반 편의점이 아닌 환경을 생각하는 「클린 매장」.

본사의 매출 운영 방식에 이반되는 조건이라 계약 시부터 순탄하지 않았지만 환경을 보호하고 고객의 건강을 생각하는 목적을 충분히 전달하여 술과 담배를 팔지 않는 특별한 매장으로 시작하였다.

참여자와 함께 본사 경영 교육에 참여하여 경영주 마인드를 형성하고 추후 창업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적극적인 격려와 기대를 심어주었다. 공사 시작부터 외부 색상 하나 결정할 때도 심혈을 기울이고 참여자들과 함께 매장을 쓸고 닦고 물건을 매대마다 채워가며 밤늦게까지 검수하고, 나의 체력은 바닥이었지만 어떻게 그 시간을 버텼는지

지금도 모르겠다. 나 혼자였으면 절대 할 수 없었지만 매 순간 함께했던 참여자들과 신규 사업 준비에 항상 지지해 주는 센터의 지원이 있었기에 신명나게 일한 것 같다. 참여자와 나는 설렘 반 기대 반으로 개점 일을 맞았다.

보통 1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매장 필요 물품을 준비해 두지만 우리는 신규매장이라 어떤 제품이 얼마나 판매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을 예측하지 못해 재고가 바닥이었고 나는 밤새 인근 매장에 전화를 걸어 제품 수급을 해야만 했다. 봄철 피크 타임에는 1시간 만에 130명의 고객이 매장을 가득 채워 고객 반, 제품 반처럼 순식간에 시끌벅적 시장이 되어 버렸다.

참여자들의 식사 시간도 챙기지 못할 만큼 이용객이 많았고, 시간이 흘러 참여자들 스스로 필요 물품을 사전 발주를 넣고 준비를 갖추어 전문 경영주의 역량을 쌓아가게 되었다. 주말도 반납하며 열심히 달려온 결과 2022년 총 사업단 중 매출 1위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 참여자와 함께 사업단 운영을 하는 즐거움은 언제나 좋다.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성장하는 그 모습에 나는 감사함이 넘친다.

나는 뺏속까지 자활인이 되겠습니다!

법인 신년 행사에서 신규 실무자의 인사 시간이 주어졌다. 사회자는 우리에게 말했다. 각자 소개하며 포부 한마디씩 하라고. 아... 떨리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머릿속이 하얘진다. 옆 사람을 지나고, 또 옆 사람을 지나 내 차례가 왔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사하두송지역자활센터 김은정입니다. 저의 포부는 열심히 배워서 뺏속까지 자활인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웃었다. 나도 부끄러워 웃었다. 그리고 그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당황스러웠지만 현재 나는 그 포부의 길을 한 걸음씩 가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감정도 경험하였다. 많이 울기도, 웃기도,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한계를 느끼며 여기가 끝이 아닐까? 라는 고민의 언덕들을 몇 번을 넘고 넘어 지금 나는 자활사업단 3년 차이다. 3년 차 자활사업 담당으로서 해마다 새로운 참여자를 만나고 경험하고, 다양한 직무교육도 받으며 자활 전문가로서 성장해 가고 있다. 참여자를

이해하는 마음도, 지역 안에서 자원을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며 적극적으로 사업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자활사업 추진에 매진하고 있다.

내가 경험한 자활사업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중요한 사회복지 분야임을 깨달았다. 내가 이곳에서 참여 주민들과 역동적으로 함께 하며 그들이 성취감과 자기 효능감, 사회 구성원으로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노력하는 땀속 자활인으로 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와 참여 주민이 함께 시작하고 함께 성장하며 함께 웃을 수 있는 자활사업 담당으로서 키가 쭉쭉 자란 미래의 내 모습을 상상해 본다. 아름다운 자활. 행복한 우리. 화이팅!

나의 인생이 자활에서 ‘차올다’(차오르다)

김미선 · 광주 북구동신지역자활센터

나의 첫 사회복지는 자활센터

낮설고 두렵기만 했던 사업단의 업무는 모든 것이 새로웠다. 늘 설렘을 가지고 출근하고 넘치는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초기 사업팀장 시절을 돌아보면 미소가 떠오를 때도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출발했던 사업 운영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선배 팀장님들도 그러셨을까? 힘들고 들어설 때마다 걱정이 앞서는 사업단이 있는가 하면 유독 잘하고 싶고 또 과하리만큼 애착이 가는 사업단도 있었다. 애착이 가는 사업단 중 으뜸인 두 곳이 있는데, 6년째 이어오는 채반 사업단, 사회환경과 흐름에 부응하는 업사이클링을 주제로 한 해피드림 사업단이 그렇다.

6년째 금쪽이 채반 이야기

채반은 사업팀장을 시작하면서 처음 맡은 사업단이다. 사회 서비스형 3년 차 사업단이지만 식품(건조차)을 생산하는 사업단의 환경은 열악했다. 정해진 제품 레시피도 없고, 참여 주민들의 건조차에 대한 전문지식도 전혀 없었다. 사업단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뿐만 아니라 사업단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 방향부터 정해 참여자들의 공유와 그에 맞는 변화도 필요했다.

사업단 이전을 시작으로 영업 신고와 제조 등록을 마쳤다. 일정한 맛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각의 제품별 레시피를 개발했으며 참여 주민과의 개별 상담을 통해 개개인에게 맞는 업무를 맡겨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참여 주민들이 각각의 업무에 적응하고 익숙해지면서 사업단 운영이 원활해져갔다. 참여 주민들의 사업단에 대한 주인의식도 생기고 매출을 위한 각자의 노력도 더해지면서 사업단 매출도 오르기 시작했다. 광역자활센터 컨설팅과 연계하여 건조차 생산 품목을 늘리고 담금주, 뽕쇼, 샹그리아를 벤치마킹하여 상품을 다양화시켰다.

매출이 안정화되어 갈 때쯤 갑작스러운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시장이 침체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구매 고객이 온라인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온라인 판매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온라인 판매를 위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반응은 좋았고 구매 고객은 증가하였다. 벤치마킹으로 만들었던 뽕쇼는 그해 최고의 상품이 되었고 매출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다. 참여 주민들도 힘들지만 지금처럼 늘 바빴으면 좋겠다며 행복한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사업단을 시작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매출은 올랐지만, 시장형 사업단 전환에는 부족하여, 사업단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 센터에 사회 서비스형 사업단으로 다시 도전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참여 주민들도 사업단을 일으키고자 뜻을 같이했다.

센터의 도움으로 사회 서비스형 1년 차로 사업단을 시작했다. 시장형으로 나가지 못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마케팅 전략을 다시 세웠다. 건조차 이미지 구축을 위해 건강과 행복이 믿음처럼 차오른다는 스토리텔링과 함께 브랜드명 ‘차올다’를 지식센터 재능기부를 통해 함께 개발하였으며 기존 채반 브랜드를 ‘차올다’로 변화시키기 위해 포장지를 개선하고 브랜드를 정착시키기 위한 마케팅을 시작했다.

동시에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에서 진행하는 HAPPC 인증 시설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에도 신청하였다. HACCP 인증을 꼭 받아야 하는 제품 품목은 아니다. 하지만 경쟁사 분석을 통해 브랜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 판단했고 도전했다.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선정되어 HACCP 인증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제품의 질이 향상되면서 납품받고자 하는 업체와 지역사회 공공기관도 많아졌다.

제품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하여 ‘고향사랑 기부제’에도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채반 ‘차올다’는 이제 명실상부 센터의 중요 생산품이 되었으며 안정적인 사업단으로 유지되고 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쳤던 사업단이지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던 뚝심으로 2025년에는 시장형 사업단으로의 출범을 믿는다.

참여 주민들과의 행복한 꿈, 해피드림 이야기

2020년 신규사업을 고민하고 있을 때쯤 지자체의 공공임대 과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상가 활성화를 위해 센터에 공방사업단 운영을 권유받았다. 수공예 사업단은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사업이었으므로 레드오션에서 살아남을 공예 사업을 찾아야 했고 센터직원들과 상의하여 제로웨이스트 공예 사업단을 출범하게 되었다.

제로웨이스트는 환경보호 가치를 기반으로, 재활용의 상위 단계인 재활용 제품을 만드는 사업이다. 재활용 원재료의 용도를 새롭게 바꿔 더 나은 가치를 가진 재활용 상품으로 무엇이 가능할지 참여 주민들과 함께 몇 달을 조사하고 고민했다. 그중 눈에 띄는 제품이 커피박이었다. 커피박 제품은 초기시장으로 걸음마를 떼는 단계여서 경쟁력이 있었고, 주변에서 쉽게 재료를 수급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었기에 제품 생산 가능성이 높게 생각되었다.

선진지 견학을 통해, 경쟁사 분석과 시장분석을 할 수 있었다. 아이템을 커피박으로 정하고 나서, 제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며 기계 설비를 구축하고 매장을 세팅하는 등, 두 달 정도의 시간을 열심히 달렸다. 경쟁사보다 더욱 완성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레시피를 개발하고, 참여 주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강사 자격증 및 커피박 업사이클링 자격증

과정 교육을 지원하여 6명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초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완제품 판매도 체험행사도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으나 위드 코로나로 외부 행사가 많아지면서 커피박 제품에 대해 알릴 기회가 점차 늘어났다. 공방 사업을 권유했던 지자체에서도 사업 활성화를 위해 매월 체험행사를 진행해 홍보에 도움을 주셨으며 센터는 커피박에 대한 홍보 기사를 써 주어 온라인을 통해 고객들에게 해피드림 사업단 노출의 기회를 주었다.

주민센터와 플리마켓 등 체험행사를 다니며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여 하나씩 고객사 네트워크를 확보해 갔다. 마침내 광주권 내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원데이클래스 수업을 요청하기 시작했고 입소문을 타고 더 많은 요청이 들어오게 되었다. 원데이클래스에서 사용되는 커피박 화분의 제품완성도가 높다며 별도로 상품만을 주문하는 업체도 많이 늘어났다. 우리 기술을 견학하여 배우고 싶다는 곳도 생겨났으며 협업하여 체험수업을 함께 진행해 보자는 공방 업체도 생겼다.

해피드림의 발전 가능성은 그 크기를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무궁무진하다. 지금은 커피박 화분이나 클레이로 체험행사와 단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커피 가루를 활용하여 만들 수 있는 제품은 계속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피드림은 2024년 시장형 사업단을 목표로 두고 있다. 참여 주민 중 한 분은 시장형 사업단을 거쳐 자활기업으로 창업도 꿈꾸고 계신다. 분명 자활기업 창업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자부한다.

나의 이야기

사업팀장은 참여 주민들과 함께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사람이다. 참여자에게 격려와 확신을 주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지자 역할을 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조력자이기도 하다. 사업 운영은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나의 부족함을 함께 해 줄 참여 주민들이 있어 어려움과 역경이 좌절이 아닌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었다.

내게 꼭 필요했던 에너지를 그들에게 얻어 힘을 내었던 것처럼, 나 역시 참여 주민들께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고 힘이 되어 주고 싶다. 이해와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팀장으로 함께 한다면, 참여 주민들에게 힘들 때는 버팀목이 되고 때로는 쉼을 위한 그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함께 하여 즐거운 사업단, 참여자 개개인이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기대하는 곳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특별기여 난민’ 자활성공 프로젝트

이혜정 · 경기 용인지역자활센터

I. 머리말

● 아즈미 가족 첫 대면

2023년 2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 난민’인 아즈미 가족이 자활센터에 첫 상담을 왔다. 이들은 극도로 경직된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가족과의 상담이 센터 직원들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초기 상담 후 게이트웨이 실습 과정을 거친 아즈미 부부는 조아용in 사업단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자녀 돌봄을 위해 아즈미 부인은 시간제로 배정하였다. 나는 ‘아프간 특별기여자’에 대한 정보를 급히 찾기 시작했다.

지난 2021년 8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급박하게 아프가니스탄에 거주하는 미국, 한국 등 서방의 자국민을 긴급 구조한다는 뉴스를 TV에서 보고 마음이 많이 동요되었던 것이 생각이 났다. 20년간 미국 한국 등 서방 국가는 아프간 재건 사업에 참여 중이었고 탈레반과 내전 중이었던 아프간 정부가 탈레반에게 수도 카불을 점령당했다는 소식이었다.

탈레반은 미국과 서방 정부에 협력한 자국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보복을 예고했고 2010년부터 우리 대사관이나 KOICA, 한국 병원, 한국 직업훈련원, 한국 기지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정부를 도와 아프간 재건 사업에 협력한 아프간인 수백 명의 신변이 위험해진 상황이었고 우리 정부는 12년 전에 아프간 현지인들이 한국 정부의 일들을 도왔던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는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미라클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자국민과 아프가니스탄인 391명을 구출하기 위해 군용기 3대를 현지에 투입한다는 소식과 그들을 난민이지만 ‘특별기여자’ 신분으로 받아들인다는 소식이었다.

이들과 같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 난민’들의 한국 정착은 많은 이들이 병원이나 대사관 등에서 일한 전문자격증이 있는 엘리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사항이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는 관계로 단순노동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야근 및 언어 소통 문제 등으로 인해 직장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고 아즈미 가족도 결국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우리 센터에 위탁되었다.

II. 본문

1. 1차 사례관리 계획 수립 (IAP, ISP)

나라와 부모 형제를 등지고 아무런 준비 없이 급하게 생사를 걸고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알게 된 나는 낯선 타국에서 가족의 안전과 생존을 책임지기 위해 그때그때 문제를 맞닥뜨리며 해결해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처지가 너무나 안타까워 우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위해 사례관리를 하기로 하였다.

● 자가 진단 (IAP) 수립

- 강점 : 아프가니스탄 카불대학 졸업, 인도에서 유학, 한국대사관 (영어/아랍어) 통역경력, 아프가니스탄 한국 직업훈련원에서 자동차 관련 자격증 취득, 한국 자동차 운전면허 2종 취득, 작은 소형차 소유,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부담 없고 출퇴근 방법 자유로움

- 구직희망 직무 : 무역업, 통역원 등
- 취업 장애요인 : 한국어 소통 많이 미흡
- 도움받고 싶은 것 : 아프가니스탄 탈주할 때 할아버지의 충격 사망 장면 목격에 대한 심리적 트라우마와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학교생활 적응이 어려운 초등학교 2학년 딸의 심리치료와 학습 지원
- 학교와 소통이 자유롭지 않을 아이 어머니를 위한 생활지도

● 자활지원계획(ISP)을 수립

취업처 발굴, 학교와 다문화가족센터, 아동 발달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방법을 찾고 단계적 목표를 세워 자활지원계획(ISP)을 수립하기로 사례 회의 의견을 모았다.

2. 갑작스러운 취업

이주민과 난민의 한국 정착을 돕는 단체인 ‘우리 모두 친구’를 통해 고양시에 위치한 (주)태린홀딩스라는 무역업체를 소개받고 출퇴근 거리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취업 결정

3. 2차 사례관리 계획 수립

회사까지 출퇴근 왕복 4시간을 다녀야 하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용인시에서 제공받은 것처럼 고양시에서도 LH 매입임대 주택을 확보하여 가족의 안전과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한 2차 사례관리 계획을 세움

4. ‘코칭 상담’과 ‘해결 주의 상담’ 적용

출퇴근하면서 있을지 모르는 도로의 위험 상황과 교통비, 피로감, 고양시로 이주할 시 용인시로부터 받은 매입임대를 고양시에서 다시 신청해야 하는 입주 조건, 이사 등 수없이 많은 난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용인에서 취업처를 찾아보는 게 좋겠지만 그보다 더 나은 취업처가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어 기회가 왔을 때 용기를 내 보는 게 좋을 것인지, 우리는 수일에 걸쳐 함께 깊이 고민했고, “너의 인생은 네가 선택해야 해”라고 하기엔 한국문화와 실정, 적응에 대해 잘 몰라 첫 번째 한국 정착

시도에 실패 경험을 가지고 자활에 들어온 외국인이면서 난민 지위에 있는 아즈미에게 적용하기엔 시작부터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씩 질문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코칭 상담’과 직면한 문제를 강조하는 대신 현실적 자원과 잠재력으로 현재와 미래의 목표를 설정하고, 해결책을 탐색 실행하는데 있어 본인이 직접 참여하고 자활센터는 협력적인 관계로 솔루션 문제를 해결하는 성공 경험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갖게 하는 ‘해결 중심 상담’을 적용하였다.

또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이 부족하고 직장문화, 사회적 통념, 사고방식에 대해 아프가니스탄과 비교해 다른 점을 수용하고 한국에 융화되는 방법을 제안해 줄 수 있다고 코칭하고 당신의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그의 선택을 격려해 주었다.

5. 지원 내용

● 근로계약서 항목 수정 재계약 및 해고수당 안내 6항. 10항.

업무능력에 따라 임금의 변동에 대해 기본급과 상여금 지급일과 횟수, 기타 주거지원 항목 구체적 기입 요구, 해고 예고수당 노무 상담 지원, 기본급 하향 조정하여 재작성된 취업확인서 수령

● 취업처 방문 (적응 문제 사후관리 상담)

근로계약서 수정 및 재계약, 주거지 이주를 돕기 위해 고양시 LH 주택 공사 입주 가능 물량 확인 및 업체 지원 등 협의

● 주거지원 (용인시청 주택과, 고양 시청 주택과, 고양시 LH 매입 임대주택) 공조

▶ 임대 정보 주택 물량 6건 정보 받아 업체 대표님께 동행 요청 등 지속적 물색

▶ 현 거주지 용인시 LH 매입 임대주택 퇴거 지원

최소 2주 전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계약 해지 신청과 보증금 반환 신청

▶ 집 계약 (고양시 LH 매입, 전세임대주택, (주)테린 홀딩스) 공조

고양시 LH 매입임대주택 입주 가능 물량을 3개월간 물색하였으나 구하지 못하고

취업을 포기하고 용인으로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할 때 취업처 대표님이 본인 명의로 40평 전세 아파트를 구해 입주시키기로 결정

▶ 이사 지원 (용인지역자활센터, 취업처, 고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조

❶ 수원출입국사무소에 변경된 주소 신고

변경된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전입신고) 14일 이내 하고 (신분증 뒷면에 새 주소지 기록) 하면 출입국사무소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됨

❶ 아즈미 배우자 자활근로 연장

아즈미가 3.14 취업으로 아즈미와 그의 배우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종료해야 했으나 첫 월급 받는 1개월 사이에 완전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아즈미 아내를 5.19까지 연장하여서 참여할 수 있도록 용인시 복지정책과와 처인가청 통합사례관리과와 공조

❶ 자녀 전학 절차 (용인 초등학교, 고양시 호곡 2동 주민센터) 공조

인우보증서 제출 방법과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자동 인계 방법 안내

❶ 바우처 카드 발급 지원 (강남대학교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호곡 초등학교) 공조

- ▶ ‘그린나래’ 바우처 카드 발급으로 강남대학교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읽기 곤란 (난독증) 학습 총 15회기 중 초기상담 및 대중교통 이용 안내 2회기 동행 지원
- ▶ ‘누리집’ 포인트 바우처 카드 신청과 사용 방법을 고양시 호곡 초등학교 공조로 신청

❶ 자녀 심리치료 지원 방법 (고양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복지센터, 고양시 백병원) 공조

고양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고양시 거주자 대상 정신과 분류 F 코드인 사람 40만 원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료 가능

❶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하기 (용인시 다문화 가족센터, 고양시 다문화 가족센터) 공조

용인시, 고양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고양시 이민자 통합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능력시험’을 통해 귀화 과정에서 플러스 점수 안내

6. 적응 및 격려 상담

이사 후에도 ‘우리 모두 친구’ 이주민 지원 단체에서도 함께 아즈미 가족을 도울 거라고 힘내라고 격려함

7. 취업 축하 프로모션 상담

10만 원 상당의 종합 비타민 2개를 취업 축하 선물로 지급하여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함

8. 용인시 자활 성공 수당 지원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 주민센터에 동행해 50만 원 신청

Ⅲ. (맺음말) 장래 계획 및 포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난민인 아즈미 가족은 길을 잃은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이었고 이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 용인시와 고양시의 LH 주택 공사, 민간기업, 교육청, 난민지원단체, 지역자활센터등의 민관협력 지원이 필요했다.

우선 매슬로우(Maslow) 동기이론 중 생존에 필요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소속욕구 문제 해결이 시급했고 최초에 정부에서 지원받은 거주지 주택을 포기하고 취업을 위해 타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에는 모든 걸 새로 세팅해야 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탈출 ‘미라클 작전’처럼 우리 용인지역자활센터에서도 취업, 주택, 직장, 교육 등의 밀착지원을 통해 한국 정착 ‘미라클 작전’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협조해 주신 관공서나 민간기관 담당자들에게 참 감사했었다. 아즈미가 10년간 아프가니스탄 재건 사업 때 한국을 도운 이유로 탈레반으로부터 보복당할 수 있어 특별기여 귀화 난민으로 오게 된 이유를 열심히 설명했고, 배려를 받으면 꼭 돌려주고 싶어 하는 한국 사람 특유의 ‘보은 정신’이 업무 공조에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 냈고 특히 통역이 가능한 자활사업 참여 주민 및 이사 지원 서포터즈를 구성해 끝까지 지원과 응원을 해 주셨던 센터장님, 실장님, 실무자들 그리고 이주한 곳에서 잘 적응하고 살기를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참여 주민 여러분들이 함께한 프로젝트라 더욱 감사한 사례관리 과정이었다.

또한 출퇴근 왕복 4시간의 먼 거리를 3개월간, 아니 더 길어질 수 있었던 힘든 시간을 잘 참고 이겨내 준 아즈미와 매우 불안한 시간을 믿고 기다리며 응원해 준 아내와 그의 딸에게 나는 “Your family did it. Your family will win.”이라고 힘을 실어 말해주었고 본국의 사정으로 한국에 귀화했지만 한국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아프가니스탄 고유문화도 잊지 않으며 융화될 수 있게 격려했다.

그리고 서로의 미숙한 언어로 매번 번역 앱을 통해 소통하는 수고로웠던 노력이 사후관리 8개월이 되는 현재, 우리의 선택이 옳았고 성공적인 한국 정착의 과정이었다는 믿음을 확인하고 싶은 ‘확인 편향 (confirmation bias)’을 입증하기 위해 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응원하고 있다.

21회

위기를 기회로,
절망을 희망으로

발행일 | 2024년 1월

발행처 | 보건복지부·한국자활복지개발원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충정빌딩 10층

T E L | 02-3415-6900

F A X | 02-3415-6990

“혹여 나와 같은 처지에 놓여 고민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처음은 늘 무섭고 두려운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움 주는 그 손을
절대 뿌리치지 말아라!”

- 대상 수상자 나장희 수기 中 -



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